

지역재생 · 공동체 · 문화

2022 4단계 BK21

강원대학교 교육인문협력학과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일 시

2022년 11월 4일 (금)
09:30-17:30

장 소

ZOOM
(회의ID 928 8656 2605)

주 최

- 강원대학교 교육인문협력학과
- 강원대학교 BK21 지역재생을 위한
교육협력과 인문케어 전문가 양성 교육연구단
-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학과
- 인하대학교 BK21 글로벌다문화교육연구단

후 원

- 한국연구재단
- 강원대학교

지역재생 · 공동체 · 문화

일 시 2022년 11월 4일 (금) 09:30-17:30

장 소 ZOOM (회의ID 928 8656 2605)

주 최 강원대학교 교육인문협력학과, BK21 지역재생을 위한 교육협력과 인문케어 전문가 양성 교육연구단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학과, BK21 글로벌다문화교육연구단

후 원 한국연구재단, 강원대학교

제1부

해외학자 초청강연

코로나 시대와 코로나 이후의 철학적 실천: 누스페어(정신영역)에서의 춤 (루 메리노프, 미국 뉴욕시립대학 교수, APPA 회장)

제2부

학문후속세대 세션

게임 '스피릿페어러' 에 나타난 치유성 고찰 (양송이, 강원대학교 교육인문협력학과)

결혼이주여성의 자조모임 인식에 관한 주관성 연구 (최수안, 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학과)

중년 여성의 자존감 증진을 위한 인문치료 : 비폭력대화를 기반으로 (이승옥, 강원대학교 교육인문협력학과)

영화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정원>에 나타난 성장과 치유 -도널드 위니콧의 이론을 중심으로- (조성미, 강원대학교 교육인문협력학과)

제3부

인사말

유강하 (강원대학교 BK21 지역재생을 위한 교육협력과 인문케어 전문가 양성 교육연구단 단장)

축 사

김영순(인하대학교 BK21 글로벌다문화교육연구단 단장)

김진영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과 명예교수, 前 강원대학교 BK21 지역재생을 위한 교육협력과 인문케어 전문가 양성 교육연구단 단장)

이민용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소장)

정성미 (한국인문치료학회 회장)

기조강연

호모내러티브, 공존하는 시민의 인문학적 실천 (김영순, 인하대학교 BK21 글로벌다문화교육연구단 단장)

지역재생과 문화의 중요성 (김진영,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과 명예교수, 前 강원대학교 BK21 지역재생을 위한 교육협력과 인문케어 전문가 양성 교육연구단 단장)

제4부

해외학자 세션

우크라이나 인문학의 지속가능성과 문화교육 : 하이브리드 전쟁(2014년-현재)상황을 중심으로 (박안토니나, 우크라이나 우신스키국립사범대학교 교수)

터키 참전용사 구술생애담에 나타난 대한(對韓) 형제 인식 연구 (조홍윤, 터키 이스탄불대학교 교수)

제5부

국내학자 세션

지역재생과 커뮤니티 시네마 (김이석, 동의대학교 영화학과 교수)

이주무슬림의 한국문화적응을 위한 분열분석 실행연구 (권요셉, 인하대학교 BK21 글로벌다문화교육연구단 연구교수)

프로그램(Program)

09:00-09:30	국제학술대회 등록	
Session 1	해외학자 초청강연	김수아 (강원대학교 교육인문협력학과)
09:00-09:30	코로나 시대와 코로나 이후의 철학적 실천 : 누스페어(정신영역)에서의 춤 루 메리노프(미국 뉴욕시립대학 교수, APPA회장)	
Session 2	학문후속세대 세션	이한나 (강원대학교 교육인문협력학과 BK21 교육연구단)
10:00-10:05	학문후속세대 세미나 입장 및 준비	
10:05-10:30	게임 '스피릿페어러'에 나타난 치유성 고찰	양송이 (강원대학교 교육인문협력학과)
10:30-10:55	결혼이주여성의 자조모임 인식에 관한 주관성 연구	최수안 (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학과)
10:55-11:20	중년 여성의 자존감 증진을 위한 인문치료 : 비폭력대화를 기반으로	이승욱 (강원대학교 교육인문협력학과)
11:20-11:45	영화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정원'에 나타난 성장과 치유 : 도널드 위니콧의 이론을 중심으로 토 론	조성미 (강원대학교 교육인문협력학과)
11:45-12:00	유강하 (강원대학교 BK21 지역재생을 위한 교육협력과 인문케어 전문가 양성 교육연구단 단장) 최승호 (충북연구원 사회통합연구부 수석연구위원)	
12:00-13:00	휴 식	
Session 3	개회식 및 기조강연	이한나 (강원대학교 교육인문협력학과 BK21 교육연구단)
13:00-13:20	개회사 유강하 (강원대학교 BK21 지역재생을 위한 교육협력과 인문케어 전문가 양성 교육연구단 단장) 축 사 김영순 (인하대학교 BK21 글로벌다문화교육연구단 단장) 김진영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과 명예교수, 前 강원대학교 BK21 지역재생을 위한 교육협력과 인문케어 전문가 양성 교육연구단 단장) 이민용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소장) 정성미 (한국인문치료학회 회장)	
13:20-13:40	호모내러티브, 공존하는 시민의 인문학적 실천	김영순 (인하대학교 BK21 글로벌다문화교육연구단 단장)
13:40-14:00	지역재생과 문화의 중요성	김진영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과 명예교수, 前 강원대학교 BK21 지역재생을 위한 교육협력과 인문케어 전문가 양성 교육연구단 단장)
14:00-14:10	휴 식	
Session 4	해외학자 세션	홍단비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4:10-14:40	우크라이나 인문학의 지속가능성과 문화교육 : 하이브리드 전쟁(2014-현재)상황을 중심으로	박민희 (우크라이나 우산스카 국립사범대학 교수)
14:40-15:10	타키 참전용사 구술생애담에 나타난 대韓(對韓) 형제인식 연구	조훈유 (타키 이스타불대학교 교수)
15:10-15:30	종합토론	
15:30-15:40	휴 식	
Session 5	국내학자 세션	홍단비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5:40-16:10	지역재생과 커뮤니티 시네마	김이석 (동덕대학교 영화학과 교수)
16:10-16:40	이주무슬림의 한국문화적응을 위한 분열분석 실행연구	권요셉 (인하대학교 BK21 글로벌다문화 교육연구단 연구교수)
16:40-17:10	종합토론	
17:10-17:30	폐 회 유강하 (강원대학교 BK21 지역재생을 위한 교육협력과 인문케어 전문가 양성 교육연구단 단장)	

목 차(Table of Contents)

Session 1

해외학자 초청강연

- 코로나 시대와 코로나 이후의 철학적 실천 : 누스페어(정신영역)에서의 춤 1
루 메리노프(미국 뉴욕시립대학 교수, APPA회장)

Session 2

학문후속세대 발표

- 게임 ‘스피릿페어러’에 나타난 치유성 고찰 1
양송이(강원대학교 교육인문협력학과)
- 결혼이주여성의 자조모임 인식에 관한 주관성 연구 1
최수안(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학과)
- 중년여성의 자존감 증진을 위한 인문치료 : 비폭력대화를 기반으로 1
이승옥(강원대학교 교육인문협력학과)
- 영화 ‘마담프루스트의 비밀정원’에 나타난 성장과 치유 : 도널드위니콧의 이론을 중심으로 1
조성미(강원대학교 교육인문협력학과)

Session 3

기조강연

- 호모내러티쿠스, 공존하는 시민의 인문학적 실천 1
김영순(인하대학교 BK21 글로벌다문화교육연구단 단장)
- 지역재생과 문화의 중요성 1
김진영(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과 명예교수, 前 강원대학교 교육인문협력학과 BK21 교육연구단 단장)

Session 4

해외학자 발표

- 우크라이나 인문학의 지속가능성과 문화교육 : 하이브리트전쟁(2014년~현재)상황을 중심으로 1
박 안토니나(우크라이나 우신스키국립사범대학교 교수)
- 터키 참전용사 구술생애담에 나타난 대한(對韓) 형제 인식 연구 1
조홍윤(터키 이스탄불대학교 교수)

Session 5

국내학자 발표

- 지역재생과 커뮤니티 시네마 1
김이석(동의대학교 영화학과 교수)
- 이주무슬림의 한국문화적응을 위한 분열분석 실행연구 1
권요셉(인하대학교 BK21 글로벌다문화교육연구단 연구교수)

Session 1

해외학자 초청강연

코로나 시대와 코로나 이후의 철학적 실천 :
누스페어(정신영역)에서의 춤

루 메리노프 (미국 뉴욕시립대학 교수, APPA 회장)

초청
강연

코로나 시대와 코로나 이후의 철학적 실천
: 누스페어(정신영역)에서의 춤

루 메리노프 미국 뉴욕시립대학 교수, APPA회장

국제 학술대회
강원대학교, 대한민국

코로나 시대와 코로나 이후의 철학적 실천:
누스페어(정신영역)에서의 춤

Special Lecture
2022. 11. 4.

루 메리노프 교수 Professor Lou Marinoff
뉴욕시립대학교

(The City College of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CC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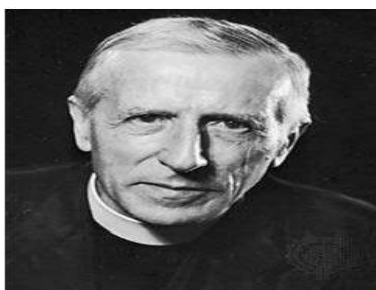


Cogito ergo sum.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Pipo ergo sum.

나는 트윗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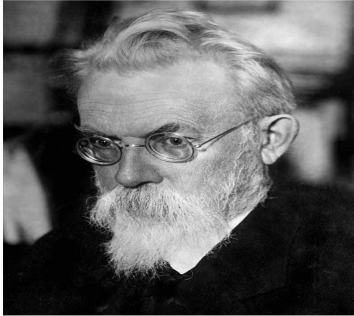
Pierre Teilhard de Chardin
(피에르 테야르 드 샤르댕)
1881 - 1955

프랑스 예수회 고생물학자,
신학자, 철학자, 교사

1922년, 저서
Cosmogenesis(우주기원과정론)에서
"noosphere 정신영역"를 처음 언급했다.

Noosphere 정신영역은
지구의 "의식적인 막" 또는 "생각의
외피"이다.

샤르댕에게 정신영역은
신학적이고 목적론적 함의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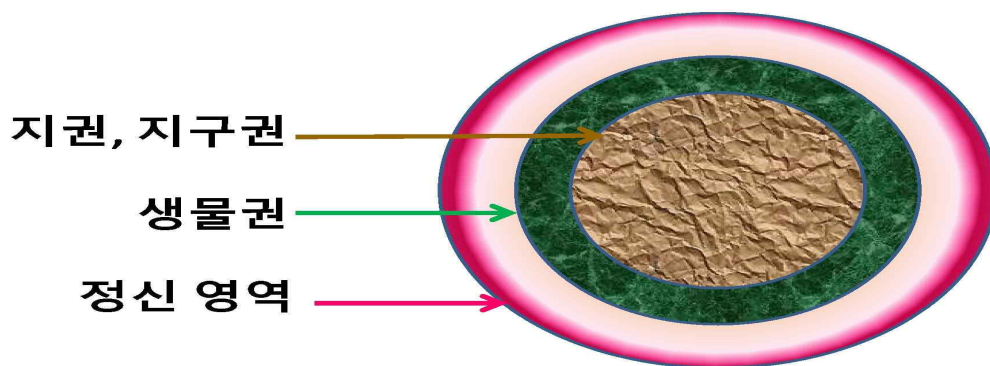


Vladimir Vernadsky
(블라디미르 베르나츠키)
1863 - 1945

러시아 과학자, 철학자

연구 분야 : 지질학, 결정학, 광물학,
지구화학, 방사선 지질학, 생물학,
생물지구화학, 철학

그는 파리에르 드 샤르댕을 만났으며
정신영역에 대한 과학적 해석을
발전시켰다.



지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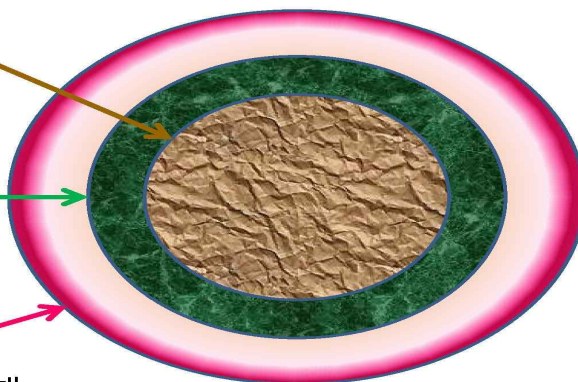
-- 물리력과
자연의 법칙에 의해
형성

생물권

-- 생명력과
자연 도태에 의해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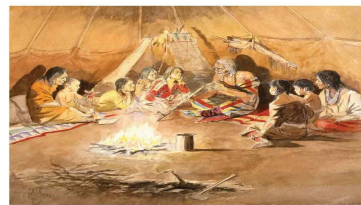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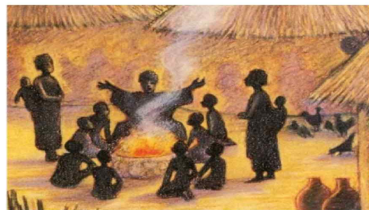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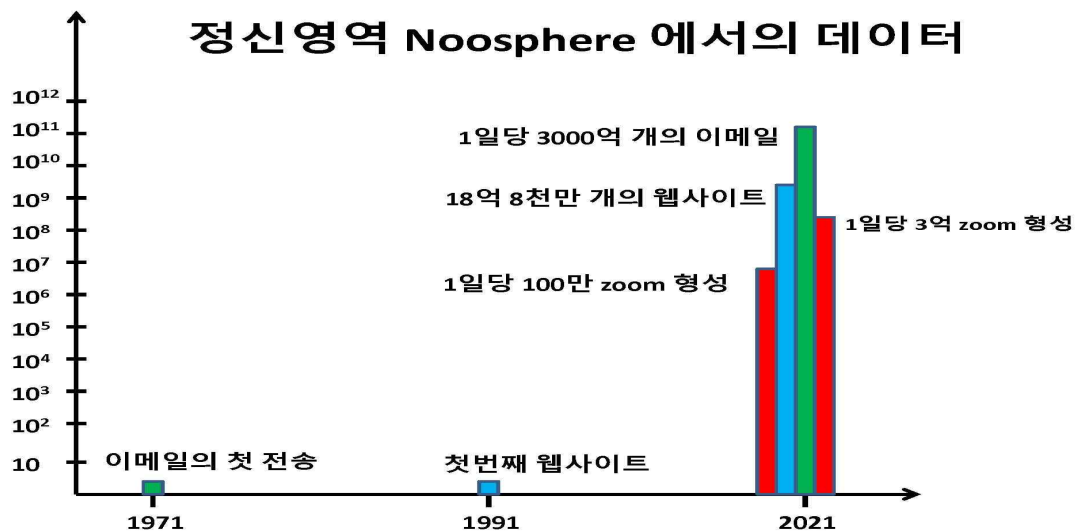
정신영역

-- 정신적 힘과
합성(종합적) 선택에 의해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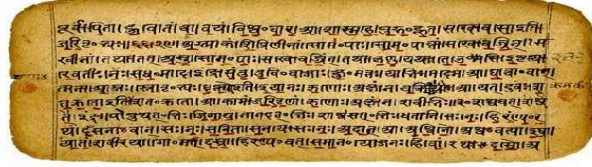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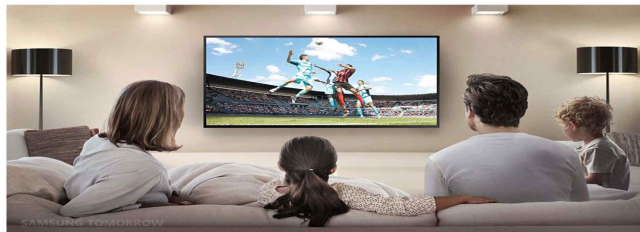
The FANG: Facebook, Amazon, Netflix, Goog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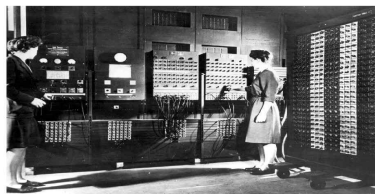
구전 전통(전승): 인류 문화 진화의 초기 형태, 기원전 200,000년경



문자/성문 전통: 인류 문화 진화의 두 번째 형태, 기원전 7,000년경



시각적 전통: 인간 문화 진화의 세 번째 모드,
주로 텔레비전을 통해, 1950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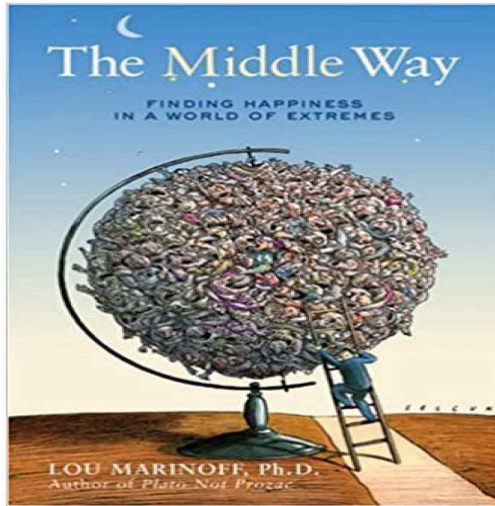
ENIAC, 19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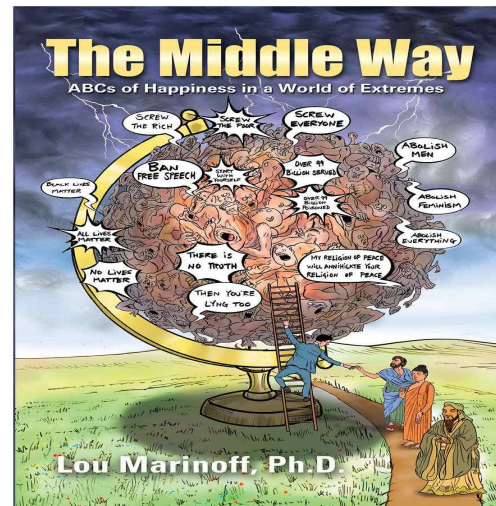
IBM PC, 1981



디지털 전통: 인간 문화 진화의 네 번째 모드, 1981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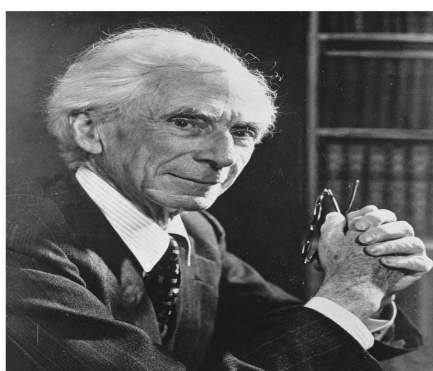
초판, 2007



두번째 판, 2020

인지기능 Cognitive Pillar 문화적 전통 Cultural Tradition	Attention span 주의집중기간	Linguistic ability 언어능력	Imaginative capacity 상상력	Cultural memory 문화적 기억
구전 10.1a Oral	Very good 매우 좋음	Very good 매우 좋음	Good 좋음	Fair 적당함
문자/성문 10.1b Written	Excellent 훌륭함	Excellent 훌륭함	Excellent 훌륭함	Excellent 훌륭함
시각적 10.1c Visual	Very poor 매우 부족	Poor 부족	Very poor 매우 부족	Very poor 매우 부족
디지털 10.1d Digital	Any of the above 상기 중 뛰어남	Any of the above 상기 중 뛰어남	Any of the above 상기 중 뛰어남	Superlative 최상의

From *The Middle Way*, chapter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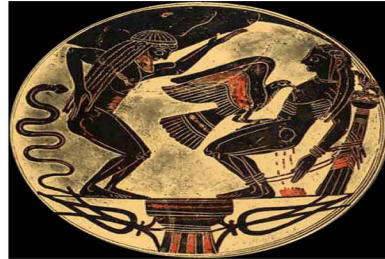
Bertrand Russell
(버트런드 러셀)
1872 – 1970

나에게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급여와 더 좋은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충분한 군대를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30년 이내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2와 2의 합은 셋이라고, 물은 더우면 얼고 추우면 끓는 것이라고, 혹은 국가의 이익에 이용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그밖의 말도 안되는 것들도 믿게 만드는 일에 착수할 것입니다. ... 공식 원칙을 열성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사람은 가르치는 것도 권력자의 위치도 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가장 높은 관리들만이 술잔을 기울이며 그것이 모두 얼마나 쓰레기인지 서로에게 속삭이곤 했고, 그리고 나서 그들은 다시 웃고 마시곤 했습니다. 이것은 일부 현대 정부 하에서 일어나는 일을 희화화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 지적 쓰레기의 개요(1943)



칼리 유가
인도 철학



프로메테우스 신화
그리스 철학



프랑켄슈타인
과학적 공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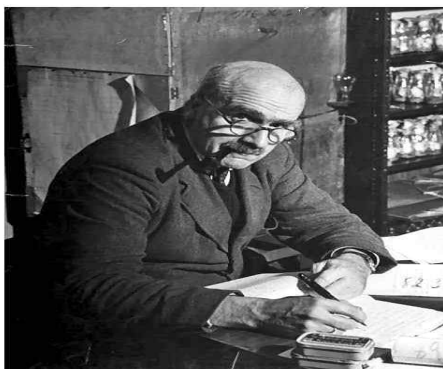


אמת
Emet: 진실

מת
Met: 죽음

원래 프랑켄슈타인은 카발라주의 설화에서 발생한 것이며
골렘이라고 불린다.

- 카발라주의 설화 : 유태인 설화
- 골렘 : 카발라 주문에 의해 움직이는 점토 인형



J.B.S. Haldane
J.B.S. 홀데인
1892 - 19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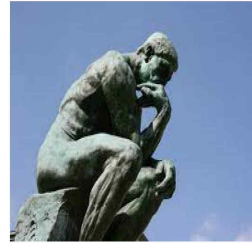
... 은하수에서 위대한 새로운 별을
바라보는 인도의 세 유럽인. 이들은 그런
일에 관심이 많은 대규모 댄스파티에 온
손님들이 분명했습니다. 이 우주 충돌
폭발의 기원에 대한 견해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선호되는 이론은 이 폭발이 두 별 또는 별과
성운의 충돌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일부 거주자의 세계에 대한
마지막 판단이었을 것이고, 아마도 그곳의
거주자 중 일부의 유도 방사능에 대한 너무
성공적인 실험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이 두 가지 가설은 동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우리가 보고 있었던 것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춤을 추어야 할 때 별을
보기 위해 나온 세상의 폭발이었습니다.

-- 다이달로스, 또는, 과학과 미래
(1923)

International Conference
at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Korea

*Philosophical Practice During
and Post-Pandemic:
Dancing in the Noosphere*

Keynote Address
November 4, 2022
Professor Lou Marino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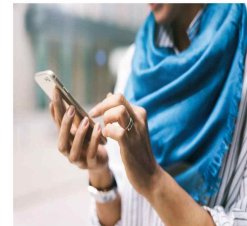


Cogito ergo sum.

I think therefore I am.

Pipo ergo sum.

I tweet therefore I 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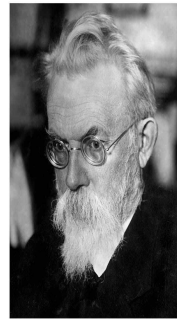
Pierre Teilhard de Chardin
1881 - 1955

French Jesuit paleontologist,
theologian, philosopher and teacher

First mentioned the "noosphere" in
his 1922 essay *Cosmogogenesis*.

The noosphere is a "conscious
membrane" or "thinking envelope"
of the earth.

For Chardin, the noosphere has
theological and teleological
implic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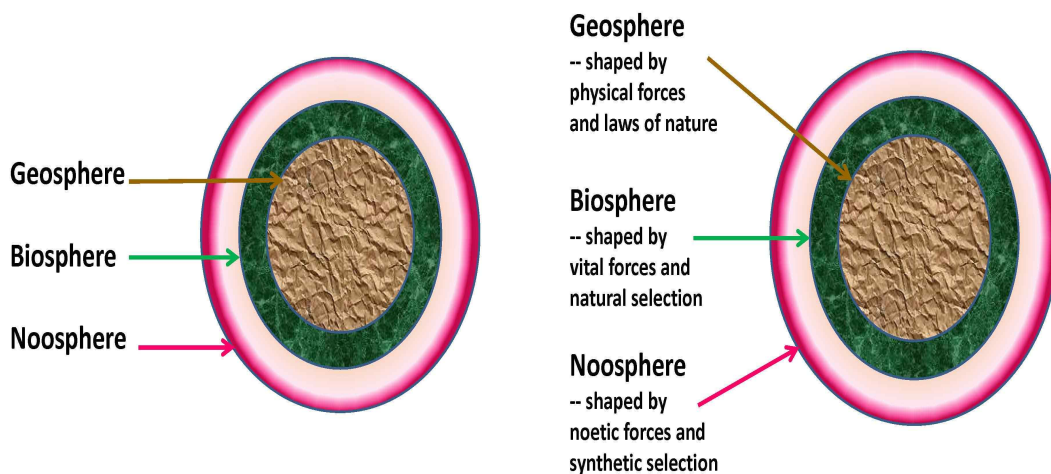


Vladimir Vernadsky
1863 - 1945

Russian scientist and philosop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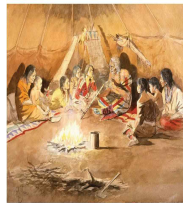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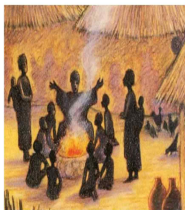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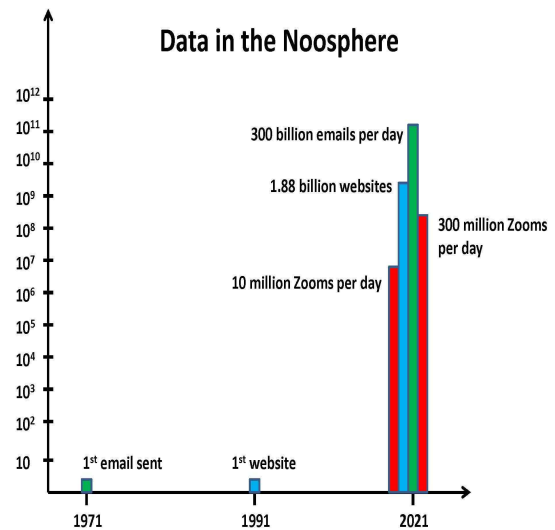
Fields of study included geology,
crystallography, mineralogy,
geochemistry, radiogeology, biology,
biogeochemistry, philosophy.

He met de Chardin in Paris, and
developed a scientific interpretation
of the noosphe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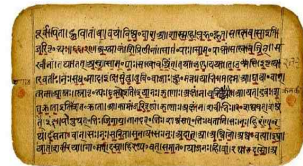




The FANG:
Facebook, Amazon, Netflix, Goog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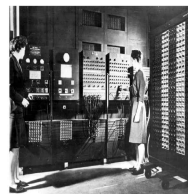
The Oral Tradition: earliest mode of human cultural evolution, circa 200,000 BCE.



The Written Tradition: second mode of human cultural evolution, circa 7,000 BCE.



The Visual Tradition: third mode of human cultural evolution, primarily via television, circa 19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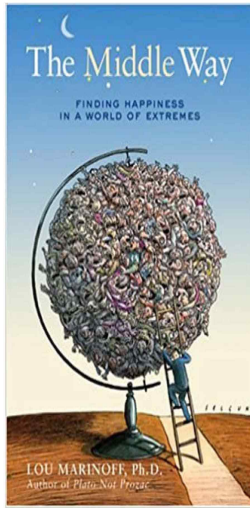
ENIAC, 19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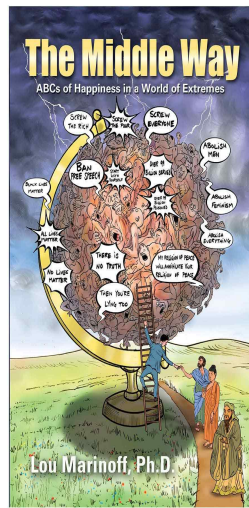
IBM PC, 1981



The Digital Tradition: fourth mode of human cultural evolution, circa 1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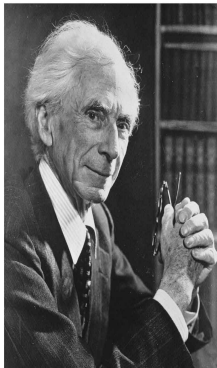
First edition, 2007



Second edition, 2020

Cognitive Pillar Cultural Tradition	Attention span	Linguistic ability	Imaginative capacity	Cultural memory
10.1a Oral	Very good	Very good	Good	Fair
10.1b Written	Excellent	Excellent	Excellent	Excellent
10.1c Visual	Very poor	Poor	Very poor	Very poor
10.1d Digital	Any of the above	Any of the above	Any of the above	Superlat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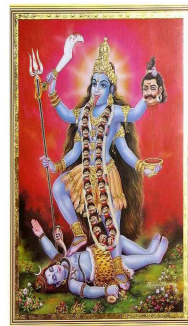
From *The Middle Way*, chapter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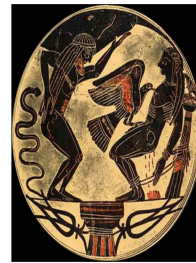
Bertrand Russell
1872 - 1970

Give me an adequate army, with power to provide it with more pay and better food than falls to the lot of the average man, and I will undertake, within thirty years, to make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 believe that two and two are three, that water freezes when it gets hot and boils when it gets cold, or any other nonsense that might seem to serve the interest of the State ... No person who did not enthusiastically accept the official doctrine would be allowed to teach or to have any position of power. Only the very highest officials, in their cups, would whisper to each other what rubbish it all is; then they would laugh and drink again. This is hardly a caricature of what happens under some modern governments.

-- *An Outline of Intellectual Rubbish* (1943)



Kali-Yuga
Indian Philosophy



Myth of Prometheus
Greek Philosoph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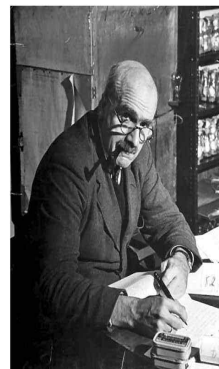
Frankenstein
Scientific Horror



אמת
Emet: Truth

מת
Met: Dead

The original Frankenstein arises in a Kabbalistic lore, where it is called a Golem.



J.B.S. Haldane
1892 - 1964

... three Europeans in India looking at a great new star in the milky way. These were apparently all of the guests at a large dance who were interested in such matters. Amongst those who were at all competent to form views as to the origin of this cosmoclastic explosion, the most popular theory attributed it to a collision between two stars, or a star and a nebula. There seem, however, to be at least two possible alternatives to this hypothesis. Perhaps it was the last judgement of some inhabited world, perhaps a too successful experiment in induced radioactivity on the part of some of the dwellers there. And perhaps these two hypotheses are identical, and what we were watching that evening was the detonation of a world on which too many men came out to look at the stars when they should have been dancing.

-- *Daedalus, or, Science and the Future* (1923)

Session 2

학문후속세대 발표

발표 1. 게임 '스피릿페어러'에 나타난 치유성 고찰

양송이(강원대학교 교육인문협력학과)

발표 2. 결혼이주여성의 자조모임 인식에 관한 주관성 연구

최수안(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학과)

발표 3. 중년여성의 자존감 증진을 위한 인문치료: 비폭력대화를 기반으로

이승옥(강원대학교 교육인문협력학과)

발표 4. 영화 '마담프루스트의 비밀정원'에 나타난 성장과 치유
: 도널드위니캣의 이론을 중심으로

조성미(강원대학교 교육인문협력학과)

1. 서론

2020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COVID-19 팬데믹이라는 고통의 현장에서 투쟁을 지속해왔다. 갑작스레 닥쳐온 팬데믹은 인간의 관계성을 파괴하고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2022년 10월 24일 기준 전 세계에서 약 6억 3천 명에 달하는 인구가 COVID-19에 감염되었으며 65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사망하였다.¹⁾ 2022년 5월 보도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는 비공식적 사망자가 1,500만 명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음이 밝혀지기도 하였다.²⁾ 장기화된 범유행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 개개인은 공동체의 삶에서 유리되어야만 했으며, 인간은 잠재적 전염성이 있는 감염원으로서 물화되었다. 전 세계 모든 이들이 집단의 일상적 삶에서 격리되었고, 사랑하는 이를 손쓸 수 없이 떠나보내야만 했다. 팬데믹은 인간의 죽음을 단순한 수치로 취급함과 더불어 공동체적 제의로서 이루어지던 작별과 애도의 과정을 인스턴트화했다. 예기치 못한 단절과 이별로 인한 심적 고통을 다스리고 수용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팬데믹은 인간의 관계성과 인간애를 훼손시켰고, 나아가 인간이 전체성을 잃어버린 파편화된 삶을 살아가게끔 초래했다.

따라서 인간은 손상된 관계성을 비롯하여 미해결된 채로 남은 작별과 애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치유의 힘이 필요했다. 이처럼 고통을 치유하고 삶의 현장으로 재복귀할 수 있는 희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치유적 이야기가 요구되는 실정에서, 시의적절하게 나타난 한 치유 콘텐츠가 있다. 바로 싱글-플레이어 디지털 게임인 ‘스피릿페어러(Spiritfarer)’이다. 지금껏 개발된 상당수의 디지털 게임이 폭력성·중독성을 띠고 있으며 이러한 역기능적 측면이 줄곧 강조되어왔기에 디지털 게임과 치유는 동떨어진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해당 게임은 기존 디지털 게임의 특성으로 일컬어지던 폭력성·중독성에서 벗어나, 신화적 상징을 활용하여 인간의 삶의 문제인 작별과 애도를 치유적으로 표현해낸 스토리텔링으로 많은 이들에게 정서적 치유를 일으켰다. 2020년 COVID-19 상황 속에 출시된 ‘스피릿페어러’는 팬데믹으로 인한 현실의 고통을 소산시켰으며, 훼손된 인간의 관계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희망을 일으켰다.

이 글은 디지털 게임 ‘스피릿페어러’가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완료되지 못했던 진정한 작별의 간접경험을 제공하며, 애도가 이루어지게 돕고 치유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타 디지털 게임과 구별되는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스피릿페어러’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신화적 상징성이 갖는 치유성을 살펴보고, 타 디지털 게임과 구별되어 드러나는 치유적 의미를 유저들의 평가를 포함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1) <https://www.worldometers.info/coronavirus/>

2) <https://www.bbc.com/news/health-61327778>

2. 게임 ‘스피릿페어러’의 신화적 상징성

‘스피릿페어러’는 2014년에 설립되어 캐나다 몬트리올에 위치한 비디오 게임 회사 ‘Thunder Lotus Games’가 개발·유통을 맡은 비디오 게임이다. ‘스피릿페어러’는 어드벤처, 건설 경영 시뮬레이션 비디오 게임으로 2021년 12월 13일 기준 100만 개를 판매하였다.³⁾ 더불어 2022년 10월 23일 기준 주요 판매 플랫폼인 Steam에서 전체 평가 20,691개 중 95%의 사용자가 긍정적 평가를 매겨 ‘압도적으로 긍정적 (Overwhelmingly Positive)’ 종합 평가를 받았다.⁴⁾ ‘스피릿페어러’는 COVID-19 상황 속에 출시되어 사후세계를 그려낸 아름다운 연출, 만남과 작별을 다루는 서정적인 스토리텔링으로 찬사받았다. ‘스피릿페어러’의 스토리는 대략 다음과 같다.

주인공 ‘스텔라’는 영혼지기 ‘카론(Charon)’에게서 신묘한 힘을 가진 빛의 구슬 ‘에버라이트’를 넘겨받고 새로운 영혼지기가 된다. 스텔라는 영혼지기로서 고양이 ‘다포딜’과 함께 배를 몰아 바다를 여행하면서 다양한 영혼들을 만나고, 그들과 따뜻한 추억을 쌓는다. 그리고 떠날 준비가 된 영혼들을 ‘에버도어’로 이끌어 영혼들이 심적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돕는다.

‘카론’이라는 이름에서 파악할 수 있듯 ‘스피릿페어러’는 그리스 신화에서 고안된 세계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인터뷰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Nicolas Guérin은 초기의 개발 아이디어를 신화적 원천, 즉 그리스 신화의 뱃사공 카론의 인도로 죽은 사람의 영혼이 스틱스 강을 건너는 것을 중심으로 삼았다고 답했다.⁵⁾ 카론의 등장 외에도 ‘스피릿페어러’에서 나타나는 상당수의 개체가 신화적 상징성을 띠고 있다. ‘스피릿페어러’에서 나타나는 신화적 상징성에 대한 분석을 논하기 전에 인간에게 상징이란 무엇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징체계는 마음의 바탕이고 언어와 이성에 선행하는 삶의 통합 원리이다.⁶⁾ 이미지, 상징, 신화는 마음이 아무렇게나 만들어낸 것이 아니며 존재의 가장 내밀한 양상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⁷⁾ 인간은 상징을 만드는 경향이 있어 무의식적으로 사물을 상징으로 변용시킴으로써 사물에 정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인간을 둘러싼 전 우주가 “하나의 잠재적인 상징의 덩어리”이다.⁸⁾ 고대인들은 세계의 “중심”으로 간주되는 신성한 나무, 기둥 등을 통해 우주 삼계를 나누었고 우주 속의 자신, 소우주를 인식하고 우주를 이해하며 신성함 속에서 치유를 느꼈다.⁹⁾ 고대인들이 사라진 현재에도 상징은 극히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인간의 삶 속에서 본래의 신성한 힘을

3) <https://thunderlotusgames.com/spiritfarer-farewell-edition-press/>

4) https://store.steampowered.com/app/972660/Spiritfarer_Farewell_Edition/

5) “The initial idea centred around a mythological source, in this case the Greek myth of Charon ferrying souls of the dead across the River Styx.”

<https://www.gamespew.com/2021/09/spiritfarer-interview/>

6) 진 쿠퍼, 이윤기 옮김, 『그림으로 보는 세계 문화 상징 사전』, 까치, 2007, 8-9쪽.

7) 미르치아 엘리아데, 이재실 옮김, 『이미지와 상징』, 까치, 2018, 15쪽.

8) 카를 구스타프 융, 이윤기 옮김, 『인간과 상징』, 열린책들, 2020, 357쪽.

9) 미르치아 엘리아데, 위의 책, 31-54쪽.

유지하고 있으며 인간의 마음 일부분을 이루고 있다. 지하와 지상, 물과 불, 어머니 등에 대하여 갖는 우리의 내밀한 정서를 생각해보면 상징에 대한 감각을 일부나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 과학과 인간 이성의 발전에 따라 이러한 자연적 상징은 미개하고 하찮은 것으로 곧잘 치부되었고, 인간은 자기 삶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서 유리되고 말았다. 융에 의하면 자연, 즉 상징 세계와의 “무의식적 동일성(unconscious identity)”을 상실하게 된 셈이다.¹⁰⁾ 고대인들이 상징 세계에 자연스레 동일화되어 삶과 우주(세계)를 이해하고 경험했던 신성한 치유를 잃어버리게 된 현대인들은 여러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되었다. 삶은 어찌 살아야 하며, 죽음은 어찌 받아들이는 것인가 하는 등의 근본적 문제 앞에서 인간은 방황하고 좌절하였다. 좌절한 인간에게 상징체계의 임시적 복원을 성공시키는 작업은 상징의 이미지를 담은 이야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인간은 옛 신화와 민담, 꿈 이야기의 해석 등의 이야기를 통해 삶을 이해하고 마음을 치유해왔다. 미처 인식하지 못한 채 마음속에 침몰된 상징 세계의 복원을 일으키는 옛이야기들은 인간을 매료시키고 끊임없이 ‘다시 이야기하게’ 만들었다. 오늘날까지 수많은 옛이야기가 이야기되고 또 새롭게 다시 이야기되어온 것은 단순한 오락 행위가 아니라 상징 세계로의 근접과 복원, 나아가 삶과 세계의 이해를 위한 인간의 무의식적 노력이라 할 수 있겠다.

이 글의 글감으로 삼은 디지털 게임 ‘스피릿페어러’ 또한 옛 신화를 바탕으로 하여 인간의 삶의 문제를 다양한 상징을 통해 풀이하고 있다. 그 상징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인공인 스텔라는 따뜻하고 헌신적인 성격으로 늘 자신보다 타인을 우선시하였다. 항해 중에 만나는 영혼들은 스텔라가 이승에서 간호사일 적에 실제로 간호를 맡아 임종을 지켰던 이들이다. 사실 스텔라는 병을 앓으며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으로, 다른 영혼들을 모두 ‘에버도어’로 보낸 후에 자신도 대퍼딜과 함께 ‘에버도어’를 통해 죽음을 받아들이게 된다. ‘스피릿페어러’의 세계는 스텔라가 살았던 생애의 회고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간호사로서 가까운 이들을 계속 떠나보내야만 했던 스텔라가 진정한 작별과 애도를 이룰 수 있게 돕는 공간이기도 하다. 스텔라(Stella)는 라틴어로 ‘별’을 뜻하는데, 별은 신의 존재, 신의 사자인 천사, 영원한 것, 어둠 속에 빛나는 희망을 의미한다.¹¹⁾ 또한 별은 신성한 길잡이로서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 조상들의 모닥불로, 그 외 문화에선 천국 혹은 신성한 문으로 여겨졌다.¹²⁾ ‘스피릿페어러’에서 스텔라는 영혼들을 인도하는 희망이자 빛의 길잡이이다.

고양이 다포딜은 눈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하여 태양과 달의 변용력을 상징한다.¹³⁾ 또한 야행성이기에 밤에 주로 활동하는 생물로서 달과 어둠, 지하 세계를 상징한다.¹⁴⁾ 고양이는 이집트의 여신 바스테트의 성스러운 동물로 나타나며 어머니와 아

10) 카를 구스타프 융, 위의 책, 137-141쪽

11) 진 쿠퍼, 위의 책, 330쪽.

12) 미란다 브루스 미트포트, 필립 월킨스, 주민아 옮김, 『기호와 상징』, 21세기북스, 2010, 22쪽.

13) 진 쿠퍼, 위의 책, 54쪽.

이들, 가정을 보호하는 역할이었다.¹⁵⁾ 다포딜은 이승과 대비되는 지하 세계의 공간인 ‘스피릿페어러’ 세계에서 스텔라와 함께 영혼을 보호하고 인도한다.

‘에버라이트’는 빛나는 구(球) 형태로 신묘한 힘을 가진 물체이다. 구는 둥근 형태 때문에 태양과 달을 상징하며 완전성을 의미하고, “유한 세계의 가능성의 총체 또는 변용의 가능성을 포함하는 원초의 형태, 영원, 영혼을 상징한다.”¹⁶⁾ ‘에버라이트’는 태양과 생명력을 상징하고, 구의 빛은 신의 현현을 의미하기도 한다.¹⁷⁾ 대부분 종교는 원을 천구(天球)와 동일시하며 원은 일반적으로 신을 상징한다.¹⁸⁾ ‘스피릿페어러’에서 ‘에버라이트’의 도움을 받는 것은 신성한 생명력의 창조적 도움을 받는 것이다.

‘스피릿페어러’에서 등장하는 카론과 하데스는 그리스 신화의 신으로, 죽음을 동시에 상징하고 있다. 카론은 그리스 신화에서 죽음의 강을 건너는 뱃사공으로서 죽은 자들의 영혼을 인도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해당 게임에서는 스텔라에게 ‘에버라이트’를 건네며 뱃사공의 일을 위임한 후 ‘에버도어’로 떠난다. 카론의 죽음은 삶에는 항상 죽음이 존재함을 간접적으로 일러 준다. 하데스는 그리스 신화의 저승을 다스리는 신으로, 플루톤이라 불리기도 하며 신화 속에서 밤의 동물인 올빼미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스피릿페어러’에서 하데스는 영혼이 ‘에버도어’로 떠난 후, 거대한 부엉이의 형태로 나타나 해당 영혼이 가진 생전의 기억을 스텔라에게 보여준다. 올빼미와 마찬가지로 밤의 동물인 부엉이는 죽음을 상징하며, 부엉이는 어둠 속에서도 시야가 온전하기에 이집트와 인도에서는 무지의 어둠을 밝히는 지혜의 상징이기도 하였다.¹⁹⁾ 그리스 신화에서 죽은 자들의 영혼은 달의 신이면서 지옥의 신인 하데스가 사는 천체를 지나가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²⁰⁾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영혼들이 향하는 ‘에버도어’는 붉은 물과 흰 나무들이 가득한 장소에 다리와 둥근 형태의 입구(통로)를 동시에 가진 형태로서 나타난다. 물의 붉은색은 “불, 피와 연관된 색으로 생명, 사랑, 온기, 정열, 다산성을 상징하며, 연금술에선 태양빛과 연관지어 새로운 출발의 신호로 풀이된다.” 더불어 붉은색은 자궁, 불길 속에서 죽지만 부활하는 불사조와 관련되어 풍요, 부활을 상징한다.²¹⁾ 나무의 흰색은 “빛, 순수, 온전성의 색이며, 시작과 끝, 또는 그 통일을 의미한다. 종종 탄생과 결혼, 입문식과 장례식에 사용된다. 생명의 색이며 혼령과 유령의 색깔을 의미한다.”²²⁾ 다리는 천상과 지상 같은 세속과 신성한 영역의 두 가지 영역을 잇는 것이면서, 통과 의례에서 차원 사이의 이행과 진실에 이르는 길을 의미하기도 한다.²³⁾ 문은 외부 세계와 성스러운 내부 세계가 서로 통하는 출입구이다.²⁴⁾ 또한 문이나 통로는 희망과

14) 미란다 브루스 미트포트, 필립 윌킨스, 위의 책, 56-57쪽.

15) 최연숙, 『민담·상징·무의식』, 영남대학교출판부, 2007, 251쪽.

16) 진 쿠퍼, 위의 책, 25쪽, 324쪽.

17) 릭 브노와, 박지구 옮김, 『기호·상징·신화』, 경북대학교출판부, 2006, 58쪽.

18) 미란다 브루스 미트포트, 필립 윌킨스, 위의 책, 284쪽.

19) 최연숙, 위의 책, 267쪽.

20) 릭 브노와, 위의 책, 64쪽.

21) 미란다 브루스 미트포트, 필립 윌킨스, 위의 책, 280쪽.

22) 최연숙, 위의 책, 268쪽, 296쪽.

23) 진 쿠퍼, 위의 책, 43-44쪽.

기회를 상징한다.²⁵⁾ 즉 영혼이 ‘에버도어’를 통과하는 것은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행하는 과정,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의미하며 새로운 생명의 시작과 희망을 뜻하는 것이다.

‘스피릿페어러’의 주된 배경인 바다는 무한한 생명력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퇴행과 미분화 상태로의 회귀라는 죽음의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 “물은 근원이자 원천으로서 잠재성의 보편적 총체를 상징하며, 모든 형태에 선행하며 모든 창조를 받쳐준다. 물과의 접촉은 항상 재생을 함축한다.”²⁶⁾ 바다는 모든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생명의 원천이며, “대양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건너야 하는 인생의 바다를 의미한다.”²⁷⁾ ‘스피릿페어러’에서 바다가 주된 배경인 까닭은 바다가 모든 생명의 근원이면서 모든 가능성의 총체이고 재생의 힘을 품은 대모(大母)이기 때문이다. 또한 물은 무의식을 의미하면서 파괴적인 죽음의 이미지를 가지기도 하는데, 이는 영혼들이 겪은 시련이나 소산되지 못한 심적 고통이 바다에 나타나는 것으로 형상화된다. 가령 영혼 ‘서머’는 생전 유방암을 앓아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이때 경험한 암에 대한 두려움이 게임 내에서 바닷속의 용으로 나타난다.

스텔라가 모는 배(페리)는 “태양과 달을 태우고 바다를 횡단하는 것으로서 다산, 바다의 생명, 생산력의 상징이며, 모험, 탐험, 인생 항로를 출발함을 나타낸다. 또한 죽음의 바다를 건너는 것, 다른 세계로의 이행을 의미한다. 배의 돛대는 우주축을 나타내며 생명의 나무와 같은”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²⁸⁾ 바다를 향해하는 배는 인간이 우주 한가운데에서 자신의 운명을 찾아 나가는 것을 상징한다.²⁹⁾ 즉 배는 바다에 위치한 우주의 중심으로서 영혼들을 보호하는 의례의 장소이며 인간이 인생길을 헤쳐 나가는 여정을 상징한다.

또한 배는 스텔라의 성장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영혼들을 만나 바다를 모험하는 과정에서 배의 개조는 필수적으로 점차 진행된다. 배의 개조를 위하여 필요한 다양한 재료들을 얻기 위해 스텔라는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고, 영혼들과 만남과 작별을 반복하면서 배를 성장시킨다. 배의 개조 재료 중 하나인 영혼꽃은 영혼이 ‘에버도어’로 떠난 후에 남기는 것으로, 영혼꽃을 사용해야 배를 개조할 수 있다는 것은 만남과 작별에 대한 치유적 함의를 담고 있다. 어떤 만남과 작별이든 그것을 통해 인간은 삶의 깨달음과 같은 무언가를 얻고 질적으로 성장하여 앞으로 나아간다는 점이다. 피할 수 없는 삶의 시련을 이겨낼 때 인간은 비로소 성장하고 온전해진다. 배의 성장은 스텔라의 성장과 궤를 같이하고 있으며, 스텔라의 삶을 함축하고 있다.

영혼과의 상호작용은 크게 네 가지로, 포옹과 음식 제공, 집 건설, 의뢰가 있다. 영혼들은 포옹, 식사, 집 건설 등을 통해 기분이 좋아진다. 신체접촉인 포옹(안아주기)은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해주는 인간의 원초적 행위로서 어머니가 아이를 안아주는 것과

24) 데이비드 폰테너, 공민희 옮김, 『상징의 모든 것』,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1, 156쪽.

25) 진 쿠퍼, 위의 책, 106쪽.

26) 미르치아 엘리아데, 위의 책, 165-167쪽.

27) 진 쿠퍼, 위의 책, 253-254쪽.

28) 진 쿠퍼, 위의 책, 317-318쪽.

29) 데이비드 폰테너, 위의 책, 156쪽.

같다. 영혼들은 각자 선호하는 음식 취향이 있는데, 스텔라는 그들의 기호에 맞춘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제공한다. 조리 과정에서 사용되는 불(화덕)은 평화 혹은 생명력과 활력의 본질을 의미하며, 음식은 생명 유지의 힘이자 신체적·정신적 에너지의 기둥이 된다.³⁰⁾ 가정에서 사용하는 불은 여성적이고 대지적(大地的) 힘을 가지고 있고 불을 이용하여 조리해낸 음식은 모성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영혼들은 자신만의 안식처, 집을 원하며 스텔라는 그들의 집을 건설해준다. 집은 세계의 중심이자 보호의 상징이다.³¹⁾ 집은 중심축의 변형(나무) 형태로 만든 건축물이기에 우주의 중심이면서 상승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³²⁾ 집은 “거주인에게 세계의 중심이며 평화의 장소, 깊은 사색의 장소이고 유년기, 가정의 아궁이, 어머니의 품과 일체가 되는 안전한 장소이며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곳”이다.³³⁾ 집은 외부 세상과 분리된 자궁과도 같은 안전한 공간을 상징한다.³⁴⁾ 영혼들을 위한 집을 건설하는 것은 그들이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평온한 보호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영혼들은 각자 미처 이루지 못한 소망이나 소산되지 못한 감정이 있으며 스텔라는 그들의 소망을 이루어 주려 노력한다. 영혼들은 스텔라와 소통하고 미해결된 마음의 문제를 풀어내면서 죽음을 받아들이기 준비를 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스텔라가 영혼들과 나누는 상호작용은 모성적인 치유력을 가지고 있으며 생명의 재생과 보호,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한 영혼이 처음으로 배에 오르거나 ‘에버도어’로 떠나게 될 때, 다른 영혼들이 다 같이 나와서 영혼을 맞이하거나 작별한다. 이는 인간의 탄생과 죽음이 개인의 일이 아닌 공동체의 주요한 일임을 의미하며, 영혼지기의 일, 즉 영혼을 인도하는 행위가 제의적인 것임을 암시하기도 한다. 한 인간의 영혼을 만나고 소통하고 작별하는, 이 반복되는 공동체의 일이 제의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영혼들은 죽음을 받아들이고 떠나면서 영혼꽃을 남긴다. 이 영혼꽃은 스텔라가 모는 배의 증축 재료로, 이는 죽음에 대한 애도와 진정한 작별은 인간이 정지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때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꽃은 영혼, 혹은 영혼의 그릇이며 그 모양이 수레바퀴와 연관된다.³⁵⁾ 꽃이 피어나는 것은 모든 발현체의 성장과 개화를 나타낸다.³⁶⁾ 식물은 풍요, 비옥함, 생명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 이어지는 영원한 순환을 의미하면서 영적 완성과 평화를 상징한다.³⁷⁾ 피어나는 영혼꽃은 영혼들이 에버도어로 떠나는 것이 완전한 이별과 끝이 아닌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자 순환이며, 영혼들이 영적 완성과 치유를 이루었음을 의미한다.

영혼이 떠난 후 하늘에 별자리가 떠오르는데, 별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영속성을

30) 진 쿠퍼, 위의 책, 134-135쪽.

31) 진 쿠퍼, 위의 책, 172쪽.

32) 미르치아 엘리아데, 위의 책, 48-65쪽.

33) 릭 브노와, 위의 책, 84쪽.

34) 미란다 브루스 미트포트, 필립 윌킨스, 위의 책, 238쪽.

35) 진 쿠퍼, 위의 책, 140쪽.

36) 릭 브노와, 위의 책, 69쪽.

37) 미란다 브루스 미트포트, 필립 윌킨스, 위의 책, 82쪽.

가지고 있으며 길잡이의 의미를 띠기도 한다. 이는 타인의 만남과 죽음은 늘 우리 삶에 아름답고 신성한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혼들이 동물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영혼의 가장 원초로의 회귀, 가장 순수하고 영적인 상태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동물은 “인간이 영적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본능적이고 감정적인 욕구를 나타낸다.” 동물적 본성은 인간 속에 있어서 “어떤 동물도 사람과 닮지 않은 것은 없다.” 동물과의 우정, 의사소통 능력은 낙원 상태를 회복하거나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상징한다.³⁸⁾

‘릴리’는 스텔라의 여동생으로, 수많은 빛나는 나비가 뭉쳐진 형태로 등장하며 나비는 영혼, 재생, 부활을 상징한다.³⁹⁾ 애벌레에서 번데기를 거쳐 나비가 되는 변태 과정이 부활에 도달하는 영혼의 여정을 의미하는 것이다.⁴⁰⁾ 릴리는 실제 이승에서 임종을 앞둔 스텔라의 곁을 지켜왔으며, 모든 영혼을 떠나보낸 스텔라가 홀로 ‘에버도어’로 향할 때 곁을 지키며 그녀의 영혼을 인도한다. 스텔라도 다른 영혼들과 마찬가지로 공동체의 ‘제의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인간’이 그 뜻풀이와 같이,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서만 의미 있는 존재임을 상징한다.

이처럼 ‘스피릿페어러’의 세계는 전체적으로 생명력, 영혼의 재생, 부활, 시작, 모성(母性)을 뜻하는 상징들로 이루어져 있다. ‘스피릿페어러’는 작별과 애도가 영혼의 소실이나 관계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시작과 재생임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작별과 애도를 자연스러운 삶의 한 과정이자 인간의 삶의 한 부분으로서 받아들이는 법을 제시하고 있다.

3. 게임 ‘스피릿페어러’의 치유적 의미

‘스피릿페어러’가 가진 치유적 특징은 치유적 상징·서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디지털 게임의 형식으로서 ‘스피릿페어러’가 가지는 치유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플레이어는 스텔라를 직접 조작하면서 배를 몰아 여행을 떠나고 직접 영혼들을 만나서 그들과 상호작용을 이루게 된다. 이를 통해 스토리텔링 중 한 방안인 게임만이 가지는 장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플레이어가 조작하는 대로 게임이 진행되기에 플레이어는 조작 캐릭터(주인공)와 쉽게 동일시된다는 점이다. 플레이어가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으면 게임도 진행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플레이어와 게임 속 서사 간의 심리적 거리는 가까울 수밖에 없고 경험하는 몰입감 또한 극대화된다. 책이나 영상물 등의 타 매체의 경우 청자가 매체 바깥에서 이야기를 비교적 간접적으로 수용하게 되지만, 필연적으로 주인공과 동화될 수밖에 없는 디지털 게임은 플레이어가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치유적 스토리가 동반된 영혼들과의 상호작용(대화, 포옹, 물건 주고받기)은 플레이어가 직접 영혼들과 관계를 맺

38) 진 쿠퍼, 위의 책, 16쪽.

39) 진 쿠퍼, 위의 책, 48쪽.

40) 데이비드 폰테너, 위의 책, 84쪽.

는 듯한 몰입감을 주고 치유를 제공한다.

더불어 디지털 게임은 인간이 쉬이 설명할 수 없는 내밀한 상징적 이미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표현하고 정서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진다. 종합예술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게임은 그래픽, 배경 음악, 이야기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생동감 있게 구성되므로 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치유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스피릿페어러’는 경쟁과 전투 등의 폭력성이 나타나지 않으며 여타 게임에 존재하는 ‘실패’의 개념이 없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Nicolas Guérin은 일반적인 게임들에서 ‘죽음’을 다루는 오용된 방식을 언급하며, 사람들이 게임 플레이 중 행하는 수많은 ‘살인’이 잔인하고 끔찍한 것이라 답했다.⁴¹⁾ 때문에 ‘스피릿페어러’는 전투나 실패의 상태가 존재하지 않으며, 타 게임들처럼 생명을 팔시하지 않는다. 플레이어가 농사를 짓다가 물 주는 것을 잊더라도 식물은 죽거나 시들지 않으며, 단지 성장을 잠시 멈출 뿐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스피릿페어러’가 신화를 가공한 치유적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디지털 게임이라는 점이다. 상업성과 대중성을 챙기기 위해 놀이의 측면만을 강조한 타 디지털 게임들과 달리, ‘스피릿페어러’는 게임 스토리텔링의 치유성에 주목하였다. 신화를 스토리텔링에 활용한 타 디지털 게임의 사례는 수없이 많으나, 신화의 치유적 면모가 드러나지 않으며 대개 폭력성과 중독성을 강하게 띠고 있다. ‘스피릿페어러’는 그간 주목받았던 디지털 게임의 역기능적 측면인 폭력성과 중독성이 아니라 치유성을 가진 디지털 게임으로서 의의가 있다.

실제로 ‘스피릿페어러’는 소중한 사람을 잃은 많은 이들에게 작별과 애도의 방법을 전하고 치유를 제공하였다. Guérin의 인터뷰에 따르면 해당 게임이 실제 자신의 삶과 연결되어있다고 느낀 사람들의 수가 매우 많았으며, 그들이 게임을 통해 불안감을 해소하고 삶의 의지를 얻었다고 전했음을 밝혔다. 그들은 ‘스피릿페어러’를 통해 다시 삶의 현장으로 복귀할 힘을 얻었으며, 간호사와 어르신들을 위한 도우미 일을 다시 시작하고자 마음먹게 되었다고 전했다.⁴²⁾ ‘스피릿페어러’는 전 세계를 강타한 팬데믹으로 인한 심적 고통을 겪는 세계 각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치유를 제공해

41) To be honest, I'm convinced that the intention is to tackle subjects that concern everyone and everybody. Everyone is either questioning or concerned about death, and death is really interesting because it's a concept that is misused in the video games industry. You have to kill things to go forward, to beat your challenge. (...) And it really struck me, the amount of people we kill in a game is completely unbelievable, and killing is terrible, it's horrifying, it isn't a thing we should do at all.

<https://www.pockettactics.com/spiritfarer/interview>

42) The number of reactions we had was surprising. But what baffled me the most, were people who actually felt like the game was directly linked to them. There were very high numbers of players who described parts of their life that were so extremely similar to what they found in Spiritfarer. The number of similarities were intense. (...) Many of them wrote saying, "thank you, the game helped me work through my anxiety, and now I want to be back at it, I want to be a nurse again, I want to be an elderly aid again." So it's cool, I wouldn't say that Spiritfarer was meant for this, but when you create a game that wants to have a purpose beyond pure entertainment, it's quite comforting to see that type of reaction. <https://www.pockettactics.com/spiritfarer/interview>

주었다. 실제로 '스피릿페어러'의 주요 판매 플랫폼인 Steam 고객 평가에서 해당 게임을 통해 치유를 경험한 이들의 후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고객 평가는 한국어와 영어를 비롯한 29개의 다양한 언어로 이루어지고 있고, 2022년 10월 23일 기준 20,691개 중 한국인이 624개의 평가를 남겼다. 아래는 그 평가 중 일부를 옮기고 분석한 내용이다.⁴³⁾

① But the heart of Spiritfarer are its story and characters and...my eyes were very wet a few times. Without spoiling anything...no matter how fantastical it looks on the outside, on the inside its an incredibly human story that most of us can relate to. Its about life and death, about family and friendship and ultimately about letting go. Your job is to find these spirits, care for them and then eventually let them go. And its hard to let them go because each of them is expertly written and some of them will probably remind you of someone you know or knew..or loved. Its a beautiful story worthy of praise.

스피릿페어러의 핵심은 이야기와 캐릭터들, 그리고... 나는 몇 번 많이 울었다. 스포일러 없이 말하자면... 스피릿페어러는 겉으로는 환상적으로 보이지만, 그 속의 이야기는 우리 대부분이 공감할 수 있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인간적인 이야기이다. 삶과 죽음, 가족과 우정, 그리고 궁극적으로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일에 관한 이야기이다. 플레이어의 일은 영혼들을 찾고, 보살펴주고, 결국엔 그들을 떠나보내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떠나보내는 것은 힘들다. 그들 각각은 세밀하게 쓰인 캐릭터들이고 그들 중 일부는 아마도 여러분이 알고 있거나 알았거나 사랑했던 누군가를 떠올리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찬사를 받을 만한 아름다운 이야기이다.⁴⁴⁾

② If 2020 break your soul, Spiritfarer will heal it.

만약 2020년이 당신의 영혼을 아프게 한다면, 스피릿페어러는 당신의 영혼을 치유할 것입니다.⁴⁵⁾

③ This game is really special. I'm a 50 year old man with an emotional structure made largely of mud and thumbtacks, and I had to bite the inside of my jaw in a parts to keep from tearing up. Many people seem to equate an "adult game" with gore and violence or explicit imagery. Nothing wrong with those types of games, I have and will continue to enjoy them. This game explores mature themes on relationships and mortality and doesn't pull any punches, without being cheap or manipulative. In that sense, its the most adult game I've ever played. I won't ever forget it. If this sounds like something you'd be interested in, stop reading and buy it. Its a slow burn,

43) https://store.steampowered.com/app/972660/Spiritfarer_Farewell_Edition/

44) 'tisbutascratch, 2022년 9월 30일, 영문 평가.

45) Unagiqueen, 2020년 8월 19일, 영문 평가.

and you won't be invested until you've spent some time with the characters in the story. In the end, the payoff is tremendous.

이 게임은 정말 특별합니다. 저는 감정이 메마른 50세 남성이고, 울음을 참기 위해서 입을 깨물어야만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인 게임"을 유혈, 폭력 또는 노골적인 이미지와 동일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 게임들에 문제는 없고, 저는 그 게임들을 앞으로 계속 즐길 것입니다. 이 게임은 관계와 필연적인 죽음에 대한 성숙한 주제를 탐구하고 있고 저급하거나 부정직한 조작을 하지 않으며 어떠한 공격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해 본 게임 중 가장 어른스러운 게임입니다. 저는 이 게임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 말을 듣고 이 게임에 관심이 생긴다면, 그만 읽고 이 게임을 사세요. 이 게임은 천천히 타오르고, 당신은 스토리 속의 인물들과 시간을 보내기 전까지 보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에, 당신은 굉장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⁴⁶⁾

④ 어제 10년 동안 함께 지내 온 저희집 애옹이가 고양이별로 떠났습니다. 스트릿 출신으로 동물병원에서 보호되다 입양된 저희집 애옹이는 말은 못해도 군대 가기 전부터 전역, 오랜 취업 준비, 취업 후 신입 시절 등 힘든 시기에 마음의 의지가 되어주던 소중한 가족이었는데 퇴근하고 돌아오니까 없더라고요... 이 게임이 코로나가 유행하고 백신이 개발되기 전 소중한 가족들을 잃던 사람들이 많았던 시기에 발매되었다는 점과, 게임이 전달하는 메시지 - 작별인사를 준비하는 것 - 의 의미가 소중한 가족과 이별하기 전과 이별을 경험한 후에 저에게 와닿는 부분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주변에 있는 언젠간 필연적으로 떠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그들과 함께하는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들이 이별의 때가 왔을 때 자기가 어떻게 그런 시간들을 대하였는지 간접경험을 하게 해주고 실제 삶의 이별을 더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임입니다.⁴⁷⁾

⑤ 게임을 진행할수록 이런 구조로 게임을 만들어놓은 제작자들에게 화가 났다. 하지만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불합리한 것 아닐까? 오직 내가 함께하고 싶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붙잡아 놓는 건 욕심이기도 하다. 언젠가 다들 떠나고, 그들과 지내왔던 나 또한 떠난다. 우리는 별을 보며 그들을 추억하고, 죽어서는 반대로 기억될 것이다. 이 게임은 나에게 가까운 이들의 소중함을 일깨워주었고, 이것 조금이나마 어린 나이에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⁴⁸⁾

평가 ①의 플레이어는 '스피릿페어러'의 배경이 현실 세계를 닮은 모방적 세계임을 말하고 있다. 인간이 누구나 알고 있을 법한 친숙한 인물들의 이미지를 본떠 만든 영혼들과의 관계 맺음이 치유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현실과 닮아있는 '스피릿페어러'의 세계에서 경험되는 관계 맺음은 현실에서 미처 소산되지 못한 심적 고통을 치유하게 도와주었다. 결과적으로 평가 ①의 플레이어는 '스피릿페어러'를 플레이하면서

46) Banyan42, 2020년 8월 24일, 영문 평가.

47) damecasol, 2022년 3월 26일, 국문 평가.

48) chiyowu01, 2022년 3월 14일, 국문 평가.

타인과의 관계를 상기하고 작별과 애도의 간접경험을 통해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치유를 받았음을 밝히고 있다. 평가 ②의 플레이어는 2020년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경험한 상실과 단절의 아픔을 ‘스피릿페어러’를 통해 치유 받았음을 함축하여 제시하고 있다. ‘스피릿페어러’에서 영혼들과 만나 관계를 맺고 작별하는 일련의 과정이 현실의 팬데믹 상황과 대비되어 드러나고 있음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COVID-19 팬데믹 상황은 기존에 공동체적 제의로서 이루어지던 작별을 차단하였으며 애도를 인스턴트화하였다. 단숨에 찾아온 고통스러운 이별에 마음을 추스를 틈도 주지 않는 고달픈 현실에서 인간의 영혼은 병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스피릿페어러’는 미처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전하고, 다하지 못한 작별과 애도를 마무리하는 이야기로 플레이어의 영혼을 치유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평가 ③의 플레이어는 50대 남성으로, 자신을 감정이 메마른 사람으로 표현하면서도 해당 게임을 플레이하며 울음을 참기 위해 노력했음을 밝혔다. 플레이어는 기존에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던 “성인 게임”이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이미지인 것에 반해, ‘스피릿페어러’는 폭력성·선정성 없이도 가장 성숙한 게임임을 강조하고 있다. 해당 평가 ③은 1,018명의 타 플레이어가 유용한 평가로 인정하여 많은 공감을 이끈 평가로, ‘스피릿페어러’에 대한 유저들의 긍정적 인식을 드러낸다. 평가 ④의 플레이어는 한국인으로,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후에 경험한 심적 고통을 ‘스피릿페어러’에서 얻은 깨달음을 통해 치유적으로 승화시킨 경험을 드러내고 있다. ‘스피릿페어러’를 통한 작별과 애도의 간접경험으로 심적 고통을 위로받으며 타인과 세계에 대한 이해로 생각의 깊이를 확장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평가 ⑤의 플레이어 또한 한국인으로, 게임 진행 중 필연적으로 영혼들을 떠나보내고 그들과 재회할 수 없는 게임의 서사 구조에 불합리함을 느꼈지만, 이를 통해 점차 삶과 죽음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과제를 받아들이고 진정한 소통을 통한 작별을 나누기 위해 노력하는 삶의 자세를 배우게 된 것이다.

물론 디지털 게임으로서 ‘스피릿페어러’의 게임성에 대해 단점을 논하는 플레이어들도 다수 존재한다. 단조롭고 반복적이며 자극이 덜한 게임 플레이가 심리적 압박감에서 자유로운 한편 지루하고 피곤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피릿페어러’가 인기 있는 까닭은 해당 게임이 COVID-19 팬데믹이라는 현실의 배경에서 줄곧 실패되었던 인간의 내밀한 욕구 충족을 성공시켰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타인과 정서적으로 연결되고자 하며, 공동체적 제의인 작별과 애도를 완료하고자 하는 인간의 관계성 회복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치유를 제공한 것이다.

4. 결론

지금까지 디지털 게임 ‘스피릿페어러’가 따뜻한 이야기에 신화적·치유적 상징을 녹여내고 디지털 게임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을 치유적으로 새롭게 활용함으로써 디지털 게임을 통한 치유를 실현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디지털 게임 ‘스피릿페어러’가 가치

는 치유적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간 폭력성·중독성 등의 역기능적 측면만 강조되어왔던 디지털 게임에 인문학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치유성을 적용하여 긍정적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이다. 그리스 신화를 배경으로 한 작별과 애도에 관한 이야기는 COVID-19 상황 속 ‘인스턴트’화 되어버린 작별과 애도로 인한 심적 고통을 덜어주고 삶의 깨달음을 얻게 도왔다.

둘째, ‘스피릿페어러’는 신화를 배경으로 하여 다양한 치유적 상징을 게임 내에 배치하여 치유성을 나타냈다. 기본적으로 양가적 의미를 띠는 상징들을 치유적으로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독특하고 따뜻한 ‘스피릿페어러’만의 세계를 구축해냈다는 점은 타 디지털 게임과 구별되는 장점이다.

셋째, 디지털 게임의 형식적 기능을 치유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플레이어는 직접 스텔라가 되어 게임을 이끌어 나가며 극대화된 동일시의 효과, 생동감 있게 짜인 상징적 이미지들에서 얻는 풍부한 정서는 플레이어에게 치유를 제공해준다. 또한 타 디지털 게임에서 흔하게 의도되는 폭력적 연출과 ‘실패 상태’가 없다는 점은 기존에 가벼이 다루어졌던 죽음에 대한 개념을 재고하게 한다.

넷째, ‘스피릿페어러’는 COVID-19 팬데믹 현실의 아픔을 위로하는 작별과 애도의 간접경험을 치유적으로 전달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팬데믹으로 인해 소중한 이들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전 세계의 많은 이들이 ‘스피릿페어러’를 플레이하고 감동을 느꼈다. 실제 타인과의 관계 맺음을 연상시키는 스토리는 격리와 ‘거리두기’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인간 사이의 관계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불러일으키고 희망을 주었다.

인간은 현재 COVID-19 팬데믹이라는 뼈아픈 단절의 시기를 거치고 있다. 팬데믹은 인간을 타인으로부터 단절시키고, 곧 세계로부터 단절시켰으며 나아가 그 자신의 삶과도 단절되게 만들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인간과 인간 사이의 재연결, 삶과 세계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애쓰는 수많은 이들이 있다. 그 회복 작업의 일환으로서 ‘스피릿페어러’는 플레이어를 팬데믹 이전의 삶으로 회귀시키고 오래 벌어지는 삶의 과업인 만남과 작별을 마주하는 삶의 깨달음을 전달한다. ‘스피릿페어러’는 아름다운 만남 이후에 피할 수 없는 이별의 아픔을 아주 단순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영혼들을 만나 그들이 좋아하는 밥을 지어주고, 안식처를 건설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며 마음을 나눈 후에 작별하기를 반복하는 것이 게임 스토리의 전부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방적이고 단순한 서사 구조에서 삶의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타인을 만나고 때때로 누군가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며, 이것이 곧 작별의 준비이며, 타인이 남긴 영원한 삶의 흔적을 누구나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다. 삶을 살아가는 인간 모두가 스텔라이자 영혼들이다.

■ 참고문헌

- 데이비드 폰태너, 공민희 옮김, 『상징의 모든 것』,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1.
- 톱 브노와, 박지구 옮김, 『기호·상징·신화』, 경북대학교출판부, 2006.
- 미란다 브루스 미트포트, 필립 윌킨스, 주민아 옮김, 『기호와 상징』, 21세기북스, 2010.
- 미르치아 엘리아데, 이재실 옮김, 『이미지와 상징』, 까치, 2018.
- 진 쿠퍼, 이윤기 옮김, 『그림으로 보는 세계 문화 상징 사전』, 까치, 2007.
- 최연숙, 『민담·상징·무의식』, 영남대학교출판부, 2007.
- 카를 구스타프 융, 이윤기 옮김, 『인간과 상징』, 열린책들, 2020.

■ 인터넷 자료

- http://www.gametrics.com/news/News02_View.aspx?seqid=51068
- https://store.steampowered.com/app/972660/Spiritfarer_Farewell_Edition/
- <https://thunderlotusgames.com/>
- <https://thunderlotusgames.com/spiritfarer-farewell-edition-press/>
- <https://www.bbc.com/news/health-61327778>
- <https://www.gamespew.com/2021/09/spiritfarer-interview/>
- <https://www.pockettactics.com/spiritfarer/interview>
- <https://www.worldometers.info/coronavirus/>

1. 서론

한국 사회는 세계적 차원의 '이주의 여성화' 현상 속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 결혼이주여성이 증가하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 사회의 사회통합 정책은 정부가 주도하는 위로부터의 요구를 중심으로 실시되어 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김이선, 2010; 김현미, 2008; 임혜정, 2017). 관이 주도하는 사회통합 정책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욕구와 요구에 대한 답론은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며,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어떻게 한국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측면의 답론이 여전히 우세하다(박경애 외, 2012). 사회통합은 궁극적으로 다양한 구성원의 간의 관계 맺음을 통해 서로를 이해함으로써, 공존의 가능성을 찾아가는 과정(김영순 외, 2019, 154-163)이라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아래로부터의 다문화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결혼이주여성의 공동체는 아래로부터의 다문화주의를 실현함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김현미, 2008; 임혜정, 2017). 결혼이주여성의 공동체로서 자조모임은 서로를 돕는 상호 지원의 개념에 기초하며,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목적을 수행한다(Khasnabis et al., 2010). 상호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조모임에서 구성원들은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경험적 지식을 습득하고 활용함으로써 삶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형성함은 물론, 비판적으로 문화를 인식할 수 있다(김영순·김도경, 2022). 자조모임은 단순히 사회 적응을 돕는 기능적인 수준을 넘어서, 결혼이주여성들이 자기주도적인 성장의 주체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민가영, 2011). 다시 말해 결혼이주여성의 자조모임 참여는 이들이 사회참여의 행위자로서 자립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임선우·윤황, 2017). 그러나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 사회에서 개인적이거나 공적인 차원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모임을 구성하는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쉽지 않다(김이선 외, 2020). 따라서 한국 정부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자조모임을 주요 사회통합 정책의 일환으로 제 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2010-2012)부터 자조모임 지원을 명시하고, 운영지원 및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0). 가족센터를 비롯한 다문화 관련 지원기관에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자조모임은 2020년 기준 전국 209개의 센터를 중심으로 460여개가 운영되고 있다(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1: 66). 결혼이주여성의 자조모임이 지니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모임 및 활동에 대한 참여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19로 인한 영향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관 주도의 일방향적인 운영에서 탈피하여, 이주여

성들이 자조모임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심도있는 고민과 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한다(박경애 외, 2012; 여성가족부, 2022).

결혼이주여성은 결혼-이주-여성이라는 다층적인 차원에서 생활세계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최승은, 2019), 이들의 자조모임에 관한 욕구와 요구도 매우 다양할 것으로 추측된다. 자조모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구한 박경애 외(2012)는 센터 종사자와 자조모임 참여 결혼이주여성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센터 종사자들은 자조모임 필요성에 대하여 교육 참여 안내, 행정기관이나 업무처리 지원, 가족문제 상담지원, 활동 소개 등을 꼽았다. 자조모임의 성공 요인에 대하여 센터 종사자들은 자연스러운 집단 형성하고, 구성원의 동질성, 역량 있는 리더의 존재라 답변하였다. 반면에 결혼이주여성들은 생활의 여유, 기정착자의 적극적인 참여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의 뚜렷한 목적의식과 분명한 참여동기를 꼽았다. 출신국가별로 결혼이주여성이 자조모임 특성을 정리한 정성미(2010)의 연구에 따르면, 출신국가에 따라 자조모임의 지향성이 상이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출신국가가 동일하더라도 자조모임에 대한 인식이 구성원 간 친목 중심에서 한국인과의 만남을 중시하는 것까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박경애 외(2012)에서 제시된 센터 종사자들의 자조모임 성공 요인은 결혼이주여성 자조모임을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는 도구적 조건일 뿐, 결혼이주여성들의 다양한 욕구와 요구의 집합체인 자조모임에 대한 고민이 부재함을 알 수 있다. 이윤진(2022)은 결혼이주여성의 정착주기별로 자조모임을 분석하였는데, 이주 초기에는 정서적 지지와 정보 공유 중심에서 정착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역사회 참여와 사회공헌으로 지향점이 변화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윤진(2022)의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면담한 자료를 이용하지 않고, 신문자료만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김영순·최수안(2022)은 결혼이주여성의 자조모임 참여는 결혼-이주-여성이라는 이들의 다층적인 정체성이 결핍이 아닌 생활세계의 새로운 구조로서 인식하게 하는 생성의 공간이 된다고 밝히면서, 결혼이주여성들의 각각의 상황에 따라 자조모임에 대한 욕구와 기대가 다를 것을 제시하였다. 이 밖에도 결혼이주여성의 자조모임은 인정투쟁의 장이자(김영옥, 2010), 정체성 정치의 장(김정선, 2012), 여가의 장(이춘향·김수민·이현주, 2020)이자, 학습의 장(김영순·문희진, 2022; Kim & Kim, 2022), 상호문화소통의 장(김성호, 2019; 김영순·김도경, 2022)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들은 결혼이주여성의 자조모임에 대한 참여 경험과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들의 자조모임에 관한 주관적인 인식과 정의를 구조적으로 탐색한 논의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고, 결혼이주여성 스스로가 자조모임에 관한 정의를 찾아가고 마주하도록 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들이 원하는 자조모임은 무엇인지 심도 있는 탐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자조모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을 결혼이주여성들의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며, 이를 통해 아래로부터의 다문화주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결혼이주여성들의 관점에서 가설을 형성하고 유형을 구조화하는 데 용이한 Q 방법론을 주요 연구방법론으로 채택하였다. Q방법론은 참여

자들의 주관적인 인식과 유형에 집중하고, 가설을 생성하는 데 탁월한 연구방법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이 인식하는 좋은 자조모임의 유형과 그 특징을 제시하는 데 유용하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결혼이주여성이 생각하는 좋은 자조모임은 어떤 유형으로 분류되며, 각 유형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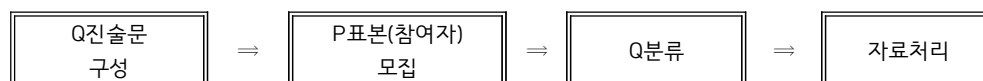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Q방법론은 영국의 물리학자 스티븐슨(1935)에 의해 발명되었다. 이러한 발명은 주관성의 애매함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적 틀을 가져오려는 그의 열망에서 비롯되었다(Herrington & Coogan, 2011). Q방법론은 요인 분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양적연구와 높은 관련성을 가진다. 그러나 동시에 Q방법론은 인간의 주관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연구방법론이라는 점에서 질적연구와도 높은 관련성을 가진다(Brown, 1996). 다시 말해, Q방법론은 두 연구방법의 강점을 종합하고 연결하는 다리를 제공하는 연구방법이다(Sell & Brown, 1984).

Q방법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자들의 취향, 선호도, 감정, 동기나 목표와 같은 주관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즉 Q 방법론이 탐구하고자 하는 것은 특정 주제 영역에 대한 다양한 설명 또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Stainton & Rogers, 1995). 따라서 연령, 계급 등과 같은 개인 특성 전반에 걸친 패턴에 따른 차이를 중시하기 보다는 개인의 전반에 걸쳐 있는 ‘유한한 다양성’을 가정한다. 따라서 Q방법론은 유한한 주관성이 해석 가능한 방식으로 정렬된 유형을 확인하는 데 관심을 둔다(Barry & Proops, 1999).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이 생각하는 좋은 자조모임에 대한 인식과 유형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개인이 내면에 지니고 있는 가치, 신념, 태도 등을 연구하여 특정 주제를 바라보는 개인의 주관성을 탐구하는 데 용이한 Q방법론을 연구방법론으로 채택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수행 절차는 다음 [그림 1] 과 같다.



[그림 1] 연구수행 절차

2. Q진술문 구성

Q진술문을 구성하기 위해 먼저 관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45개의 초안을 구성하였다. 이후 각각 초안 평정을 위하여 베트남 및 중국 출신 결혼이주여성 각 1명, 교수 1인에게 검토를 요청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와 같이 유형이 아닌 우선순위를 살펴보는 인식을 주는 부사를 삭제하였고,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긴 문장⁴⁹⁾, 의미가 중

49) 예: 자조모임을 통해 한국어공부, 취업준비 등 자기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해야 한다.

복되는 문장⁵⁰⁾을 정리하였다. 또한 평정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들로부터 일부 여성들의 경우 듣기와 말하기에 비해 읽기와 쓰기를 어려워할 수 있다⁵¹⁾는 의견에 따라, 한국에서 한국어 교육 관련 박사학위를 받고 모국의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베트남 및 중국인 전문가에게 번역을 의뢰하였다. 40개 Q진술문⁵²⁾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좋은 자조모임에 관한 Q진술문

연번	좋은 자조모임이란
1	가족 문제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는 자조모임
2	가족들의 지지를 받는 자조모임
3	결혼이주여성들의 권리를 표현하는 자조모임
4	결혼이주여성의 의견을 반영하는 자조모임
5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는 자조모임
6	고향의 그리움을 해소할 수 있는 자조모임
7	교육 참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조모임
8	구성원 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자조모임
9	구성원 모두가 평등한 자조모임
10	새로운 구성원이 많이 들어오는 자조모임
11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조모임
12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공유하는 자조모임
13	국가 정책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조모임
14	남는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자조모임
15	내 돈이 들어가지 않는 자조모임
16	다문화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는 자조모임
17	모국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자조모임
18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선배가 있는 자조모임
19	봉사활동이나 사회활동 정보를 제공하는 자조모임
20	부부가 함께하는 자조모임
21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자조모임
22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조모임
23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자조모임
24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자조모임
25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자조모임
26	자녀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조모임
27	자녀와 함께하는 자조모임
28	전문가가 도움을 주는 자조모임
29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는 자조모임
30	주말에 운영되는 자조모임
31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자조모임
32	초기적응을 지원해주는 자조모임
33	충분한 활동공간이 있는 자조모임
34	취업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자조모임
35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자조모임
36	한국 문화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자조모임
37	한국생활에 자신감을 주는 자조모임
38	한국어 습득에 도움이 되는 자조모임
39	한국인 이웃과 많이 교류할 수 있는 자조모임
40	행정기관의 업무처리를 지원해주는 자조모임

50) 예: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자조모임

51) 결혼이주여성이 말하기와 듣기에 비해 읽기와 쓰기에 어려움을 경험한다(이윤주, 2019).

52)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Q진술문의 개수는 40~80개이다(Watts & Stenner, 2012)

3. P표본(참여자)

Q방법론은 일반적으로 단지 특정한 관점의 존재를 밝히고 이후에 그러한 관점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비교하는 데 목적이 있다(Brown, 1980). 따라서 좋은 Q방법론 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많은 수의 P표본이 필요하지는 않다. Q방법론의 목적이 가설을 검증하여 일반화시키려는 데 있지 않고, 가설을 발견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김흥규, 2008). 적절한 P표본의 수는 Q진술문의 50% 가량의 비율이 적절하다고 제시되고 있다(Watts & Stenner, 2012).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Q진술문은 40개로, 이에 해당하는 50%인 20명의 P표본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P표본 모집은 의도적 표집과 눈덩이 표집을 활용하였다. 의도적 표집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 거주한 지 3년 이상된 자, 둘째, 자조모임에 1년 이상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자, 셋째, 한국어로 말하고 듣는데 어려움이 없는 자이다. P표본은 이상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이들에 대한 기본정보는 다음 <표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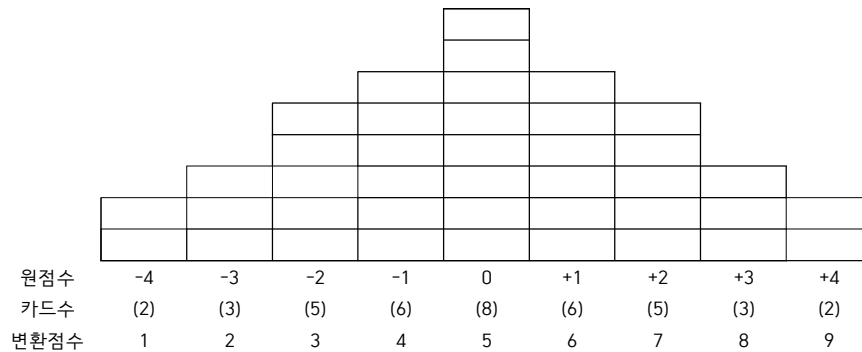
<표 2> P표본 기본정보

구분	출신국적	현재국적	나이	이주연도	자조모임 참여기간	학력	직업
1	베트남	한국, 베트남	35	2015년	3년	대졸	주부
2	베트남	베트남	33	2016년	1년	대졸	주부
3	베트남	한국, 베트남	37	2008년	3년	대졸	서비스업
4	베트남	한국, 베트남	40	2017년	2년	대졸	주부
5	베트남	한국, 베트남	28	2015년	2년	대학재학	상담사
6	베트남	한국, 베트남	29	2017년	2년	대졸	회사원
7	베트남	한국, 베트남	30	2016년	2년	고졸	보조교사
8	중국	중국	43	2013년	9년	대졸	회사원
9	중국	중국	47	2007년	4년	고졸	주부
10	중국	중국	44	2010년	7년	중졸	주부
11	중국	중국	52	2010년	6년	고졸	주부
12	베트남	한국, 베트남	31	2012년	4년	대졸	통번역사
13	베트남	한국, 베트남	35	2012년	2년	중졸	주부
14	베트남	한국, 베트남	31	2015년	1년	고졸	주부
15	베트남	한국, 베트남	32	2013년	2년	고졸	주부
16	중국	중국	49	1995년	1년	고졸	주부
17	중국	중국	39	2005년	10년	대졸	개인사업
18	중국	중국	39	2003년	1년	대학원졸	사회복지사
19	중국	중국	37	2008년	8년	대학재학	상담사
20	중국	중국	38	2008년	5년	대학재학	상담사

4. Q분류 및 자료처리

참여자에게 Q진술문을 읽게 한 후 Q분포도(그림 1)를 활용하여, 우선 동의하는 진술문은 오른쪽에,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은 왼쪽에, 중립적인 진술문은 가운데로 분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동의하는 진술문 중 매우 많이 동의하는 것은 '매우 많이 동의' 라 적혀 있는 칸에 Q진술문 번호를 적게 하고 차츰 안쪽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다음으로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을 같은 방법으로 Q진술문 번호를 적게 하고, 중간 부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응답자들에게 양극단에 (+4, -4) 분류한 진술문에 대해 그와 같이 배치한 이유를 분류가 끝난 직후 바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림 2] Q 분포도

Q분류는 2022년 7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직접 면담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참여자가 이주배경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류방법을 정확하게 안내하고, 분류에 대한 참여자들의 견해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다만, 코로나 19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기본적으로 비대면(zoom)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여자의 상황에 따라 대면 방법도 병행하였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경우, 번역된 Q진술문(<표 2>), Q분포도([그림 1]) 및 연구참여동의서를 인쇄하여, 참여자의 거주지나 회사 등으로 우편 발송하였다. 우편 수신이 확인된 이후, zoom을 활용하여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Q분류를 함께 진행하였다. 대면으로 진행된 경우에도 사전에 Q진술문을 SNS를 통해 전달하고, 참여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Q분류를 진행하였다.

연구윤리를 준수하기 위하여 Q분류를 위한 면담 시간은 참여자가 편안한 시간대를 확인하여 진행하였으며, Q분류에 소요된 시간은 참여자 1명당 1시간~1시간 30분 가량이다. Q분류의 모든 과정은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화 및 녹음하였으며,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음을 고지하였다. 연구 종료 이후 소정의 사례비를 제공하였다.

자료처리는 수집된 자료를 가장 부정하는 문항을 1점으로 시작하여, 2점, 3점, 4점, 중립 5점, 6점, 7점, 8점, 매우 동의하는 문항 9점으로 점수화하여 코딩한 후, PQmethod 2.35를 사용하여 Q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장 이상적인 요인수의 결정과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서 인자가중치 1.0 이상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김흥규, 2008). 먼저 주성분분석을 실시하고, <표 3>의 고윳값과 설명변량 낙차를 고려하여 요인을 여섯 개로 결정하였다. 이후 배리맥스(Varimax)방식으로 회

전하고 결과값을 산출하였다.

<표 3> 주성분분석 결과

요인(factors)	1	2	3	4	5	6	7	8
고윳값 (eigenvalues)	4.5804	2.9499	1.8716	1.4040	1.2422	1.0593	0.9875	0.9478
설명변량 (expl.var.)	23%	15%	9%	7%	6%	5%	5%	5%
누적 설명변량 (cum. expl. var.)	23%	38%	47%	54%	60%	66%	70%	75%

Ⅲ. 연구결과

결혼이주여성의 좋은 자조모임에 대한 인식은 <표 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6개의 유형이 확인되었다. 6개 유형의 누적 설명변량은 66%이다. 6개 유형의 주요 동의 및 부동의 진술문과 참여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종합하여 제 1유형은 ‘긍정성 회복의 장’, 제 2유형은 ‘배움의 장’, 제 3유형은 ‘이주 어머니의 장’, 제 4유형은 ‘권리 옹호의 장’, 제 5유형은 ‘치유의 장’, 제 6유형은 ‘문화 소통의 장’으로 명명하였다.

<표 4> 결혼이주여성의 좋은 자조모임에 관한 Q유형

P표본	Q유형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6유형
1	0.0794	0.0401	0.4179	-0.0613	0.6351X	0.2691
2	0.5203X	0.0648	-0.1069	-0.148	-0.1645	-0.4125
3	-0.0127	0.6976X	0.1749	0.3441	-0.311	-0.1553
4	0.6253X	0.4148	0.1327	-0.003	0.0448	0.057
5	0.0542	0.6930X	0.1066	0.0126	-0.0855	0.3063
6	0.6790X	0.3707	0.0244	0.2536	0.0456	-0.064
7	0.3565	0.6453X	0.0381	-0.0168	-0.0008	-0.2347
8	0.0307	-0.0364	-0.0315	0.8150X	-0.1878	0.2091
9	0.2038	0.2315	0.2125	0.1313	-0.6081X	0.0829
10	0.2572	0.2077	0.1208	0.1283	0.1457	0.8088X
11	0.0575	0.2481	0.1321	0.0118	-0.7254X	0.0075
12	0.3429	-0.0063	0.1778	0.073	0.6595X	0.2149
13	0.1362	0.2028	0.7991X	-0.0612	-0.1316	0.222
14	0.1621	0.1227	0.2138	0.6159X	0.4912	-0.1051
15	0.2447	0.0204	0.7788X	0.2746	0.1125	-0.009
16	0.5153	0.0886	-0.5187	0.3068	-0.0841	0.1626
17	0.0206	0.7802X	-0.0405	-0.1118	-0.1346	0.1833
18	0.6743X	0.0079	0.2227	0.2382	0.3573	0.0702
19	0.6371X	0.1438	0.2349	-0.196	-0.0337	0.105
20	0.6999X	-0.1934	0.0423	0.1081	-0.0047	0.1902

1. 제 1유형: 긍정성 회복의 장으로서 자조모임

제 1유형에 해당하는 P표본은 6명으로, 제 1유형은 '긍정성 회복의 장으로서 자조모임'으로 명명하였다.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 되고자 다방면의 노력을 통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상을 마련하고,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황해영·김영순, 2017). 자조모임은 긍정적인 상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마주하는 긍정성 회복의 장이라 볼 수 있다. 참여자들은 자조모임을 통해 모국에서 살아왔던 것처럼 한국에서도 그렇게 살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 이라기 보다는 개인 스스로의 욕구이자 열망이다.

근데 제가 내가 공부 많이 했거든요. 그 많이 공부해도 지금은 식당에서 이러면 좀 마음에 좀 안 들어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좀 학교도 졸업했고 여기서 한국 가도 열심히 하고 공부했는데요. (참여자 4)

참여자들은 결혼 전 본국에서 대학생이나 회사원으로 살아왔던 삶과 달리, 한국에서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맞다고 긍정해왔던 삶의 방식이 한국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참여자들은 긍정해왔던 삶의 방식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장으로서 자조모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일자리를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한국인의 어머니로서 아이들을 잘 키워내길 희망한다. 제 1유형의 주요 동의 및 부동의 진술문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제 1유형의 주요 동의/부동의(상위 5개)

진술문		표준점수
동의	24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자조모임	1.570
	37 한국생활에 자신감을 주는 자조모임	1.494
	7 교육 참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조모임	1.493
	1 가족 문제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는 자조모임	1.401
	26 자녀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조모임	1.241
부동의	10 새로운 구성원이 많이 들어오는 자조모임	-1.331
	13 국가 정책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조모임	-1.388
	20 부부가 함께하는 자조모임	-1.466
	30 주말에 운영되는 자조모임	-2.018
	21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자조모임	-2.271

제 1유형이 강하게 동의하고 있는 항목을 살펴보면, 좋은 자조모임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24)이자,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7, #26), 가족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나눔으로써 한국 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주는 자조모임(#37)을 좋은 자조모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한편, 새로운 구성원이 많이 들어오는 자조모임(#10)이나 국가 정책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조모임(#13)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였으며, 부부가 함께하는 자조모임(#20), 주말에 운영되는 자조모임(#3),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자조모임(#21)이 좋은 자조모임의 조건에 반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2. 제 2유형: 배움의 장으로서 자조모임

제 2유형에 해당하는 P 표본은 4명으로, 제 2유형은 ‘배움의 장으로서 자조모임’으로 명명하였다. 자조모임에서 배움이란, 교수자와 학습자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교육의 장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자조모임을 통해서 한국 문화에 대한 리터러시를 습득하고,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Kim & Kim(2022)은 자조모임이 결혼이주여성들의 관점의 전환을 촉진시키고, 개인적·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학습터가 된다고 밝혔다.

만나서 그냥 공부하는 거죠. 배워하는 거죠. 능력적으로 만나 이야기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나 어떤 좋은 점이 있으면 내가 그거 좋아 서로 배우는 거죠. (참여자 17)

자조모임 안에서 공유되는 경험적 지식은 보완, 수정, 재조직, 설계 등의 작업을 통해 삶의 에너지로 기능한다(Dewey, 1938; 고영호, 2008 재인용). 따라서 참여자들은 자조모임이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배움의 장이 되길 희망한다. 제 2유형의 주요 동의 및 부동의 진술문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제 2유형의 주요 동의/부동의(상위 5개)

진술문		표준점수
동의	34 취업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자조모임	1.931
	38 한국어 습득에 도움이 되는 자조모임	1.852
	25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자조모임	1.510
	26 자녀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조모임	1.466
	27 자녀와 함께하는 자조모임	1.267
부동의	10 새로운 구성원이 많이 들어오는 자조모임	-1.160
	14 남는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자조모임	-1.213
	13 국가 정책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조모임	-1.465
	21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자조모임	-1.518
	2 가족들의 지지를 받는 자조모임	-1.700

제 2유형이 강하게 동의하고 있는 항목을 살펴보면, 좋은 자조모임은 취업관련 교육을 제공하고(#34), 한국어 습득(#38)과 일자리 정보(#25)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조모임을 통해 자녀교육의 정보를 얻는 것(#26) 뿐만 아니라, 자녀와 함께하는 자조모임(#27)을 좋은 자조모임의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새로운 구성원이 많이 들어오거나(#10), 남는 시간을 활용하고(#14), 국가 정책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조모임(#13), 비대면 진행(#21), 가족들의 지지를 받는 자조모임(#2)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3. 제 3유형: 이주 어머니의 장으로서 자조모임

제 3유형에 해당하는 P 표본은 2명으로, 제 3유형은 '이주 어머니의 장으로서 자조모임'으로 명명하였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이주배경을 가진 어머니로서 다양한 맥락의 교차점 위에 놓여 있다(황정미, 2012). 다시 말해, 이주 어머니로서 결혼이주여성들은 수혜의 대상으로서 '이주자'이자, 능동적 행위자라는 '어머니'라는 양가적인 위치에서 협상하며 자신의 수행성을 획득해 나간다.

여러 나라 사람들 만나서 고민이 얘기하고 같이 만들기 활동하고 아기 잘 노니까 엄마도 보고 그거 기분이 좋아요. (참여자 13)

(자조모임 참여하면) 좋은 거 잘 받들고 아기 잘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도 저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학교) 보냈는지 어떻게 전부 다. 뭐가 중요하는지 이렇게. (참여자 15)

자조모임은 이주 어머니로서 경험하는 한국의 낯선 교육 환경에 대한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 된다. 자조모임 안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은 이주자로서의 결핍있는 모성이 아니라, 부모로서 지니는 보편적인 물음들을 함께 나누고, 공유할길 원하고 있다. 제 3유형의 주요 동의 및 부동의 진술문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제 3유형의 주요 동의/부동의(상위 5개)

진술문		표준점수
동의	26 자녀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조모임	1.396
	27 자녀와 함께하는 자조모임	1.396
	7 교육 참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조모임	1.336
	1 가족 문제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는 자조모임	1.336
	12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공유하는 자조모임	1.306
	16 다문화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는 자조모임	1.306
부동의	21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자조모임	-1.110
	5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는 자조모임	-1.621
	15 내 돈이 들어가지 않는 자조모임	-1.876
	13 국가 정책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조모임	-1.906
	14 남는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자조모임	-2.161

제 3유형이 강하게 동의하고 있는 항목을 살펴보면, 좋은 자조모임은 자녀와 함께 하며(#27), 교육 참여 정보를 제공(#7)하고, 가족 문제에 대한 상담을 제공(#1)하는 것이다. 또한 이주 어머니로서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12), 이를 통해 자녀와 함께 살아갈 한국의 다문화인식 개선에 도움(#16)이 되길 원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편, 비대면으로 진행되거나(#21),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는 자조모임(#5)이나 내돈이 들어가지 않는 자조모임(#15)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국가 정책적으로 도움이 되거나(#13), 남는 시간을 활용하는 자조모임(#14)에 대하여 강하게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제 4유형: 권리 옹호의 장으로서 자조모임

제 4유형에 해당하는 P 표본은 2명으로, 제 4유형은 '권리 옹호의 장으로서 자조모임'으로 명명하였다. 김영옥(2010)은 결혼이주여성의 공동체를 '상호인정의 공간'으로서 다문화 공간'이라고 정의하였다. 다시 말해, 다문화공간으로서 이주여성의 공동체는 기존의 한국 문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생성하고, 정체성 정치의 장으로 나아간다. 또한 이주여성들은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서 일방적인 수혜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나누며 한국 사회에 연결될 수 있는 존재임을 자조모임을 통해 실현해 나간다.

저는 외국인이라는 사회 지위에 관심이 많아요. 실제로 다양한 협회 활동을 통해서 의견도 전달하고 있구요. 특히 이중언어교육의 개선이 필요하거든요. 계속 이야기 하고 있어요. (참여자 8)

자조모임은 결혼이주여성들의 권리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여기에서 자신들의 의견과 생각을 나누는 곳이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인정을 받는 것보다 자조모임 구성원들의 의견과 생각, 각자의 삶의 방식이 더 중요하다. 각자의 욕망을 실현하는 공간은 역설적으로 자조모임 밖으로 확장됨으로써, 다문화 생산의 주체(김영옥, 2010)로 생성하는 공간이 된다. 제 4유형의 주요 동의 및 부동의 진술문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제 4유형의 주요 동의/부동의(상위 5개)

진술문		표준점수
동의	3 결혼이주여성들의 권리를 표현하는 자조모임	1.777
	9 구성원 모두가 평등한 자조모임	1.539
	16 다문화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는 자조모임	1.539
	12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공유하는 자조모임	1.300
	19 봉사활동이나 사회활동 정보를 제공하는 자조모임	1.300
부동의	2 가족들의 지지를 받는 자조모임	-1.136
	14 남는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자조모임	-1.136
	10 새로운 구성원이 많이 들어오는 자조모임	-1.465
	35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자조모임	-1.777
	6 고향의 그리움을 해소할 수 있는 자조모임	-1.868
	5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는 자조모임	-2.106

제 4유형이 강하게 동의하고 있는 항목을 살펴보면, 좋은 자조모임은 결혼이주여성들의 권리를 표현하며(#3), 구성원 모두가 평등하고(#9), 다문화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16). 구성원들은 권리 옹호를 위한 의견을 공유하고(#12), 봉사활동이나 사회활동 정보를 제공하는 자조모임(#19)을 좋은 자조모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가족들의 지지를 받고(#2), 남는 시간을 활용하거나(#14), 새로운 구성원이 많이 들어오는 자조모임(#10)은 좋은 자조모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고(#35), 고향의 그리움을 해소하거나(#6),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는 자조모임(#5)에 대하여 강하게 부정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5. 제 5유형: 치유의 장으로서 자조모임

제 5유형에 해당하는 P 표본은 4명으로, 제 5유형은 ‘치유의 장으로서 자조모임’으로 명명하였다. 자조모임은 서로에게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고, 대처 방법을 배우고, 자신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을 찾고, 자신을 도우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역할을 한다(Wituk et al., 2000). 뿐만 아니라 팀원과의 소통 및 각종 활동을 통해 외로움과 고향에 대한 향수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이춘양 외, 2020).

내가 혼자 뭐 하기에는 잘 모르겠거나 아니면 혼자 시작하기는 힘든 것 같으니까 같은 이렇게 결혼이민자이나 같은 모국 사람들이 모여서 뭐가 함께 가지 하는 게 스트레스도 풀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참여자 12)

왜냐하면 자조 모임 거기 같은 고향 있으니까 좀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 사니까 한국 말로 다 표현 마음 다 못 표현하잖아요. 친구 베트남 좀 잘 통하니까 그래 기분

좀 더 나는 똑같아라고 생각해요 (참여자 1)

한국에서 모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는 마음의 안식과 편안함을 준다. 모국어로 내면의 이야기를 드러내고, 자신의 상황을 깊이 공감하는 상대방은 그 이야기를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주기 때문이다. 이 유형에게 자조모임은 강하게 연대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목소리는 공간이라기 보다는 위로를 받고, 위로를 해줄 수 있는 느슨한 치유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제 5유형의 주요 동의 및 부동의 진술문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제 5유형의 주요 동의/부동의(상위 5개)

진술문		표준점수
동의	24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자조모임	1.848
	14 남는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자조모임	1.670
	6 고향의 그리움을 해소할 수 있는 자조모임	1.449
	11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조모임	1.348
	19 봉사활동이나 사회활동 정보를 제공하는 자조모임	1.306
부동의	33 충분한 활동공간이 있는 자조모임	-1.142
	20 부부가 함께하는 자조모임	-1.281
	34 취업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자조모임	-1.627
	4 결혼이주여성의 의견을 반영하는 자조모임	-1.943
	5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는 자조모임	-2.063

제 5유형이 강하게 동의하고 있는 항목을 살펴보면, 좋은 자조모임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며(#24), 남는 시간을 활용하고(#14), 고향의 그리움을 해소하는 것(#6)으로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11), 봉사활동이나 사회활동 정보를 제공하는 자조모임(#19)을 좋은 자조모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충분한 활동공간(#33), 부부가 함께하는 자조모임(#20), 취업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자조모임(#34)은 좋은 자조모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의견을 반영하거나(#4),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는 자조모임(#5)에 대하여 강하게 동의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6. 제 6유형: 문화 소통의 장으로서 자조모임

제 6유형에 해당하는 P 표본은 1명으로, 제 6유형은 '문화 소통의 장으로서 자조모임'으로 명명하였다. 문화는 우열을 가리거나 위계화될 수 없는 것이지만, 다문화사회에서 문화도 일종의 권리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김현미, 2008). 주류 문화와 다른 문화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음으로 차별과 배제에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로의 문화 간 소통을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권리 행사와도 밀접하게 이어질 수 있다.

한국 문화 알고 싶어요. 국가마다 문화 다르잖아요. 한국 문화 많이 궁금하고.. 중국 문화도 알고 싶어서 **** 자조모임 활동도 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도 좋은 것 같아요. (참여자 10)

자조모임은 자연스러운 관계 속에서 한국어를 습득하고,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이다. 또한 자조모임 활동을 통해 출신국의 문화를 알림으로써, 출신국 문화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특히 엄마 나라의 문화에 대해 잘 모르거나, 주류 사회의 인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풍부한 문화적 정체성을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제 6유형의 주요 동의 및 부동의 진술문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제 6유형의 주요 동의/부동의(상위 5개)

진술문		표준점수
동의	17 모국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자조모임	1.916
	38 한국어 습득에 도움이 되는 자조모임	1.916
	16 다문화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는 자조모임	1.437
	27 자녀와 함께하는 자조모임	1.437
	36 한국 문화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자조모임	1.437
부동의	5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는 자조모임	-1.437
	13 국가 정책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조모임	-1.437
	34 취업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자조모임	-1.437
	20 부부가 함께하는 자조모임	-1.916
	25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자조모임	-1.916

제 6유형이 강하게 동의하고 있는 항목을 살펴보면, 좋은 자조모임은 모국의 문화를 알리고(#17), 한국어 습득에 도움이 되며(#38), 다문화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는 곳(#6)으로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녀와 함께하고(#27), 한국 문화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자조모임(#36)을 좋은 자조모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거나(#5), 국가 정책적으로 도움이 되고(#13), 취업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자조모임(#34)은 좋은 자조모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부가 함께하거나(#20),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자조모임(#25)에 대하여 강하게 부정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IV. 결론 및 제언

연구결과, 좋은 자조모임에 관한 인식유형은 총 6가지로, 긍정성 회복의 장, 배움의 장, 이주 어머니의 장, 권리 옹호의 장, 치유의 장, 문화 소통의 장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이 좋은 자조모임에 대한 인식의 다양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각 유형은 별개의 관계로 명확한 경계를 가진다고 보다는 유기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가령 제 1유형인 긍정성 회복의 장과 제 4유형 권리 옹호의 장은 인정투쟁의 긍정 전략과 변용 전략의 관계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제 5유형 치유의 장과 제 6유형 문화소통의 장 역시 출신국의 문화를 중심에 두고자 한다는 점에서 유기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자조모임 운영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의 다양한 인식 유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윤진(2022)는 정착 주기별로 결혼이주여성 자조모임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자조모임은 정착 주기만으로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결혼이주여성들이 현재 어떠한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지, 자조모임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조모임 인식 유형에 대한 후속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자조모임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는 20명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여섯 가지의 유형을 확인하고, 인식의 다양성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향후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 유형들을 연계함으로써 어떻게 자조모임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고영호(2008). “Dewey 경험적 지식의 포스트모더니즘과의 정합성 연구”. 교육철학, 제35권, 181-232.
- 김성호(2019). “상호문화주의에 근거한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참여 경험 연구”. 생명연구, 제52권 제1호, 57-84.
- 김영순·조영철·김정희·정지현·박봉수·오영훈·손영화·박종도·이미정·정경희·박미숙(2019). 다문화 생활세계와 사회통합 연구 경기: 북코리아.
- 김영순·김도경(2022). “결혼이주여성이 참여한 자조모임 공동체의 상호문화소통에 관한 연구”. 다문화사회연구, 제15권 제2호, 5-37.
- 김영순·문희진(2022). “결혼이주여성의 통번역 자조모임 참여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한중인문학 연구, 제75권 제5호, 95-119.
- 김영순·최수안(2022). ” ‘생성’ 으로서의 자조모임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의 경험에 관한 연구 “, 아시아여성연구, 제61권 제1호, 127-174.
- 김영옥(2010). ” 인정투쟁 공간/장소로서의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공동체 “. 한국여성철학, 제14권, 31-64.
- 김이선(2010). “다문화사회의 전개와 ‘다문화’ 정책의 성격: 문화의제를 중심으로”. 지역과 세계, 제34권 제1호, 1-27.
- 김이선·최윤정·장희영·김도혜·박신규(2020). 이주여성의 사회적 포용을 위한 정책 대응 방안: 사회 참여 확대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정선(2012).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변화하는 ‘home’ 의 의미와 시민으로 주체되기”. 여성학논집, 제29권 제2호, 61-105.
- 김현미(2008). “이주자와 다문화주의, 현대사회와 문화” 제26권, 57-79.
- 김홍규(2008). Q방법론: 과학, 철학, 이론, 분석 그리고 적용.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민가영.(2011).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정책 수용과정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2권 제1호, 83-104.
- 박경애·채옥희·정혜선·김대진(201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주여성 자조모임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0).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22).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와츠, 사이먼·스테너, 폴(2014). Q방법론 연구의 실행, 이론·방법·해석. 백평구(역).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Watts, S. & Stenner, P. Doing Q Methodological Research: Theory, Method and Interpretation. CA: SAGE. 2012).
- 이윤주(2019).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읽기·쓰기 교육”.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 제4권 제3호, 55-86.
- 이윤진(2022). “결혼이주여성 자조모임의 정착주기별 의미 고찰과 제언”. 한국이민정책학보, 제5권 제1호, 109-122.
- 이춘양·김수민·이현주(2020). “여가로서의 결혼이주여성 문화예술 활동 경험 탐색: ‘H’ 중국

전통무용팀을 중심으로” .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20권 제5호 1089-1113.

- 임선우·윤황(2017).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통번역 자조모임 특성에 관한 연구: 대구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 인문사회 21. 제8권 제3호. 639-660.
- 임혜정(2017). ‘아래로부터의 운동’ 으로서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교육..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성미(2010). 결혼이주여성의 자조모임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승은(2019). “이주 어머니(migrant mother)의 자녀 교육 경험에 관한 연구: 동남아시아 출신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 여성연구. 제101권 제2호. 77-109.
-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21). 2020 가족지원사업 연간결과보고서. 서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황정미(2012). “다문화 사회와 '이주 어머니(migrant mother)'” . 아시아여성연구. 제51권 제2호. 103-142.
- 황혜영 · 김영순(2017). “제한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의 일상생활에 나타난 인정투쟁 경험과 의미” . 교육문화연구. 제23권 제4호. 459-479.
- Barry, J., & Proops, J.(1999). Seeking sustainability discourses with Q methodology. Ecological economics, 28(3), 337-345.
- Brown, S. R.(1980). Political Subjectivity: Applications of Q Methodology in Political Science. Yale University Press.
- (1996). Q methodology and qualitative research. Qualitative health research, 6(4), 561-567.
- Dewey, J.(1938). Experiential learning. New Jersey: Pentice Hall.
- Herrington, N., & Coogan, J.(2011). Q methodology: an overview. Research in Teacher Education, 1(2), 24-28.
- Khasnabis, C., Motsch, K. H., Achu, K., Al Jubah, K., Brodtkorb, S., Chervin, P., ... & Lander, T. (2010).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CBR guidelines.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 Kim, E. H., & Kim, Y. S.(2022). A Qualitative Study on Married Migrant Women’ s Experience of Participation in Self-help Groups from the Perspective of Transformative Learning. Journal of Multiculture and Education. 7(1). 123-147.
- Sell, D. K., & Brown, S. R.(1984). Q methodology as a bridge between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Application to the analysis of attitude change in foreign study program participants. Qualitative research in education, 79-87.
- Stainton-Rogers, R.(1995). Q methodology. In: Smith, J. et al. (Eds.), Rethinking Methods in Psychology. London: Sage. .
- Stephenson W.(1935). Correlating persons instead of tests. Character and Personality. 4. 17-24.
- Wituk, S., Shepherd, M. D., Slavich, S., Warren, M. L., & Meissen, G.(2000). A topography of self-help groups: An empirical analysis. Social work, 45(2), 157-165.

중년 여성의 자존감 향상을 위한 인문치료 -비폭력대화를 기반으로-

이승옥 강원대학교 교육인문협력학과

1. 들어가며

본 연구는 인문치료의 목적인 내담자 스스로 자기다움을 삶에서 구현하며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돕는데 있다. 본 연구자는 내담자가 자기답게 살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Self-esteem)의 향상 즉 자기 효능감과 자기존중이 있을 때 지금 보다 삶을 자기답게 살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자아존중감의 사전적 정의는 자신이 삶에서 마주하는 기본적인 도전에 맞서서 대처할 능력이 있으며, 행복을 누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내적 경향⁵³⁾이다.

이번 인문치료 프로그램은 비폭력대화를 기반으로 중년여성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계획하였다. 인문치료 프로그램에 비폭력대화를 접목한 이유는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대화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내담자가 자동적으로 하는 자신과의 대화가 그의 자아 존중감에 매우 밀접한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 비폭력대화란 우리 마음 안에서 폭력이 가라앉고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인 연민으로 나와 상대를 대하는 것⁵⁴⁾이다. 이번 인문치료 프로그램에서는 내담자의 자아존중감의 향상이 목적이기 때문에 인문예술매체를 매개로 내담자의 나를 대하는 말, 문장, 판단과 생각을 점검하고, 내담자 자신에게 하는 대화의 문장들을 찾고 바꾸어 갈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매회 2시간 30분씩 10회 차로 구성하였고 이 글을 쓰는 현재는 8회차까지 회기를 진행한 상태이다.

내담자들은 자기만의 문장들에 의해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아존중감의 문제는 자신 안에 자신에 대한 어떤 문장이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만 한다. 나는 어떤 가치의 사람이다. 등 내담자 안 깊숙이 쓰여진 문장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담자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통제하는 잘못된 문장을 찾아서 인식하고, 그 문장을 공감해 준 후 해체하여 그 문장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스스로 자기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내담자의 자아존중감은 높아질 것이라 연구가설을 세워본다.

53) 너세니얼 브랜든. (2015). p61

54) 마셜 B. 로젠버그, (2017), p.25

2. 연구 과정

- 1) 기간과 총 회기: 2022년 8월 22일~ 10월 31일까지 총 10회기(2시간 30분)
- 2) 집단의 특징: 40대~ 60대 중반의 중년 여성
- 3) 집단원의 구성

<표 1> 집단원의 구성 개요

대상	연령	직업
A	40대	프리랜서
B	60대	없음
C	40대	프리랜서
D	40대	프리랜서
E	40대	직장인
F	40대	프리랜서
G	50대	없음
H	40대	직장인

4) 연구도구 및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가 개발한 로젠버그 자존감척도와 문장완성 검사인 SSCT(Sacks Sentence Completion Test)를 사용하여 내담자 자신에 대한 문장을 투사적 기법으로 검사할 것이다. 이와 함께 회기 내에서 진행되는 결과물들인 내담자의 글을 통해 내담자의 변화 과정을 분석할 것이다.

3. 연구 진행 상황

1) 회기 진행 내용

연구 10회기 중 초기 단계인 1~2회기에는 서로를 알아가고,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진과 시를 통해 현재 내담자의 관심사와 상황을 나누었고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와 대화과정 경험하기를 진행하였다.

중기 단계인 3회에서 9회까지는 자신에 대한 탐색, 현실에 대한 자각과 수용, 나에 대한 잘못된 신념을 찾고 다시 쓰기의 단계로 진행하였다. 이 작업을 위해 시 읽기, 시 고쳐 쓰기, 사진, 비폭력 대화를 통한 핵심 신념 찾고 고쳐 쓰기를 진행 하였다.

종결 단계인 10회기에는 인문치료 프로그램을 경험한 나의 변화와 소감,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글쓰기와 서로에 대한 감사한 마음전하기를 하고 마칠 예정이다.

2) 집단원의 결과물 (1회기~ 8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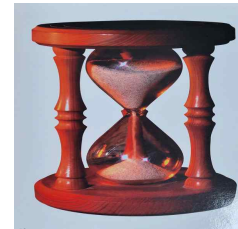
8명의 집단원 중 4명(A, B, C, D)의 회기 진행에 따른 결과물을 통해 그 변화과정을 보려한다.

8회기에 진행한 나의 잘못된 핵심신념을 의식하고 공감으로 보아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회기 부분은 두 명씩 짝을 지어 진행한 프로그램으로 C, D의 결과는 9회기에 나올 예정이다.

○ 집단원 A 40대

1회기: 지금 나의 상황과 가장 비슷한 사진을 고르고, 프로그램 참가 동기이야기하기

‘저는 지금 애도 등 많은 것이 필요한 기간입니다. 친정어머님이 지난주 돌아가셔서 지금 친정 쪽 재산정리 중인데 어떻게 흘러갈지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기대되고 시간이 지난 후 어떻게 제가 바뀔지 기대됩니다.’



2회기: 가요 행복의 나라로 노래 듣고 가사 중 가장 마음에 와 닿는 곳 이야기하기

‘아 나는 살겠소 태양만 비친다면’ 제가 지금 제 의지대로 무얼 하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대로 저를 둥둥 뜨게 하는 그냥 상황이라서 그냥 태양이 비치니까 살고 “밤과 하늘과 바람 안에서” 밤은 삶의 어둠 하늘은 내가 답답할 때 한 번 보고 부는 바람도 불어라 하고 있어서 이 구절이 와 닿네요.’

4회차: 행복의 나라로 시 고치고 싶은 부분 고쳐 쓰기

제목: 이 순간을 느낄 테야

장막을 걷어라 너의 좁은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자

가벼운 풀밭위로 나를 높게 해주세

나는 행복의 내게로 갈 테야

접어드는 초저녁 집에 들어와 보니 편안함에 도취했소

아 나는 살겠소 건강만 한~~면 (내 마음만 편하다면)

이 순간을 느낄 테야

나는 이 순간을 즐길 테야

7회차: 지금 현재 나의 상황과 가자 비슷한 이미지 고르기

아침에 친정집에서 상속 문제로 연락이 왔고. 오후에는 94살 시아버지가 중환자실 들어가셔서 연명치료를 안하기로 싸인 하고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돌아가시는 줄 알았는데 퇴원하게 되었다. 사실 이번에 편히 가시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 기쁨이 아니다 무거운 마음이다. 무겁고 가벼운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이 사진을 골랐다. 계속 무거운 순 없으니까 여기 와서는 가볍게 있다가. 간다. 여기 와서 정확 시켜서 가고 한다.



7회차: 듣기 힘든 말을 들었을 때 나의 반응 “너 그렇게 밖에 못하니?”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의 반응 써보기 → 무슨 소리야 내가 뭘...?

8회차: 나의 잘못된 핵심신념을 의식하고 공감으로 보아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자신에 대한 생각: 나는 솔직한, 잠이 많은, 저혈압인 사람이다.

-타인에 대한 생각: 사람들은 이기적, 자기중심적, 위험하다.

-삶(인생/세상)은: 살만하다, 아름답다, 피곤하다.

-나의 잘못된 핵심신념 만나기

1) 자극 관찰: 최근 힘들었던 상황을 최대한 관찰로 적어본다.

누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나?

- 00아 아빠를 용서해줘. 처음으로 너에게 용서를 구한다. 나이를 먹다보니 판단력, 정신력이 깜박거린다. 네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어 미안하다. 내가 한말 들 마음에 두지마라. 용서를 바란다. 상속서류가지고 오겠다.

2) 이 말에 대한 나의 판단과 생각들

뭐냐 미안하다. 용서를 구한다면

3) 가장 자극 받는 말

뭐냐 미안하다. 용서를 구한다면

4) 나의 몸: 손, 손등, 손가락, 팔목, 어깨가 묵직하다.

나의 마음: 답답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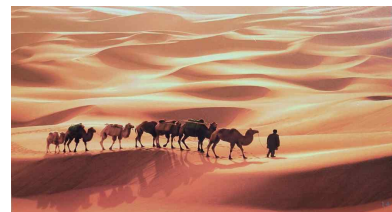
5) 과거에 4)번의 몸과 마음상태와 같이 느꼈던 가장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린다.

나는 방의 구석에서 자는 척 하고 있었을 때 외할머니와 엄마가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 6) 그때의 어린 아이는 어떤 생각을 했나요? 가장 핵심적인 생각, 신념을 한 문장으로 정리 해본다.
 핵심신념: 엄마 말 잘 듣고 맞춰주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 착하게 살아야 나를 꺼줄 것이다.
- 7) 이 생각을 알게 모르게 믿으며 살아 갈 때 내 몸과 마음은 어떻게 느끼나요?
 몸: 긴장하고 묵직하다
 마음: 답답하다
- 8) 이런 느낌으로 살 때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않나요?
 존재감, 의사표현 >> 안전 돌봄 애착 >> 공동체 >> 평화
- 9) 이 욕구가 실현됨을 상상해 보고 1)번의 자극을 다시 본다. 그 자극을 볼 때 어떤가요?
 나에게 평화는 솔향기, 폭신한 솔잎길이다.
 아빠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 10) 지금 느낌은 어떤가요?
 여전히 화난다.
- 11) 위의 핵심신념이 사실인가요?
 아니다. 내가 맞춰 주었어도 나를 꺼주지 않았을 것이다.
- 12) 이 핵심신념이 사실이라고 믿고 내가 살아 갈 때, 나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나요?
 맞춰주겠조
- 13) 이 신념이 없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자유롭고 자유롭다. 방랑자
- 14)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즐겁다
- 15) 나의 잘못된 핵심신념을 의식하고 공감으로 보아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한 소감 속 시원하다. 후련하다. 잘 살 거 같다.

○ 집단원 B 60대

1회기. 지금 나의 상황과 가장 비슷한 사진을 고르고 프로그램 참가 동기 이야기하기
 저는 아들하고 잘 소통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가 고른 그림은.. 제가 좀 삭아서 그냥 살아야 되니까 망망한 세상 살아야 되니까, 공적행복이 유린당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사적행복이라도 잘 챙겨보려고.. 그래서 왔습니다.



2회기. 가요 행복의 나라로 노래 듣고 가사 중 가장 마음에 와 닿는 곳 이야기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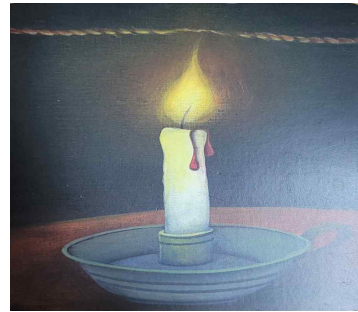
지각하여 이 부분은 참여하지 못함

4회차: 행복의 나라로 시 고치고 싶은 부분 고쳐 쓰기

밤과 하늘과 바람 안에서 아들과 딸과
비와 천둥의 소리 이겨 춤을 추면 좋겠네 오늘 여기서 지금 이 순간

7회차 지금 현재 나의 상황과 가자 비슷한 이미지 고르기

빨리 다 타고 죽었음 좋겠다. 그러고 30년 전에 패
쇄 병동에 같이 입원했던 분이 전화를 했다. 그 분이
불치병에 걸렸고, 지금 안 좋은 많은 상황얘기들을 들
었다. 그래서 좀 그랬다. 내가 견디는 힘이 떨어지니까
세상을 하직하고 싶다.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니까 나는 죽는다 그래서 뭐가 아쉽고 누구와의 관
계 정리하고 그런 거 없다.



나는 죽어도.. 좋은데 가니까 아버지 계신데 가니까, 정신적으로도 약한데 육체적
으로도 하루 종일 아프니까 고문 당하는 거 같다 약이나 주사 다 안 된다. 빨리
세상을 하직하고 싶다. 감사하게도 나는 불평을 많이 안 해요 주어진 환경을 받아
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이제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관계나 모든 것에 여기까지만 하자 경계를 정해요 옛날엔 나를 비난했어요
이제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해졌어요

7회차: 듣기 힘든 말을 들었을 때 나의 반응 “너 그렇게 밖에 못하니?”라는 말
을 들었을 때 나의 반응 써보기

→ 그러는 너는

8회차: 나의 잘못된 핵심신념을 의식하고 공감으로 보아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자신에 대한 생각: 나는 불평등에 예민한 사람이다.

-타인에 대한 생각: 이기적이면서도 이타적인 것을 대접을 좋아한다.

-삶(인생/세상)은: 연극이다

-나의 잘못된 핵심신념 만나기

1) 자극 관찰: 최근 힘들었던 상황을 최대한 관찰로 적어본다.

누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나?

- 저녁시간에 아들이 지금 냄새나게 음식을 꼭 만들어야 하느냐고 말했을 때

2) 이 말에 대한 나의 판단 생각들

나는 하기 싫는데 그나마 지금 안하면 못할 것 같아서

니가 해줄래 아니면 잔소리 하지 말아

내가 니 컨디션 맞춰서 해야 하나

나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

통증 때문에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죽고 싶다.

- 3) 가장 자극 받는 말
냄새나는데
- 4) 나의 몸: 두통, 가슴이 터질 것 같다. 숨 막혀서
나의 마음: 힘들다.
- 5) 과거에 4)번의 몸과 마음상태와 같이 느꼈던 가장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린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물난리가 났을 때 남동생을 업고 강을 건너야 했다. 물이 목까지 차는데 남동생을 데리고 힘을 다해 강을 건너가야 했다. 아들만 위하는 엄마 생각을 하면 지금도 머리가 지근지근하고 온몸이 아프다.
- 6) 그때의 어린 아이는 어떤 생각을 했나요? 가장 핵심적인 생각, 신념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본다.
핵심 신념: 나는 해내야 한다. 뭐든지 주어진다면 죽을힘을 다해 해내야 한다.
- 7) 이 생각을 알게 모르게 믿으며 살아 갈 때 내 몸과 마음은 어떻게 느끼나요?
몸: 죽을 것 같고 너무 힘들다
마음: 무섭고 두렵다
- 8) 이런 느낌으로 살 때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않나요?
편안함, 안정감, 쉬고 싶은 욕구 >> 사랑, 평화, 자유
- 9) 이 욕구가 실현됨을 상상해 보고 1)번의 자극을 다시 본다. 그 자극을 볼 때 어떤가요?
푸른 초원, 맑은 날씨에 나 혼자 초원에 대자고 드러누워 있다. 지나가는 바람을 온몸으로 느끼고 싶다. 오롯이 나 혼자 흰옷을 입고, 기분 좋은 산들바람
아들이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는 나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책임지고 살기를 원한다.
- 10) 지금 느낌은 어떤가요?
답답하다
- 11) 핵심신념이 사실인가요?
아니다. 책임질 수 있는 만큼만 책임진다.
- 12) 이 핵심신념이 사실이라고 믿고 내가 살아 갈 때, 나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나요?
강요한다.
- 13) 이 신념이 없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되게 자유로운 사람, 남의 눈을 크게 의식하지 않을 것이다.
- 14)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힘든 책임감이)
- 15) 나의 잘못된 핵심신념을 의식하고 공감으로 보아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한 소감
애썼다. 관촬아질거야. 잘할 거야, 못해도 관촬아

○ 집단원 C 40대

1회기: 지금 나의 상황과 가장 비슷한 사진을 고르고 프로그램 참가 동기 이야기하기

제 문제가 좀 있었 어서 미술치료 상담을 받았고 효과가 좋았고 그 선생님이 이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셨다. 저는 달을 보는 사진인데요 초연해진 마음으로 참가했구요, 자신도 잘 보고 여러분들 만나면서 다른 시각도 갖게 되길 바랍니다.



2회기: 가요 행복의 나라로 노래 듣고 가사 중 가장 마음에 와 닿는 곳 이야기하기

“접어드는 초저녁 누워 공상에 누워 생각에 도취 했소”가 마음에 와 닿았다. 왜냐하면 요즘 정신이 들락날락해서 책을 못 읽었는데 요즘 이 프로그램을 하고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책을 읽었는데 초저녁 노을 질 때 책을 읽었던 그때가 좋았어 서 이 구절이 마음에 들었어요.

4회차: 행복의 나라로 시 고치고 싶은 부분 고쳐 쓰기

바다위로 나를 걷게 해 주세

빛소리 듣고 싶소

평화롭고 싶소 내 마음을 만져줘

접어드는 초저녁 누워 공상에 들어 별에 도취했소

벽에 작은 창가로 흘러드는 산뜻한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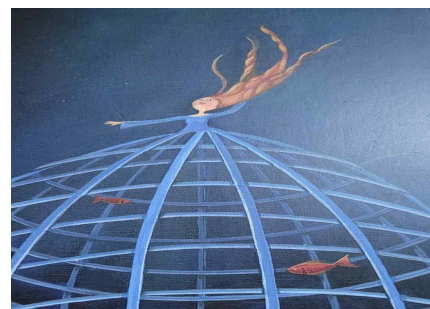
아 나는 살겠소 바람만 분다면

밤과 하늘과 바다 안에서

비와 소리 이겨 낮잠을 잔다

7회차 지금 현재 나의 상황과 가자 비슷한 이미지 고르기

지금 현재 5명이 팀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24살까지 차이가 난다. 그 중 2명이 싸움을 하는 데 가장 어린 분에게 나이 많은 분이 심한 말을 하셔서 그것을 중재하는게 힘들었다. 이 사진은 내가 물속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다.



내가 아무리 모자라도 그 나이 많은 말 심하게 하는 분 같이는 안한다 라는 이야기 함

7회차: 듣기 힘든 말을 들었을 때 나의 반응 “너 그렇게 밖에 못하니?”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의 반응 써보기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물어보고 즉각 반박하지만 (10프로) 화를 내지는 않는다. 속으로는 수치심이 들어 견디지 못하고 괴로워한다. 그 말을 계속 생각하면서 자기 검열에 빠지고 행동에 제약을 둔다. 비슷한 비난을 받게 되면 쉽게 기가 죽고 회피하기 위해 관계를 끊거나 멀리하려고 애쓴다.

○ 집단원 D 40대

1회기 지금 나의 상황과 가장 비슷한 사진을 고르고 프로그램 참가 동기 이야기하기

저는 곤돌라사진을 골랐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이탈리아에 공부하러 갔을 때 공부만 하고 와서 제대로 관광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지금 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점점 저의 싱그럽고 예쁜 모습을 보여드리기를 희망합니다.



2회기. 가요 행복의 나라로 노래 듣고 가사 중 가장 마음에 와 닿는 곳 이야기하기

가사 중 “청춘과 유혹의 뒷장 넘기며 광야는 넓어요 하늘은 또 푸러요” 가 마음에 와 닿는다. 나는 지금 직업적으로 실업의 단계로 가고 있다. 평소에 머리로 젊게 하고 청춘처럼 살았지만 내가 중년인 것을 인정해야 하는가? 그래도 나는 나대로 나를 인정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4회차: 행복의 나라로 시 고치고 싶은 부분 고쳐 쓰기

제목: 자연 속 기쁨을 노래하는 삶으로

커튼을 열어라 너의 시야를 넓히고 이 세상을 다시보자!

가벼운 풀밭위로 나를 걷게 하겠네

가슴을 활짝 펴고 여름 숲속의 공기마시고 싶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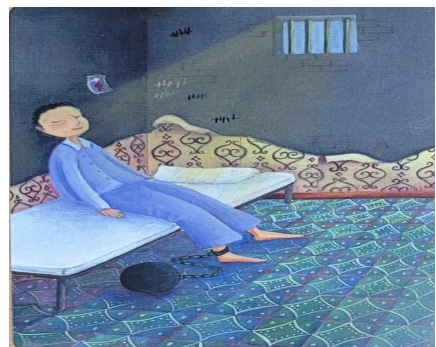
가을 단풍 취하고, 낙엽에 울고 싶소

겨울 눈발 걷고 싶소

피아노 치고 노래하리 나는 행복의 시간을 만들 거야

7회차 지금 현재 나의 상황과 가자 비슷한 이미지 고르기

이것을 골랐는데 이렇게 무기력이 잘 없어지지 않고 가만히 쉬고 싶은데 교회 분들이 밥을 먹자 해서 먹고 집으로 와서 쉬었다. 신앙인들은 새벽 예배를 권하시는데 저는 저를 볼 때 그렇게 해서 활력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쉬을 원한다. 나는 무슨 병이 있을 수도 있고 심리적 우울감일 수도 있는데 주변 분들이 자꾸 나를 꺼내려고 하는 게 힘들어요. 밥 먹자는 사람 등 힘들어요.



이번 주 엄청 큰 사건이 있었어요. 신랑이 애한테 막말하고 언어폭력하고 18년을 주말부부하고 있어요. 선보고 결혼 한 건데 이제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런 시기가 이제 왔는데 신랑과 싸웠다. 그리고 30년 된 동창들과 의견차이로 힘든 일이 있어서 내가 울고불고 했다. 내가 단체톡 방을 나오는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지금 현재 자정 적으로 힘이 올라오질 않는다. 제가 화를 폭발을 했다. 다행이도 친구들이 단톡에 다시 초대를 해주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어떤 감정을 표현 할 때 이것을 잘 조절하고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폭발할 때 폭언을 한다. 오늘 나오고 싶진 않았지만 노력을 해야 하니까 나왔습니다.

7회차: 듣기 힘든 말을 들었을 때 나의 반응 “너 그렇게 밖에 못하니?”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의 반응 써보기

당황하면 반박 못하지만 순간 반박하는 것은 30프로 정도이다. 기분이 상하여 노여워하거나, 표현 할 수 없을 때는 돌아서서 나 자신을 자책하며 그런 나를 비난 받는 자신에게 자학과 스트레스를 느끼고, 비난한 사람에게 노여움을 가지고 잠을 설치고 힘들어 한다. 따졌다면 곧 가라앉겠지만 스스로 속앓이를 한다면 인연을 끊어 그 사람과 멀어지거나 상대를 이해했다면 자책과 수치심으로 힘들어 할 때가 많다.

4. 나가며

우리는 태어나면서 부터 어떤 경로로든 내가 경험한 사건들이 해석되어진 이야기 (story)들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그 문장들을 나에게나 상대에게 무의식적으로 쏟아 내며 산다. 그것이 곧 그의 삶이 되고 관계가 된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사전검사로 진행된 자아 존중감 검사 10문항 중 한 문항의 문장은 “나는 내가 결국 실패했다. 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이다 이 문항에서 8명의 집단원 중 자아존중감 검사 합계점수가 가장 낮은 3명의 내담자는 이 문항에서 매우동의에 1명 동의에 2명이 체크 하였다. 이 문장에 동의하며 그것이 맞다. 라고 믿으며 살아 갈 때 그 내담자는 자신이 삶에서 마주하는 도전에 대처하기고 힘들 것이다.

연구자는 중년여성의 자아 존중감 향상을 목적으로 비폭력대화를 기반으로 한 인문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처음 진행 당시에는 12명의 집단원으로 시작하였다. 그 중 2명은 코로나 감염과 직장관련 일로 2회 결석하여 기록에서 배재하였으나 9회기와 10회기는 참석예정이다.

회기 중 프로그램을 그만 둔 1명은 직장일로 그만두었고, 1명은 3회기 진행 중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쉼어링하며 이야기하는 도중 그의 순서가 아님을 연구자가 이야기한 후 섭섭함을 드러냈다. 후에 우울한 마음과 직장의 과한 업무를 이유로 프로그램에서 하차하였으나 연구자는 이 부분에 대한 연구자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회기 초, 중기에 집단원들의 문장이나 글에서 드러났던 글들은 죽고 싶다. 하직하고 싶다. 나는 모자란 사람이다, 막막하다, 무기력하다,

수치심과 자책이 올라온다, 나는 게으르다. 등 이었다. 회기 말로 갈수록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시원하다. 후련하다. 잘 살 거 같다, 애썼다, 괜찮아질거야, 잘할 거야, 못해도 괜찮아, 마음속 깊은 속마음을 드러내니 시원하다, 나는 여유로운 사람이다, 행복합니다, 편안합니다. 등의 문장을 쓰고 이야기 했다. 회기 후기로 갈수록 집단원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자신을 자책하기보다는 자신의 느낌이나 욕구에 민감해지고 자신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 하는 것이 늘어났다. 한 집단원은 7회기 이후에 “내가 딱 지처럼 뒤집어졌다. 나는 잘 살 거 같다.”라고 표현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현재 8회기를 진행하였고 사전검사만 진행한 상태이지만 결론적으로 비폭력대화를 기반으로 한 인문치료 프로그램은 중년여성의 자존감향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었음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싶다.

■ 참고문헌

- 강신익외. 『인문예술치료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2020
-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치료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2017
- 너세니얼 브랜든. 김세진 옮김. 『자존감의 여섯 기둥』. 서울: 교양인, 2015.
- 마셜 B 로젠버그 캐서린 한 옮김. 『비폭력대화과 영성』. 서울: 한국 NVC센터, 2015
- 마셜 B 로젠버그. 『비폭력 대화』. 서울: 한국 NVC센터, 2017
- 마셜 B 로젠버그 캐서린 한 옮김. 『삶을 풍요롭게 하는 교육』. 서울: 한국 NVC센터, 2016
- 슈테파니 슈탈. 『심리학 자존감을 부탁해』. 도서출판 갈매나무, 2016
- 윤홍균. 『자존감 수업』. 심플 라이프, 2018
- 이우경. 『문장완성검사의 이해와 활용』. 서울: 학지사, 2021
- 에이미 커디. 이경식 옮김 『자존감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주)알에이치 코리아, 2015
- 제임스 페니베이커. 이봉희 옮김. 『글쓰기 치료』. 학지사, 2007

1. 들어가며

영화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정원(Attila Marcel)(2013)'은 프랑스 영화 감독인 실뱅 쇼메(Sylvain Chomet)의 작품으로 국내에서는 2014년에 개봉하였다. 실뱅 쇼메의 작품에 대해 고찰한 국내의 선행연구(양현정, 2013)에 따르면, 그는 환상이 가진 초월적 성격을 작품에 잘 활용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쇼메의 작품에서 '환상성'이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한데, 작품에 나타난 환상성은 근원적인 그리움과 울림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정원'은 곳곳에 등장하는 뮤지컬 요소뿐만 아니라,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시공간적 배경을 연출함으로써 쇼메 특유의 '환상성'을 잘 드러내는 작품이다. 이러한 환상성을 내포하는 장치들은 주인공 폴 마르셀의 내면세계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상징들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본 영화는 부모님과 '참 자기(self true)'의 상실로 인한 주인공의 아픔과 그리움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폴이 마담 프루스트라는 인물을 만나 점차 '중간대상(transitional object)'을 통해 상실을 극복해나가는 치유의 과정을 담고 있다.

본 작품은 현실과 환상의 교차점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널드 위니캇의 핵심 이론인 '중간대상(transitional object)' 또는 '중간현상(transitional phenomenon)'과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다. 위니캇은 '중간대상'과 '중간현상'이 환상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중간 영역은 내적 실재인지 외적 실재인지에 관해서 도전받지 않는 영역이며, 유아기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을 통해 예술, 종교, 상상력 있는 삶 등의 경험 안에서 지속된다(Winnicott, 이재훈 역, 1997: 32). 이와 같은 경험들은 본질상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독립하면서 발생하는 근원적인 그리움과 상실감을 '달래주는 것'⁵⁵⁾이며, 한편으로는 개인이 자아를 발견하는 창조적 자기 탐색의 과정이기에(Winnicott, 이재훈 역, 1997: 90) 치유적 속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위니캇의 제자였던 마수 칸(M. Masud R. Khan)은 위니캇의 핵심 이론인 중간대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중간대상의 개념을 통해 정신분석적 사고는 문화를 불만의 원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 경험을 증진시키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요소로 재평가할 수 있었다(Winnicott, 이재훈 역, 2011: 24)." 마수 칸의 설명처럼 위니캇은 문화 경험이 자기(self)의 발달과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 주목하였고, 그 필요성을 초기 유아의 경험과 관련지어 설명하였다.

본 영화에 나타난 등장인물의 이미지를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근거하여 분석한 연구로는 문미영(2022)과 황진희, 이승연(2017)의 연구가 있다. 프로이트의 이론에 따

55) 본문에서 '달래주는 것'은 후에 언급될 '위로하는 것'과 구분되는 개념이기에 특별히 강조하였다.

라 부자 관계를 중심으로 인물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와는 달리, 이 연구에서는 위니캇의 이론에 따라 모자관계를 중심으로 성장과 치유과정을 설명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따라서, 이는 영화에 나타난 치유와 성장 과정을 좀 더 입체적이고 다각적으로 해석해볼 수 있는 새로운 시도가 될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는 한 개인이 중간대상을 경험하는 과정에 수반되는 성장의 의미를 발견하고, 문화 경험과 치유 간의 관계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본문에서는 먼저 폴의 내면 상태를 진단하고 그 원인과 배경을 파악할 것이다. 그 후에는 폴의 내면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통해 도출한 개인의 성장과 치유에 대한 시사점과 논문의 한계점 및 제언을 제시하며 결론을 맺고자 한다.

2. 주인공 폴의 상태에 대한 진단과 그 원인에 대한 분석

두 살 때 불의의 사고(부실 공사로 인한 압사)로 부모를 잃은 주인공 폴 마르셀은 쌍둥이 이모에 의해 길러진다. 폴이 부모의 죽음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는 바는 없다. 그 누구도 부모의 죽음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쌍둥이 이모는 폴이 서른이 넘도록 함께 지내며 그를 귀족 가문에 걸맞은 최고의 피아니스트로 만들고자 노력해왔다. 폴의 어머니는 폴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길 바랐지만, 쌍둥이 이모는 폴이 아기였을 때부터 피아니스트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온 인물이다. 그리고 그들은 성인이 된 폴을 지나치게 보호하고, 간섭한다. 예를 들면, 폴이 33살의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쌍둥이 이모는 그가 혼자 외출할 때 반드시 문 옆 칠판에 목적지를 적어 놓게 한다. 만약 그것을 어기면 그들은 매우 초조해하며 폴을 다그치는 모습을 보인다. 폴은 이모들이 계획한 삶에 순응하며 피아노 콩쿠르를 위해 연습하고, 그들이 운영하는 댄스 교습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해주며 하루하루 무미건조한 삶을 이어간다. 폴은 기술적으로는 피아노를 잘 칠지 몰라도, 자신의 감정이나 마음을 담아 연주하지 않는다. 영화에서는 우울하고 무표정한 얼굴로 남을 위해 기계적으로 연주하는 폴의 모습이 반복되어 나온다. 또한 폴은 영화가 진행되는 내내 말을 하지 않는다. 영화 초반부에서 폴이 아기였을 때 웅얼이를 한 장면 이후로 폴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은 채 살아간다. 이는 폴의 성장이 웅얼이하던 시기에서 멈춘 것을 나타낸다. 즉, 폴이 현재 성인이기는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아직 유아기 상태에 머물고 있음을 뜻한다. 폴의 방에서 관찰되는 곰 인형, 모빌, 장난감 등의 물건들 또한 이러한 사실을 나타내준다. 위니캇은 적절한 모성 돌봄 환경이 있을 때 유아가 부모로부터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시기에서 차츰 벗어나 최종적으로 독립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초기 유아는 절대 의존기, 상대 의존기, 독립기를 거쳐 자기(self)의 성장을 이룬다. 이 때 절대 의존기와 상대 의존기 사이에는 중간 영역이 존재한다. 이 중간 영역의 경험을 서술하기 위해 위니캇은 ‘중간현상(transitional phenomenon)’과 ‘중간대상(transitional object)’이라는 용어를 도입했다.

유아의 웅얼이와, 시일이 좀 더 지나면서 아이가 잠들기 전에 부르는 온갖 종류의 노래와 곡들이, 그리고 유아의 몸의 일부는 아니지만 아직 외적 실재에 속한 것으로 완전히 인식되지 않는 대상들의 사용에 관한 것들 모두가 중간현상의 영역에 해당된다.(Winnicott, 이재훈 역, 1997: 15)

폴의 방에 있는 곰 인형과 장난감 등은 대표적인 중간대상들로서, 보통의 경우 유아는 서서히 그것에 대한 흥미를 잃어 간다. 그것이 의미를 상실하는 이유는 중간현상이 확산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내적 정신 실재'와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지각하는) 외적 세계' 사이에 있는 중간영역 전체로, 문화 전반의 영역으로 퍼지기 때문이다(Winnicott, 이재훈 역, 1997: 20). 그러나 폴의 경우 여전히 유아기적 중간대상을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절대 의존기에서 상대 의존기로의 발달 사이 단계에 고착된 폴의 자기(self)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언어는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도구이다. 폴이 언어(말)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그에게 자기표현 능력 및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되지 않았음을 알려준다. 자기표현 능력은 자발성과 창조성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러므로 폴은 자발성과 창조성이 결여된 상태로 쳇바퀴 도는 삶을 살아간다고 진단해볼 수 있다.

위니콧은 창조의 개념을 예술작품에만 국한시키지 않았다. 즉, 창조성은 소수의 예술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인 것으로 그림, 집, 정원, 의상, 머리 스타일, 요리 등의 일상적인 부분들에서도 창조가 일어난다고 보았다(Winnicott, 이재훈 역, 1997: 112). 그러나 폴의 일상에는 이러한 자신만의 개성이 드러나는 부분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위니콧은 창조적인 삶이 유아 초기 단계에서 부여받은 환경 제공의 질과 양에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주장하며, 초기 양육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2살 때부터 쌍둥이 이모들에 의해 자기애적 침범을 받아온 폴은 거짓 자기(false self)가 참자기(true self)를 완전히 대체한 상태로 볼 수 있다. 이 상태의 특징으로는 자발성 상실, 모방, 순응의 삶 등이 있다. 지나치게 거짓 자기가 발달한 사람들은 타인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 영화에서 폴은 그 누구와도 깊이 있는 관계를 맺지 않은 채 피상적인 인간관계만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위니콧은 정서적 발달이론을 자기(self)의 발달에 기초하여 설명하였다. 그는 초기 유아의 자기는 아직 통합되지 않은 '타고난 잠재력(성장과 발달의 경향성)' 수준에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점차 적절한 모성 돌봄(부모 돌봄)을 통해 통합된 하나의 단위로서의 자기(self)로 성장·발전해나간다고 보았다. 이때, 통합된 단위로서의 '최초의 자기'가 바로 '참자기(true self)'이다. 참자기는 존재의 핵심(kernel)에 머물며, 창조성과 자발성의 원천이므로 삶을 생생하게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 반대로, 이러한 참자기를 위협하는 침범(어머니의 자기애적 침범)이 있을 때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자기를 '거짓 자기(false self)'라고 부른다. 거짓 자기는 참자기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순기능을 하기도 한다.⁵⁶⁾ 하지만 지나친 거짓 자기는 한 인간을 삶의 주인으로

서, 주체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든다. 위니콧은 이처럼 지나치게 거짓 자기가 강화되어있는 모습을 병리적 현상으로 보았다.

사람들은 (중략) 분열성 인격 또는 정신분열증 환자일 수 있다. 그들은 약한 현실감 때문에 정신의학적으로 병자일 수 있다. 이 진술과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객관적으로 지각된 실재에 너무 확고히 닳을 내리고 있음으로써 주관적 세계와의 접촉을 잃어버리고 사실에 대한 창조적 접근을 잃어버린, 그 반대 방향에 있는 병자들도 있다고 진술해야 할 것이다.(Winnicott, 이재훈 역, 1997: 110)

심각한 경우에 개인은 자신이 살아 있는지 아니면 죽어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마음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한 개인 안에 강력하게 구조화되어 있다면 자살도 대수롭지 않은 것이 되고, 심지어 무엇이 상실되고 빠졌는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어지게 된다.(Winnicott, 이재훈 역, 1997: 113)

위에서 말한 상태는 프로이트가 「슬픔과 우울증(Trauer and Melancholie(1917[1915]))」에서 언급한 우울증의 상태, 즉 자신이 상실한 것이 무엇인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와 같다고 할 수 있다(지그문트 프로이트, 2020: 247). 우울증은 자기 비난과 자기 처벌을 특징으로 한다. 위니콧은 참 자기의 상실을 양육자(외부 환경)의 침입에 의한 것으로 보았지만, 프로이트의 이론에 근거해보면 참 자기를 침입하는 존재는 자신 내부의 존재(초자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추론해볼 수 있다. 본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에 내포된 역할 의미를 프로이트의 2차 정신기구모델인 이드(Id), 자아(Ego), 초자아(Super-ego) 구조에 근거해 분석한 선행 연구들(문미영, 2022; 황진희, 이승연, 2017)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이모들을 폴의 내면에 있는 초자아(Super-ego)의 상징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외부 세계에 실재하는 양육자로서의 이모들뿐만 아니라 폴의 내면에 있는 초자아 또한 폴의 참 자기를 침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폴의 내부에서 작용했던 죄의식은 자신의 어머니를 아버지로부터 지켜내지 못했다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폴의 기억 속의 아버지(아틸라 마르셀)는 어린 자신에게 화를 내고 어머니에게 폭력적인 존재였다. 폴은 영화 초반부에서 아버지가 어린 자신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는 듯한 악몽을 반복해서 꾸다. 그리고 어렴풋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을 기억함으로써, 어머니의 죽음이 아버지의 폭력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믿고 있다. 폴은 이처럼 성인이 되어서도 어머니의 죽음이 아버지의 폭력 때문이라고 믿고 아버지를 미워하며 살아간다. 그가 책상 서랍 한쪽에 보관해둔 신문은 폴이 왜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설명해준다. 신문에는 “‘아틸라 마르셀’과 ‘빌레트의 도살자’ 대결”이라는 문구와 함께 무서운

56) 순응하는 거짓자기는 아주 중요한 긍정적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환경(어머니)에 순응함으로써 위협에 처한 참자기를 숨기는(보호해 주는) 기능이다. 위니콧은 극단적인 거짓자기, 방어로서 거짓자기, 동일시로서 거짓자기, 건강한 거짓자기 등 다양한 수준의 거짓자기가 있다고 보았다(최영민, 2021: 485-493).

표정을 한 아버지의 사진이 실려있다. 풀은 이 기사로부터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게 만든 인물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 풀이 보관하던 기사는 사실 아버지 아틸라의 프로 레슬링 경기에 관한 소개 기사였다. 풀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프로 레슬러였으며, 쌍둥이 이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꿈을 개척해나갔던 인물들이었다. 풀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가하고 죽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다. 그 결과, 그는 부모님과 자신이 함께 나온 가족사진에서 아버지만 오려내어 따로 안 보이는 곳에 보관해두었고, 늘 상실한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깊은 우울감에 빠져 지내고 있었다.

종합해보면, 풀이 심각한 우울감과 무력감을 느끼는 원인은 ‘극단적인 거짓 자기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유아기에 겪은 부모의 갑작스러운 상실⁵⁷⁾’로 정리해 볼 수 있다. 풀은 부모의 죽음에 대해 아직 애도하지 못한 상태로, 그의 왜곡된 기억이 애도 과정을 방해하고 있다.

3. 풀의 치유 과정에 대한 분석

우울로 점철된 풀의 삶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바로 풀과 같은 건물 4층에 사는 마담 프루스트를 만나게 되면서부터이다. 6층에 사는 풀은 평소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였으므로 4층에 갈 일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 계단으로 다녀야 하는 상황에 놓이며 우연히 4층 마담 프루스트의 집에 방문하게 된다. 그곳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텃밭이 있었다.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건물에 다채로운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 모습은 그곳이 생명력과 창조성이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풀은 쌍둥이 이모들의 눈을 피해 이곳을 비밀스럽게 왕래하며 유아기에 이루지 못한 정신적 성숙을 재개한다. 이 과정은 정신분석에서의 치료 과정에 빗대어 볼 수 있다. 정신분석은 문제가 있던 단계로의 퇴행을 필요로 한다. 문제가 생긴 그 지점에 해결의 실마리도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마담 프루스트가 풀의 방 열쇠를 가져가 그의 방을 둘러보는 모습은, 환자의 내면을 진단하는 분석가의 모습과 닮아있다.

3.1 중간영역으로서의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정원’

마담 프루스트의 집을 방문한 풀은 그녀로부터 차 한 잔과 마들렌을 대접받는다. 그러자 그에게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차와 마들렌을 먹고 나서 풀은 눈을 뜬 채로 정신을 잃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는 꿈을 꾸듯이 과거 유아기 때의 한 장면 속으로

57) 위니콧은 상실감 자체가 한 사람의 자기경험을 통합시키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며 인간의 성숙을 위해 상실과 좌절의 경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시간의 문제와 관련하여 유아기 부모가 함께 있을 수 없음으로 해서 겪게 되는 좌절은 점진적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만약 유아가 그의 정신 내적 실재 안에서 살아 있는 사람으로 엄마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미쳐 건설하기 이전에 엄마의 죽음(상실)이 발생하면 관계의 부정적인 면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Winnicott, 이재훈 역, 1997: 42-44).

돌아가 잃어버린 기억을 마주하게 되는 경험을 한다. 알고 보니, 마담 프루스트는 이처럼 자신의 비밀정원에서 과거의 기억을 재경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그 기억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차를 팔고 있었다. 이 장면은 프랑스의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Marcel Prust)의 저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주인공이 홍차와 마들렌을 먹고 그 향기와 관련된 과거를 회상하게 되는 것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⁵⁸⁾ 영화에서는 차와 마들렌뿐만 아니라 과거의 기억과 관련된 음악도 기억을 떠올리는 데 중요한 매개체로 등장한다. 우리는 여기서 폴에게 제공되는 음악에 가사가 없다는 점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언어는 고도로 이성화된 상징물이다. 아직 말을 하지 못하는 폴에게 프루스트가 가사 없는 음악을 제공한 것은 폴을 단계적으로 치유해나가기 위한 그녀의 의도로 보인다. 가사가 없는 음악은 언어화되기 이전의 원초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데 언어(말)보다 효과적이다. 프루스트는 폴이 언어 이전의 상태(옹알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므로, 가사 없는 음악을 제공한 것이다. 마침내 폴은 맨 마지막 기억 회상에서 가사가 있는 음악을 기억의 매개체로 활용한다. 이는 폴이 말을 할 수 있게 된 시점과 맞물리며, 폴의 내면이 성장하였음을 은유적으로 나타낸다.

마담 프루스트의 정원은 강압적인 이모들의 감시가 없는 공간으로 폴에게 안전한 공간이었다. 폴은 이모들로부터 자신의 동선을 들키지 않기 위해, 프루스트의 정원에 있던 채소들을 집으로 가져가 시장에 다녀온 것처럼 한다. 이는 폴이 과거 극단적인 거짓 자기의 상태에서 한 단계 나아가 방어로서의 거짓 자기 단계로 성장했음을 의미한다. 방어로서의 거짓 자기 상태에서는 거짓 자기가 참자기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방어한다. 겉으로는 거짓 자기의 삶을 살아도 비밀스러운 삶을 유지하며 자신만의 방법으로 참자기를 지켜내는 모습을 보인다. 폴에게 비밀정원은 부모의 상실을 애도하며 치유가 일어나는 공간이기도 했다. 따라서,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정원은 위니콧이 말했던 ‘중간 영역’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유아는 생애 초기에 경험했던 ‘전능 환상(유아 스스로 젖가슴을 파괴하고 창조할 수 있다고 믿는 환상)’을 재경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신에게 최초의 만족을 주었던 ‘어머니의 젖가슴’⁵⁹⁾을 대체하는 첫 소유물인 ‘중간대상(transitional object)’을 갖기 시작한다. 유아는 중간대상을 통해 자신의 무너졌던 창조성을 회복하고, 상징화 작업을 통해 어머니의 부재를 견딜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볼 때 상징화 능력은 대상의 부재(상실)를 견디게 해준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애도 작업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폴이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정원에서 안전하게 과거에 대해 회상하고 상상하는 장면은 중간 영역이 지닌 치유의 성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폴은 지속해서 프루스트의 정원을 방문해 과거의 기억을 찾아간다. 과거를 돌아보는 일은 자기반성의 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폴에게도 점차 자기반성 능력이 생기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58) 마르셀 프루스트, 김영희 옮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1』, 민음사, 2012.

59) 위니콧은 ‘젖가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 대상이 젖가슴이라고 말할 때, 내가 생각하기에는 ‘젖가슴’이란 용어가 실제적인 신체를 상징할 뿐 아니라 돌봄의 기술을 상징하는 데에도 사용된다.”(Winnicott, 이재훈 역, 1997: 28)

3.2 충분히 좋은 어머니(good enough mother), 마담 프루스트

프루스트는 처음에 폴에게 필요한 차와 마들렌을 직접 제공해주지만, 이후 자신이 없더라도 폴 스스로 차와 마들렌을 먹을 수 있도록 한다. 암 투병 때문에 폴의 곁에 더 이상 있어 주지 못하게 된 프루스트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폴은 그간 그녀와 쌓았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그녀가 늘 자신과 함께 있다고 느낀다. 그래서 그녀 없이도 스스로 마들렌과 홍차를 먹고 기억을 회상하는 데에까지 나아간다. 이렇게 폴이 홀로 있을 수 있게 된 것은 과거에 끊어진 존재의 연속성(continuity of being)을 회복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과정을 도와준 프루스트는 폴에게 ‘충분히 좋은 어머니(good enough mother)’⁶⁰⁾ 역할을 해주었다고 할 수 있다. “엄마 또는 치료자의 사랑은 의존 욕구에 부응해 주는 것을 의미할 뿐만이 아니라 이 아기 또는 환자가 의존에서 자율로 나아가도록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을 의미한다(Winnicott, 이재훈 역, 1997: 173).” 이와 같은 위니캣의 설명을 통해 우리는 ‘충분히 좋은 어머니’, 그리고 ‘충분히 좋은 상담사’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프루스트는 폴의 성장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그녀는 극 중 시각장애인으로 나오는 코엘로와 둘이서 있을 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른이야 괜찮지만 애들은 병이 나거든. 부모의 죽음을 본 걸 죄다 잊었다고? 나는 그런 얘기 안 믿어. 죽음이 그 애를 못 살게 하는 게 아냐. 쳇바퀴 도는 삶이 문제지... 그 애에게 필요한 건 바로 충격이야. 어른들이 가만 놔두면 그 애는 평생 두 살로 살걸... 그 애에겐 뭐가 있어? 피아노랑 아름답고 슬픈 눈 빼고.”

위 대사 중 프루스트가 말한 폴에게 필요한 충격은 무엇이었을까? 폴은 아버지에 대해 왜곡된 기억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일차적으로는 그것을 깨기 위한 충격이 필요했을 것이다. 폴의 오해와 달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를 사랑하고, 폴을 사랑하였으며 쌍둥이 이모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기대와 시선보다는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며 살아가는 인물들이었다. 폴은 부모에 대한 오해를 풀고, 처음으로 행복한 눈물을 흘린다. 이를 통해 우리는 기억을 재구성하는 것이 치유의 과정과 맞닿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정신분석은 내담자가 기억하고 있는 문제적 스토리(기억)를 재구조화하거나 건강한 대안적 스토리(기억)로 대체해나가는 치료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이민용, 2013).

3.3 놀이(playing)하는 폴

폴은 자신이 출연하는 콩쿠르 결선 대회 때 프루스트를 초대하지만, 그녀는 결국 참석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연주로 관중들로부터

60) 위니캣이 말하는 충분히 좋은 어머니(good enough mother)은 다음과 같다. “내가 말하는 충분히 좋은 엄마는 유아의 욕구에 거의 완전하게 적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의 실패를 다룰 수 있는 유아의 능력이 성장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덜 완전하게 적응해 가는 엄마이다.”(Winnicott, 이재훈 역, 1997: 27)

기립 박수를 받으며, 우승 트로피를 받는다. 그는 기존에 연습했던 것과 달리 연주 당일 클래식 곡을 재즈(jazz)로 변주하여 연주하였다. 정형화되고 틀에 갇힌 연주만 했던 폴이 자유롭고 열정적으로 재즈 음악을 연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아닌 ‘개구리 환상’ 때문이었다. 어느 때처럼 감흥 없이 연습한 대로만 연주하던 폴은, 경연 도중 갑자기 자신 앞에 나타난 개구리들과 함께 신명 나게 연주하는 경험을 한다. 이 개구리들은 콩쿠르 전 폴이 기억 회상을 통해 본, 유아기 장면에 나왔던 개구리들과 일치한다. 당시의 개구리들은 신나는 재즈 연주로 어린 폴을 즐겁게 해주는 존재, 즉 폴의 전능 환상의 일부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런데 곧 그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자(이 장면은 폴의 시각에서 이해한 장면이다. 사실 그의 부모는 프로 레슬링 공연을 위한 연습 중이었다.) 개구리들은 연주를 멈추었다. 이는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황 속에서 어린 폴의 전능 환상이 중단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콩쿠르에서 과거의 개구리 환상이 다시 등장했다는 것은 폴의 전능 환상이 재개되었음을 암시한다. 개구리는 폴짝폴짝 뛰며 앞으로 나가는 모습 때문에 창의성과 생명력을 연상시킨다. 더불어 분석심리학적 관점 및 모래 놀이치료 과정에서 보면, 개구리는 무의식 안에서 의식화되기를 기다리는 정신적인 내용을 표상하며 자기를 상징하고, 변화 및 변환을 예고하는 상징으로도 나타난다(한미현, 2017). 그러므로 본 장면은 중간 영역에서 자신의 창조성과 예술성을 마음껏 발휘하는 폴의 전능 환상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폴이 경험한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놀이(playing)⁶¹⁾는 예측 불가능한 것이며, 동시에 신명 나는 것이다. 이 같은 특징은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주관적인 것과 (환각에 가까운) 객관적으로 지각된 것(실제적인 또는 공유된 실재) 사이의 상호놀이에 속한 예측 불가능성으로부터 온 것”(Winnicott, 이재훈 역, 1997: 88)이다.

그런데, 이러한 놀이의 경험은 사실 중간현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위니콧은 “중간현상으로부터 놀이로, 놀이에서 공동의 놀이로,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문화 경험들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발달이 있다.”(Winnicott, 이재훈 역, 1997: 87)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문화 경험의 자리는 개인과 환경(처음에는 대상) 사이에 있는 잠재 공간에 위치하는데, 잠재 공간은 아기가 환경(양육자)에 대한 신뢰의 감정이 있을 때만, 즉 의존할 만함의 증거가 되는 확신이 내면세계에 자리 잡을 때만 발생한다(Winnicott, 이재훈 역, 1997: 161-162). 이를 보아 프루스트를 만나기 전까지 폴은 환경에 대한 신뢰의 감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원인은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한 결핍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폴은 프루스트의 비밀정원에서 그녀와의 신뢰 관계 경험을 통해 잠재 공간을 회복하여 진정한 의미의 놀이(playing)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잠재 공간의 사용이 개인 존재의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삶의 경험에 의해 결정된다는 위니콧의 주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필자는 앞서 중간 영역의 치유성에 대해 밝힌 바 있다. 놀이 또한 중간현상의 연장선에 있으므로 우리는 놀이가 곧

61) 위니콧은 그의 논문 「놀이와 현실」에서 놀이와 게임놀이를 구분하였다. 그에 의하면 게임놀이(play)는 말 그대로 게임을 하는 놀이를 뜻하며, 놀이(playing)는 일상에서 창의적인 경험인 이행기의 경험을 말한다.”(최영민, 2021: 504)

치유의 과정임을 추측해볼 수 있다. 더 나아가 문화 경험과 치유의 상호관계성도 이와 같은 흐름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3.4 폴의 애도와 치유, 그리고 성장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고, 아버지에 대한 오해도 풀린 폴은 행복해하지만, 그 행복은 지속되지 못한다. 폴이 받아들여야 할 두 번째 충격이 남았기 때문이다. 폴은 자신의 우승 소식을 알리기 위해 프루스트의 집을 찾아갔다가 그녀의 부고를 듣고 슬퍼한다. 그리고 마지막 기억 여행을 떠난다. 마지막 회상에서 그는 부모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고의 진실에 대해 알게 된다. 폴의 아버지의 친구였던 제제가 폴의 집을 공사하던 중,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천장이 무너져 위층 쌍둥이 이모의 집에 있던 피아노가 폴의 부모를 덮쳤던 것이다. 폴은 충격을 받고 자신의 부모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피아노에 스스로 손을 다치게 한다. 이러한 행동은 그동안 이모들의 요구에 순응한 채 살았던 과거와의 고리를 끊기 위한 폴의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신을 지배했던 거짓 자기와의 작별을 위한 폴의 결단을 의미하기도 한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이처럼 고통스러운 경험이다. 그러나 프루스트의 말처럼 이러한 충격 없이는 다음 단계로 성장하지 못하기에 꼭 필요한 경험이기도 하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폴은 피아노를 더 이상 치지 않는다. 그저 프루스트가 자신의 방에 정원을 가꾸었던 것처럼 피아노 위에 식물을 가꾼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폴이 더 이상 이모들이 원하는 바에 순응하지 않는 폴의 변화된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리고 그는 프루스트가 즐겨 연주했던 망가진 우쿨렐레를 손수 고쳐, 그녀의 무덤에 찾아간다. 폴이 프루스트의 부서진 우쿨렐레를 복원하고, 그것이 비를 맞지 않도록 가슴에 품어 보호하는 장면은 지금까지 프루스트에게 도움만 받던 모습과 대조를 이룬다. 따라서 이는 그가 위니콧이 말한 ‘관심의 단계(stage of concern)’로 나아갔음을 상징한다. 이 단계는 멜라니 클라인이 말한 우울적 자리⁶²⁾와도 연결된다.

두 가지 충격을 겪은 폴은 상실의 아픔을 음악(우쿨렐레 연주)으로 상징화하여 부모님과 프루스트를 애도한다. 폴이 부모의 죽음에 대해 진정으로 애도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억의 재구조화 작업이 필요했다. 이 과정에서 폴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분출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둘째, 상실한 대상을 상징화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폴은 기억의 재구성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기억의 상징화까지 나아갔기에 애도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치유의 과정은 정서의 분출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서의 소산 혹은 변형을 거쳐 새로운 언어적 담화(discours)로서의 대상(objet)을 창출하는 것(정락길, 2017)이기 때문이다. “그 애에겐 뭐가 있어?”라는 프루스트의

62) 폴이 가지고 있었던 증상로서의 ‘우울’과 ‘우울적 자리’는 구분되어야 한다. 위니콧은 정신의학에서 임상적으로 만나게 되는 우울증은 주로 ‘우울적 자리’와 관련된 유형이 아니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것은 탈인격화 또는 대상관계에서의 희망 없음과 더 많이 관련되어 있다. 또는 거짓자기의 발달에서 오는 허망감과 관련되어 있다. 이런 현상은 개인의 발달에서 우울적 자리가 확립되기 이전 시기에 속한 것이다(Winnicott, 이재훈 역, 2011: 522).” 정리하면 본 영화에서 폴은 우울증에서 우울적 자리(관심의 단계)로의 발달 단계를 거쳤다고 할 수 있다.

대사처럼 폴에게는 그간 돌아가신 부모를 상징화한 대상이 없었기에 그 상실감이 처리되지 못하고 깊고 만성적인 우울로 자리 잡고 있던 것이다. 본 영화에서 우쿨렐레는 표면적으로 프루스트의 죽음에 대한 애도의 상징으로 보인다. 하지만, 폴은 그와 함께 자기 부모의 죽음에 대한 애도, 그리고 자기 자신의 참자기를 잃어버리고 산 과거에 대한 애도도 동시에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상징화 능력이 타인과의 소통과 관계 형성을 위한 발판이 된다는 것이다. 상징을 통해 유아는 스스로 놀이를 즐길뿐더러 타인과의 놀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놀이를 통해 유아는 타인과 상징(또는 언어)을 공유하며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 위니콧에 의하면 놀이는 어려서부터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경험이며, 삶에서 놀이를 적절하게 활용하려면 삶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경험들을 모두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폴은 자신의 아픈 과거를 우쿨렐레를 통해 표현하였으며, 더 나아가 우쿨렐레를 가르치며 사람들과 소통하고 삶의 진정한 즐거움, 살아있음을 느낀다. 또한 자신에게 계속해서 다가와 주었던 첼리스트 '미셸'과도 깊은 관계를 맺고 부부가 되어 마침내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된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폴은 아기를 데리고 아내와 함께 자신들이 꿈꿨던 그랜드 캐니언(Grand Canyon)으로 여행을 떠난다. 이 장면은 폴이 어린 시절에 그랜드 캐니언 포스터 앞에서 웅얼이했던 첫 장면과 대구를 이룬다. 여기서 폴은 웅얼이하는 자신의 아이에게 “아빠”라고 하며 말을 가르쳐준다. 그동안 말을 하지 않았던 폴이 처음으로 말을 하는 장면을 통해 그의 내면이 치유되고 성장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웅얼이 단계에 멈춰있던 폴이 독립된 존재로 성장했음은 물론, ‘대상 사용’을 넘어 자신이 대상 사용의 대상이 되어주는 순환을 통해 부모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성장과 치유에 대한 두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는 인간 내면의 성장을 촉진하는 환경에 대한 것이다. 만약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자신에게 위안을 주던 슈케트(CHOUQUETTE)가 모자라지 않았다면 폴이 4층에 갈 일은 없었을 것이다(폴은 자신의 하나 남은 슈케트를 한 어린이가 먹어버리자 당황하며 슈케트를 구하러 나가다 우연히 프루스트의 방을 발견하게 된다). 엘리베이터는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목적지에 데려다주는 편리한 도구이다. 하지만 늘 정해진 장소로만 가게 한다는 점과 본인이 직접 두 발로 걸어가 볼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점에서 폴의 순응성을 부추기는 환경이기도 했다. 위니콧은 “완벽한 어머니는 유아를 거세하는 것보다 나쁘다.”라고 말한 바 있다. 여기서 완벽한 어머니는 충분히 좋은 어머니(good enough mother)와 대비되는 어머니로, 유아의 자기(self)의 성장을 저해하는 어머니를 말한다. 유아가 신호를 보내기도 전에 어머니가 알아서 욕구를 충족해주는 것은 유아가 주체성을 가지고 자기를 표현해 볼

기회를 갖아가기 때문이다. 이는 유아가 계속해서 융합 상태에 머물도록 퇴행을 부추긴다. 영화에 나오는 쌍둥이 이모들이 그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충분히 좋은 어머니는 유아의 자기(self)가 성장할 수 있도록 촉진적 환경(facilitating environment)를 제공해줄 수 있어야 한다. 즉, 지나치게 완벽한 돌봄 환경보다는 적당한 결핍이 있는 환경이 유아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진정한 자기를 만나는 여정은 결핍과 불편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만족스럽고 문제없었던 일상에 생기는 불균형과 불안은 자기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며, 성장과 치유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 폴 또한 결핍과 불편으로부터 자기 성장을 시작하였다.

둘째, 치유는 단순히 위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내면의 힘을 길러주는 작업이라는 점이다. 무의미하고 건조한 폴의 삶에 유일한 위안은 ‘슈케트(CHOUQUETTE)’였다. 슈케트는 빵의 한 종류로서 속이 빈 슈(chou)를 말한다. 위니캇은 중간대상에 관한 임상적 서술에서 중간대상 사용의 왜곡을 보이는 사례를 소개하였다.⁶³⁾ 여기서 그는 ‘위안을 주는 것(comforter)’과 ‘달래주는 것(soother)’을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그 둘을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는 ‘의미(또는 상징) 부여’라고 할 수 있다.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상실을 견뎌내는 힘은 상징화 능력으로부터 나온다. 폴이 즐겨 먹는 슈케트에는 어떠한 상징과 의미도 없었다. 즉, 상실한 대상에 대한 상징성이 부여되지 않은 것이었다. 따라서 폴에게 슈케트는 중간대상의 성질을 갖지 않은, 단순한 ‘위안을 주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성인의 경우에 우울감을 일시적으로 달래주는 약을 복용하는 행위에 빗낼 수 있다. 이처럼 의미와 상징성이 없는 대상은 중간대상으로서 기능할 수 없다. 겉은 달콤한 설탕이 감싸고 있지만 속은 비어 있는 슈케트의 형태는 대상의 ‘상징 없음’을 나타내는 ‘위안을 주는 것(comforter)’의 은유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치유가 필요한 이들에게 그들이 지금까지 의존했던 ‘위안을 주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자신만의 놀이(playing)를 즐기며 상처를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인간은 누구나 치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독립과 성장을 이루기 위해 상실을 감내해야만 하는 ‘분열된 주체의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존재가 삶에서 빚어낸 작품이 바로 중간대상이다(정락길, 2017). 중간대상은 인간의 보편적 상실을 치유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와 의미가 크다.

이상으로 위니캇의 대상관계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실뱅 쇼메 감독의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정원(Attila Marcel)’을 분석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영화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각 장면의 의미를 해석하였지만, 우리는 영화 작품을 경험하는 자체가 또 하나의 중간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⁶⁴⁾ 특히 쇼메 감독 영화의

63) Donald Winnicott 지음, 이재훈 옮김, 『놀이와 현실』, 한국심리치료연구소, pp. 21-23의 ‘두 형제’ 사례 참고.

64) 정락길(2017)은 작품을 경험하는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예술 비평에서 작품의 경험은 의미로 환원되지 않는, 하지만 의미를 거부하지 않는 어떤 깊은 경험의 과정이다. 그것은 순수한 지나감인데 이러한 의미에서 작품이란 대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이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영원히 미해결된 존재의 탐색이자 사유로서 존재한다. 치료에서의 전이대상이란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닐까?”

특징인 환상성은 중간대상으로의 몰입을 촉진하는 장치이기에 더욱이 주목할만하다.

사실 본 영화는 원제목 'Attila Marcel'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버지의 이름'이 갖는 상징성이 큰 영화이기도 하다(문미영, 2022). 따라서 모자 관계를 중심으로 어머니의 역할이 강조되었던 위니캣의 이론만으로 내용을 충실히 분석하기에 한계가 있었음을 밝혀둔다. 필자는 이 연구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분리하여 따로 연구하기보다 '양육자'라는 넓은 개념에서 부모의 역할을 포괄적으로 다루었지만, 향후 부모의 역할을 구분하여 좀 더 세심하고 깊이 있는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마르셀 프루스트, 김영희 옮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1』, 민음사, 2012.
- 최영민, 『대상관계이론을 중심으로 쉽게 쓴 정신분석이론』, 학지사, 2021.
- 지그문트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열린책들, 2020.
- Donald Winnicott 지음, 이재훈 옮김, 『놀이와 현실』,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7.
- Donald Winnicott 지음, 이재훈 옮김, 『소아의학을 거쳐 정신분석학으로』,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11.
- Michael Jacobs 지음, 김은정 옮김, 『아동정신분석의 거장 도널드 위니컷』, 학지사, 2014.
- 문미영, 「트라우마 극복을 통한 치유와 성장 -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정원을 중심으로」, 『한국프랑스학논집』, 118, 1-22, 2020.
- 양현정, 「실뱅 쇼메의 작품에 나타난 환상성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영상대학원, 2013.
- 이민용, 「스토리텔링 인문치료와 정신분석학 -프로이트의 ‘늑대 인간’ 치료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36, 631-660, 2013.
- 정락길, 「인문치료에서의 정서와 언어의 관계에 대한 성찰」. 『인문과학연구』, 52, 557-584, 2017.
- 한미현, 「‘개구리’ 상징에 대한 고찰」, 『모래놀이상담연구』, 13(2), 1-18, 2017.
- 황진희, 이승연, 「영화 이미지의 의미와 음악과의 상관관계 - 영화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정원>을 중심으로」,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7(10), 567-576, 2017.
- 실뱅 쇼메(Sylvain Chomet), 2013,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정원(Attila Marcel), 찬란.

Session 3

기조강연

기조강연 1. 호모내러티쿠스, 공존하는 시민의 인문학적 실천 연구

김영순(인하대학교 BK21 글로벌다문화교육연구단 단장)

기조강연 2. 지역재생과 문화의 중요성

김진영(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과 명예교수,
前 강원대학교 교육인문협력학과 BK21 교육연구단 단장)

2022 4단계 BK21 교육인문협력학과 국제학술대회(2022.11.04)

Homo Naraticus,
the humanistic practice of coexisting citizens

호모 내러티쿠스, 공존하는 시민의 인문학적 실천

김영순 (인하대학교 BK21 글로벌 다문화 교육연구단장)



공존인문학

- 개인화가 강화되어 갈수록 오히려, 자기에 대한 모든 문제는 세계와 나, 나와 타자 사이의 문제로 귀결됨
- 한 사람의 심리적 표상에는 다른 존재가 어떤 방식으로든 자리잡고 있기 때문임. → **공존의 이유**
- 공존을 이루는 과정 없이, 개인 혹은 자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움.
- 자기에 대한 문제는 언제나 타자를 지향하며 숙고 되고, 타자 지향은 타자의 문화에 대해 이해하는 것임.
- 공존인문학은 타자성과 상호교차에 대한 학문이며, 공존인문학의 실천은 상호문화소통이라고 봄.

남의 탓 → 자기의 탓

공존 인문학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 후설 - 타자경험의 습성화. 낯선 존재에서 친숙한 존재로.
- 부버 - 인간은 개체화될 수 없으며, 인격으로서 공존하는 '나와 너' 가 됨
- 바흐친 - 존재한다는 것은 교류하는 것.
- 헤겔과 호네트 - 인간은 상호 인정투쟁을 통해 공존.
- 리쾨르 - 인간의 정체성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유지됨.



후설



호네트



헤겔



부버

공존적 인간(시민)이란?

- 공존은 인간과 인간과의 공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 공존은 하늘과의 공존, 땅과의 공존을 모두 의미한다.
- 영, 육, 혼을 지닌 인간은 그 자체로 공존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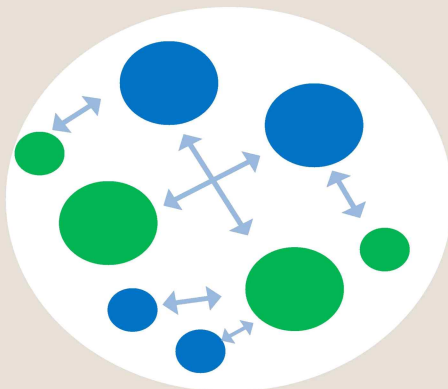
● 공존인문학의 지향점

사회적 차원	지속 가능한 사회
개인적 차원	문화다양성의 이해
학문적 차원	상호문화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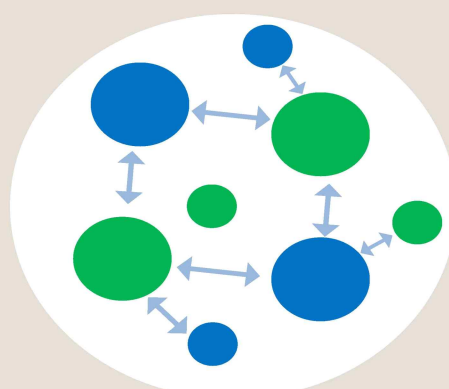


공존하는 시민의 개념 (1)

문화 A / 자연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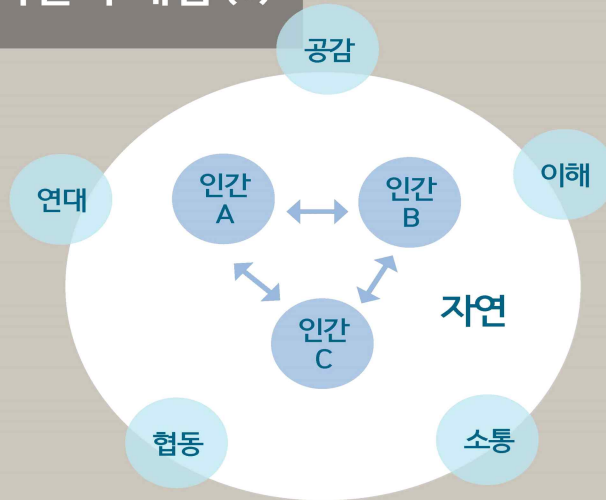
문화 B / 자연 B



공존하는 시민의 개념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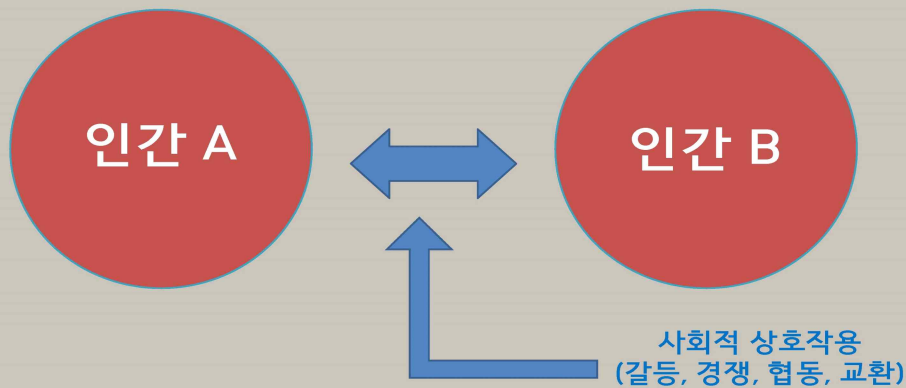


공존하는 시민의 개념 (3)



공존하는 시민의 개념 (4)

공존: 정적인 개념이 아닌 동적인 개념



공존하는 시민의 개념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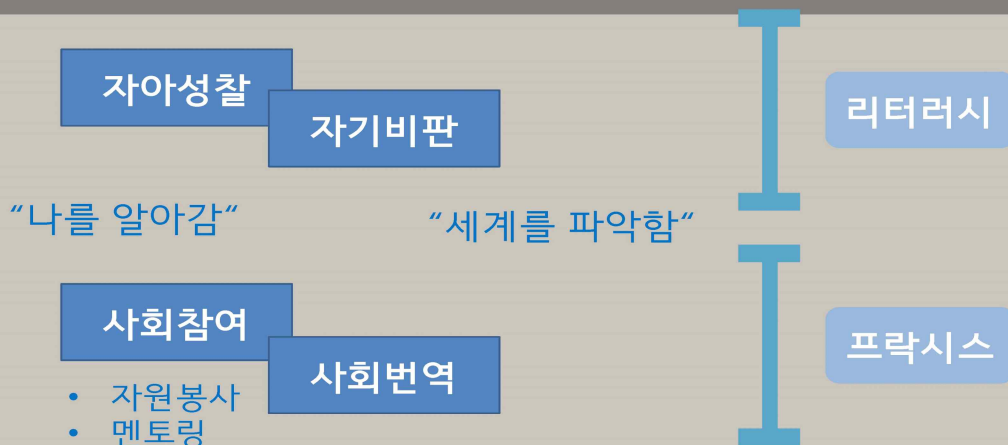
[교육과정의 정신]

- 홍익인간, 경천애인

[교육과정 인재상]

- 자주적인 인간
- 교양적인 인간
- 창의적인 인간
- 더불어사는 인간

공존하는 시민의 개념 (6)



내러티브는 신이 인간에게 내린 선물이다.

따라서 내러티브는 Performance가 아니라 Competence이다.

호모내러티쿠스 - 함께 이야기하는 인간

- 이야기하는 행위는 공존을 전제로 한다.
- 내러티브는 인간이 스스로의 경험을 구조화하고 타자의 삶을 해석하는 통로가 된다.
- 자기 내러티브를 형성하는 과정은 세상을 해석의 과정이며, 해석된 자기 내러티브는 타자에 의해 다시 해석된다.
- 인간은 유의미한 시간의 단위로서 에피소드들을 엮어 자기 경험을 조직하는 인지적 과정을 반복하며 살아간다.
- 내러티브를 행하는 인간이 다른 인간과 대화하는 방식을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 인문학적 실천이다.
- 내러티브를 행하는 모든 인간은 상호문화적 인간이며, 인간적인 인간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 내러티브의 요소인 시간성, 공간성, 인간관계는 인문학의 요소인 시간성, 공간성, 인간과 동일하다.



내러티브와 자기치유

- 이미 해석된 과거의 자기 내러티브는 이야기하는 행위(스토리텔링)를 통해 다시 해석된다.
- 이야기하는 행위는 자기이며 해석의 대상은 자기 내러티브이다.
- 고통스러운 내러티브는 재해석을 통해 치유적인 내러티브로 변화한다.
- 자기 내러티브의 재해석의 주체는 자기이므로 치유의 능력은 자기에게 있다.

<내러티브와 공존의 치유적 속성>

- 내러티브는 인간이 지닌 정신 및 심리적인 암호
- 내러티브는 인간 경험의 축적 경로이자 내면의 기억장치
- 내러티브를 관찰하는 것은 문제상황을 이해하고 구체화하는 행위
- 자기 내러티브를 관찰하는 것은 자기 성찰이 됨
- 자기 내러티브의 타자에 대한 성찰, 타자들의 내러티브에 대한 관찰은 공존적 인간에 다다르게 됨.



인문학적 실천으로서의 내러티브

- 내러티브가 인문학의 영역을 넘어 사회, 산업, 경제분야로 확장, 변용됨
- 상담, 심리치료, 의료에서 급부상 중임
- 내러티브는 상담가나 의사가 주도하기 보다 함께 만들어가는 공존의 실천임
- 내러티브 탐구의 인문학적 실천으로서 인문융합치료가 시작되었음.

<인문융합치료의 의미>

- 인문융합치료에서 치료란 의학적인 '고치기'가 아니라 인간다움과 인간됨의 회복을 의미함. -> **자기치유**
- 치료적 원리는 내러티브를 통한 성찰에 있으며 상담가는 함께 내러티브를 성찰하는 공존적 관계의 대상임
-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여가, 원예 등의 학제간 융합 분야들은 내러티브를 성찰하는 데 도움 및 영향을 줌



인문융합치료와 내러티브

인문학은 인간과 사회의 총체적 연구이고
인문융합치료는 인문학의 핵심요소인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문학과 예술 등 인문학의 학제적 융합을 통해 인간을 회복하는 실천



내러티브 탐구 모형

삶을 살아내기

자기의 과거 경험을 이야기하는 과정

이야기하기

스토리텔링의 단계로 자기 이야기를 성찰적으로 접근하는 단계

다시 이야기하기

다시 이야기 함으로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담론화를 형성

다시 삶을 살아내기

성찰된 이야기를 토대로 다시 삶을 살아내는 단계

●●● 내러티브 탐구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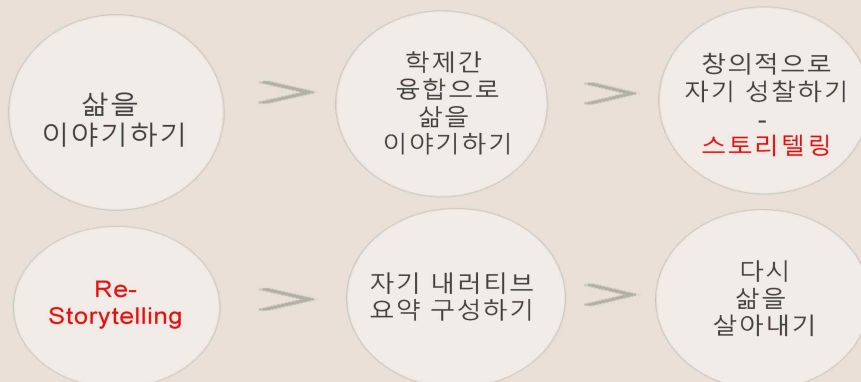


내러티브 탐구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 리스만 - 내러티브 탐구는 관계적 책임성이다.
 - 클래디닌 - 내러티브는 공동구성물이며 시간성, 사회성, 공간성에 주목한다.
 - 거드먼즈도터 - 경험을 되새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제공 받음.
 - 리콕르 - 타인과 함께 만들어가는 내러티브. 사랑에 빠지기와 냉담하게 반응하기의 반복.
- 내러티브 탐구는 관계를 통해 관계의 관점에서 관계적 탐구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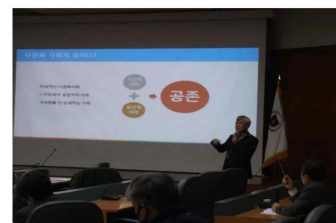
인문융합치료 모형

내러티브 탐구 모형 => 인문학의 학제간 융합



✓ 인문융합치료전문가는 이런 내러티브 탐구과정에 개입하여 멘토의 역할을 해줌

- 인문융합치료는 인간 자체의 공존, 인간 대 인간의 공존, 인간 대 자연의 공존을 조정하는 임무를 갖는다.
- 인문융합치료 전문가는 내러티브 탐구를 위해 인문학적 성찰, 사회과학적 탐구, 교육학적 실천을 토대 개념으로 '치료가'가 아닌 '성찰가', '탐구가', '실천가'로서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1. 문제의 제기

경제도 성장하고 인구도 증가하고 마을이나 도시가 확대되던 시기를 살았던 사람으로서 인구가 감소하고 도시와 마을이 쇠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문자 그대로 '전례 없던 일'이다.

2. 성장하던 한국

- ☐ 1960년대부터 50년간 고도성장
- ☐ 산업화(수출대국, 경제대국)
- ☐ 도시화(이촌향도, 2005년 도시화율 91%로 세계최고)

3. 쇠퇴하는 한국

- ☐ 대한민국 전체의 쇠퇴: 출산율변화
 - 국토연구원(22년 2월) '지방소멸 대응 정책방향과 추진전략' 연구
 - 1차 인구절벽(1982~1984년), 2차 인구절벽(2000~2002년), 3차 인구절벽(2015~2020년)으로 구분
 - 합계출산율: 2.06명(1983년, 인구대체수준) → 1.48명(2000년) → 1.24명(2017년) → 0.84명(2020년)
 - 2000년 이후로 인구의 절대 감소가 예정된 상황
- ☐ 지역의 쇠퇴: 인구감소와 이촌향도

- 한국 고용정보원의 연구결과(22년 3월): 전국 시군구 2곳 중 1곳은 소멸 위험지역에 해당
- 228개 시군구 중 113곳이 해당
-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고 쇠퇴를 거듭하여 지역공동체의 소멸이 예언되고 있다.

올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주요 시군구의

소멸위험지수	2020년	2022년 3월 말
경남 통영	0.50	0.39
경기 포천	0.50	0.44
강원 속초	0.54	0.47
전남 여수	0.56	0.48
전북 군산	0.58	0.49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

소멸위험지역 시군구 추이



4. 지역쇠퇴의 원인

- ☐ 인구의 점진적 유출과 인구구조의 고령화
- ☐ 교통망의 변화
 - 블랙홀 효과(대구와 서울, 춘천과 서울)
 - 교통망에서 소외(공주)
- ☐ 지역기반 산업의 쇠퇴
 - 장항과 군산의 철강제련
 - 마산 수출자유지역과 한일합섬
 - 목포의 조선산업
- ☐ 공공기관 이전
 - 전주도심
- ☐ 주변 신도시 개발
 - 마산과 창원

5. 한국의 지역쇠퇴와 지방소멸

- ☐ 전체적인 인구감소
- ☐ 인구의 도시이동
- ☐ 농촌지역의 고령화
- ☐ 서울과 지방의 격차

6. 지역재생과 방법

- ☐ 스웨덴 말뫼
 - 철강 조선 등의 경쟁력 저하로 세계 최대의 조선소 코쿰스 조선소가 폐업
 - 말뫼의 눈물로 상징됨
 - 처음에는 자동차 항공산업 유치하였지만 실패
 -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시민들이 도시 재건 시도
 - 환경도시 지식도시 복지도시를 추진하여 성공하여 말뫼의 미소가 됨
 -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문제 발생
 - 외국인 대량유입으로 도시의 이중구조(문화격차, 융합부족, 교육격차 등)



코쿰스 크레인(Kockums Crane), 터닝 토르소(Turning Torso), 외래순대교(Oresund Bridge)
말뚝의 눈물과 말뚝의 미소 그리고 새로운 눈물?

□ 해남 작은학교 살리기

- 해남군 북일면 1922년 개교한 북일초등학교 학생 18명, 두륜중학교 학생 19명
- 규정상 학생수 20명이하가 되면 폐교
- 2021년 지역사회 민관학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살리기 추진
- 해남군은 북일초와 두륜중을 작은학교 살리기 시범지역으로 지정
- 북두칠약 수립

북두칠약(7가지 약속)

- ▲빈집 리모델링 주택 제공
- ▲지역 일자리 연계
- ▲전교생 해외연수
- ▲전교생 장학금
- ▲공부방 꾸미기 비용지원
- ▲방과 후 및 온종일 무료 돌봄
- ▲천혜의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교육 등을 제공



- 2022년 22가구 100명의 인구유입

▲2021년 12월 8일의 보도자료

2021년 12월 선발된 전입 예정자는 총 94명으로 학부모 37명, 8세 이하 15명, 초등학생 36명, 중학교 4명, 고등학교 2명

7. 지역재생 방법

- 경제살리기에 초점
 - 일자리 창출, 산업개발, 기업유치 등
- 사람사는 사회
 - 지식 정보 환경



Scores of Swedes took the streets of Malmö, a southern city in Sweden, on Monday to protest an epidemic of violence that has taken the lives of far too many young people.

□ 교육 문화 삶



학부모가 바라는 학교! 지역이 바라는 학교!

해남 북일초 & 두륜중을 사랑하는 '학교 포럼' 초대장

1969년 북일초 (현, 북일초) 44회 졸업기념 사진
2020년 현재 전교생 23명 재학중

행사개요	포럼 문의	일시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음과 학교의 만남! 행정의 교육청 탐지! 학부모 선생님 만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일초 학년 선생님 (010-2862-5095) 문병교 행안부 수석간담인트 (010-3633-73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2020년 11월 10일 (화) 오전 9:50 ~ 오후 1:00 장소: 해남 북일초 소나무 숲

함께 하는 사람들
행안부 자치여 직원 '행안여'와 함께 학교, 북일초 학부모, 두륜중 학부모, 북일초등학교, 두륜중학교, 서남중학교, 서남초등학교, 북일초 학부모, 해남 교육지원청, 해남군, 전남도교육청, 지역주민, 북일초와 두륜중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

※ 포럼 참가자 전원 마스크 착용 ※

Session 4

해외학자 발표

발표 1. 우크라이나 인문학의 지속가능성과 문화
: 하이브리트 전쟁(2014년-현재)상황을 중심으로
박 안토니나(우크라이나 우신스키 국립사범대학교 교수)

발표 2. 터키참전용사구술생애담에 나타난 대한(對韓) 형제인식 연구
조홍윤(터키 이스탄불대학교 교수)

우크라이나 인문학의 지속 가능성과 문학교육

하이브리드 전쟁(2014년 ~ 현재) 상황을 중심으로

박안토니나 우크라이나 우신스키 국립사범대학교

1. 서론

1.1. 연구 목적

우크라이나는 1991년 독립 후 오렌지 혁명과 유로마이단(Euro-Maidan)으로 명명된 시민적 저항운동과 2014년 러시아 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 시기부터 2022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크라이나 사회의 광범한 체제전환을 특징으로 한다. 잘 알려진 대로 러시아의 하이브리드전 및 크림(Crimea)반도 합병으로 시작되었지만, 2022년 2월 24일 새벽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격적인 무력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덧 8개월을 넘기고 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전과 2022년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격적인 무력 침공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인문학계의 학문적 경향 또한 크나큰 변화에 부딪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다. 2014년 전 우크라이나의 인문학은 소비에트 통치시절의 지배이념의 유지·보급과 간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만큼, 그 인문학적 지평이 소비에트와 러시아의 이념의 흔적에서 단 기간에 벗어날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지만 그만큼 러시아는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2014년에 하이브리드전이 일어나자 인문학은 전적으로 새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반(反)소비에트의 기치 위에 독립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것과 현재에도 인문학계는 러시아와의 갈등 속에 왜곡된 '역사의 복원'과 '새로운 역사'를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관의 제시라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⁶⁵⁾ 소비에트 통치시절 이후 우크라이나 인문학 종사자들의 논의는 대단히 다양한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이들의 지적 경향은 크게 몇 갈래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는 친러국가에서 친서방적 경향으로 가려는 경향, 우크라이나 민족의 정체성 유지 및 민족주의적 경향 등이다. 이들 경향들을 개관하는 것은 현재 우크라이나 인문학자들이 인문학적 담론을 어떠한 수위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고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새로운 증거와 문헌 자료들을 위시로 논문과 저서들

65)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국명은 원래 "변경지대"를 의미하던 16세기의 동슬라브어 일반명사 '오크라이나(Okraina: '에서'를 의미하는 전치사 'O'와 경계 및 변경을 의미하는 'Krai' 및 지역을 의미하는 접미사 '-Na'의 결합)'에서 유래하였다. 코사크가 활동하던 시기 '오크라이나' 또는 '우크라이나'는 오늘날 날처럼 고유명사가 아니라 코사크가 주로 거주하는 변경 지역을 지칭하는 일반 명사로 사용되었으며, 우크라이나가 오늘날처럼 하나의 국가를 의미하는 고유명사로 정착된 것은 19세기 후반 특히 근대적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의 창조자로 꼽히는 우크라이나 역사가 미하일로 흐루셴스키(Mykhailo Hrushevsky)의 저작, 『우크라이나 루스의 역사(Istoriia Ukraïny-Rusy)』가 출판된 이후의 일이다.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의 등장에서 흐루셴스키의 기여와 역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정숙, 「역사서술로 우크라이나 민족을 만들어내다: 흐루셴스키의 『우크라이나의 역사』와 우크라이나 정체성」, 『러시아연구』 24권 2호, 2014, pp. 365-406, 참조.

이 계속 출간되어 있다.

2014년 하이브리트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크라이나 인문학 분야 중 문학 분야에서 최근에 발간된 자료와 연구결과를 간략히 검토하여 우크라이나 인문학의 지속 가능성은 있는지, 인문학계는 어떤 노력을 펼치고 있는가, 등을 살피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1.2. 연구 대상 및 방법

인문학에는 철학과 문학, 역사학, 고고학, 언어학, 종교학, 여성학, 예술 등 다양한 영역을 들 수 있겠으나 이 글에서는 인문학의 대표적인 영역이라 할 수 있는 문학의 영역을 중심으로 하여 교육과 연관성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 글의 소개 대상을 우크라이나 세브첸코 문학 연구소로 하였다. 세브첸코 연구소를 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러시아’와 차별화된 독립된 ‘우크라이나의 역사’와 문학을 연구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 기관이기 때문이다. 검토 대상 자료로는 세브첸코 연구소에서 2014년부터 출간(연구)된 자료를 선정했다. 아래에서는 우크라이나 문학 분야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기에 앞서, 먼저 세브첸코 문학 연구소 설립 및 운영 배경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2. 우크라이나 인문학의 역사적 배경과 현황

2.1. 우크라이나 세브첸코 문학 연구소 사업의 취지

우크라이나 세브첸코 문학 연구소⁶⁶⁾는 우크라이나 학술원⁶⁷⁾ 산하 기관으로 우크라이나 인문학과 문학 분야의 문제들을 연구하고 그 성과를 일반에 보급하는 정부 기관이다. 또한 우크라이나 문학 발전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926년에 설립된 정부 기관이다. 1926년 연구소가 설립된 이래 지난 약 100년간 인문사회 분야에서 문학을 중심으로 연구 활동을 해왔으며, 수차례 역사적 사건과 개혁의 과정을 통해 연구의 성과를 점차 확산시켜나가면서 국가발전에 기여해 왔다.

연구소는 설립 당시 이미 소비에트 통치 아래에서 연구 활동을 진행해 왔으며 1936년에 소비에트 학술원 부설기관으로 1991년 소비에트 해체 후 다시 우크라이나 학술원 산하 기관으로 자리를 잡았다. 현재 문학 연구소의 취지를 살펴보면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크라이나 문학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 목적을 가지고 있다. 각종 자료 및 연구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문학(문학사, 우크라이나 현대 문학, 슬라브 민족 문

66) <http://www.ilnan.gov.ua/>

타라스 셰브첸코는 우크라이나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시인이며 대부분의 창작들이 우크라이나어로 씌여져 그가 국민문학의 바탕을 형성했다고 간주한다. 1840년 출간되어 총 8편으로 이뤄진 첫 번째 시집 ‘음유시인(Кобзарь)’은 민족 시인으로서 지위를 확립한 작품이다.

67)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Ukraine* (NASU)는 1918년에 설립되어 50여 개의 연구소(자연과학, 생명과학, 공학,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체육학 등)를 운영하는 국가 기관이다.

학, 유럽 및 세계 문학계 우크라이나 문학의 위상 등) 및 우크라이나 인문학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며 새로운 연구 분야 및 주제를 개척하고 기획하는 활동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여 우크라이나 문학 연구 발전에 기여하는 기능을 한다.

둘째, 우크라이나 문학 관련 학술서적 발행이다. 우크라이나 문학 관련 발굴 자료나 연구물, 문학작품 등을 기획하고 단행본으로 출판하는 사업이다.

셋째, 우크라이나 문학을 널리 보급하는 기능이다. 우크라이나 문학의 해외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넷째, 우크라이나 문학 연구를 통해 우크라이나인들의 삶과 생각, 문학적 전통의 지속성 및 변모 양상을 이해하고, 이를 학술적으로 이론화 및 체계화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대학원을 운영함으로써 신진 연구 인력을 양성하여 학문 전반에 걸친 연구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표를 두고 있다.

다섯째, 우크라이나 문학 관련 학술 영역 사업이다. 우크라이나 문학의 각종 특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연구과제의 영역을 통해 연구소의 특성화를 추구하기 위해 연구 성과를 국내외 연구자들과 공유하는 기능을 한다. 세브첸코 문학 연구소는 위와 같은 주요기능을 설정하여 학문 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노력해 오고 있다.

2.2. 우크라이나 세브첸코 문학 연구소의 연구 영역

우크라이나 문학 연구의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해 연구소에서는 문학 연구 분야별 차별화를 두기 위해 6개 센터(미국학, 독일학, 우크라이나 60년대 문제⁶⁸⁾, 판타지 문학(fantasy literature), 극동 연구, 판텔레이몬 쿨리슈⁶⁹⁾)를 조직개편을 하여 운영하고 있다.

세브첸코 문학 연구소는 『말과 시간 (Слово і Час)』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이 학술지는 우크라이나 교육부에 등재지로 등록되어 있다. 『말과 시간 (Слово і Час)』은 소비에트 통치시절 1957년부터 발간되고 있으며 1년 발간 횟수는 6회이다. 그 외에 연구소에서 발간된 문학과 문학연구 관련 잡지로는 『문학 지평 Літературознавчі обрії』, 『비교 문학 Літературна компаративістика』, 『우크라이나에서의 미국 문학 연구 Американські літературні студії в Україні』 등이 있다.

연구소의 연구 영역을 보면 이는 다음과 같다. 우크라이나 문학사(고전부터 현재까지) 연구, 세브첸코학 연구, 우크라이나 디아스포라 문학 연구, 현대문학 이론과 문학 연구, 외국 문학사 연구, 슬라브학 연구, 우크라이나 문학 텍스트학의 역사 연구, 비교 문학 연구, 문학 서지학 연구 등이다.

68) 1960년대는 우크라이나 인문학에서는 중요한 시기이다. 1956년 이후 숙청된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의 명예가 회복될 기미가 찾아왔기 때문이다.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전반에 걸쳐 소비에트 통치에도 불구하고 젊은 지식인들은 문화적 활성화를 시도하였고 우크라이나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사회적 혼풍과 함께 인문학계와 문단에는 소위 60년대 작가들로 불리워진 뉴웨이브가 주목을 끌게 된다.

69) 쿨리슈(П. Куриш)는 비중 있는 작가로 번역가, 역사가이기도 한다. 코사크 집안의 출신으로 키이우 대학을 수학한 후 한때 루츠키우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고급스러운 문어화에 대한 주장을 펴기도 했는데 1843년 발표된 서사시 '우크라이나'와 산문 검은 민회(Чорна рада)등 대표작에서 그런 입장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연구 영역을 보면 ‘우크라이나 문학사(고전부터 현재까지) 연구’에 경우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10세기에서 13세기 중반 사이에 존재했던 키이우 루시(Kyiv Rus) 국가를 공통된 역사의 기원으로 삼고 있는데 1991년 우크라이나가 독립하면서 인문학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역사 기원을 새로운 역사로 재평가 하고 있다. 또한 16세기 후반 독립적인 코사크 국가를 수립하여 독자적인 기억과 정체성을 가진 우크라이나 민족의 독자적인 역사와 문학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문학사도 러시아와 구별되는 문학으로 연구되고 있다.⁷⁰⁾

연구 영역 중에서도 구별되는 영역은 ‘셰브첸코학 연구’인데, 우크라이나 역사와 문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타라스 셰브첸코의 인생과 문학을 연구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민족정신과 민족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던 민족 시인의 이념과 당시 러시아제국주의 세력에 대해 저항하는 문제들에 대해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연구 영역 중 언급할 수 있는 영역 중 하나는 ‘슬라브학 연구’이다. 하이브리드전 이전에는 ‘러시아학 연구’ 범위에서 러시아 문학이 별개로 연구되었지만 러시아가 다양한 방법으로 억압 후로는 인문학 그리고 문학 연구 분야에서도 연구 동향 변화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학 연구’를 ‘슬라브학 연구’의 한 분야로 조사하고 분석하고 연구하는 실황이다.

2014년 러시아의 침공은 교육학계에도 많은 변화를 주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대학에 경우를 통해 알 수 있다. 오데사 우신스키 국립사범대학의 경우 독립학과로 운영되었던 ‘러시아교육학과’는 하이브리드전 이후로 폐쇄되었다. 또한 러시아어 교육과정을 운영하던 많은 중고등 학교들이 러시아어 및 러시아 문학 교과목을 개편하기 시작했다. 제3자적인 입장에서 우크라이나를 바라보게 되는 입장에서 이와 같은 경향은 고무적이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은 불신과 양보 없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우크라이나 교육부는 다수 중고등학교의 러시아어 및 러시아 문학 교과목을 없애고 ‘세계 문학’이라는 교과목 속 푸쉬킨 등과 같은 위인들의 작품 교육을 못하게 하는 방향을 채택했다. 우크라이나 인문학계의 이러한 방향은 사실상 2022년 2월 24일 이전 상황으로 복귀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2014년 하이브리드전 이후 연구소가 발간한 연구 과제 성과물(단행본 등)의 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70) *Istoriia Rusov ili Maloi Rossii* (Moscow: Universitetskaia tipografiia, 1846). 1828년 우크라이나의 한 지역 도서관에서 고서 정리 작업 중 우연히 발견된 후 1846년 첫 간행된 『루스인의 역사』는 역사적 경험과 기억에서 ‘큰 러시아’와 구분되는 ‘작은 러시아’의 독자성을 본격적으로 다룬 첫 역사서로, 근현대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역사학계는 이 저작을 민족주의 담론이 태동하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의 사실상 첫 시발점으로 간주하고 있다. 대략 18세기 후반 익명으로 집필되어 공간(公刊) 이전에도 헤트만 국가 출신의 코사크 스타르쉬나 사이에서 널리 회람되었던 이 책의 저자는 17세기 후반 에카페리나 여제 시기 러시아 궁정에서 활동한 우크라이나 출신의 관료, 그리고리 폴레티카(Grigorii A. Poletika)가 유력시되고 있다. 구자정, 「16세기 말 17세기 초 자포로지에 코사크 집단을 통해 본 우크라이나 역사의 코사크적 기원과 루스(Rus') 정체성」, 『슬라브연구』 33권 4호, 2017, pp. 4.

〈표-1〉 연구 성과물의 연도별 현황

연도	연구 성과물 수	연도	연구 성과물 수
2014년	35	2019년	28
2015년	35	2020년	32
2016년	26	2021년	2
2017년	32	2022년 현재	
2018년	25	-	-

2.3. 우크라이나 인문학에서 문학 연구의 환경 변화

하이브리드전을 계기로 민족사 이해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반성이 일어났다. 친러파에 대한 비판과 함께 우크라이나 인문학의 정체성론을 반성하는 움직임이 높아졌다. 특히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지역의 합병과 동부 지역 분리 갈등 등 문제들은 인문학계에서도 관점 전환을 심화시키는 근거가 되었다. 러시아의 침략에 따라 이전 시기와는 다른 뚜렷한 경향을 감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첫 번째로 거론할 수 있는 뚜렷한 연구 경향과 주제의 변화이다. 소비에트 붕괴 직후에 우크라이나 인문학계는 사회주의체제 교조적인 틀에서 서서히 탈피하는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문학계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이른바 러시아 제국주의 지배를 벗어나 독자적 국가를 이루면서 민족의 과거를 탐구하는 역사·문학 적 작업을 민족의 당연한 과제로 여겨지면서 소비에트 통치시절 이전 과거의 그 전통을 이어가려는 방향을 설정했다.

러시아 제국주의로부터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독립에 관한 정치사상과 주장은 1873년 미콜라 미흐노브스키(Mykola Mikhnovsky)에 의해 이미 제시되었다.⁷¹⁾ 러시아 제국주의를 이어 소비에트의 군사적, 정치적 개입, 이데올로기적 압박은 계속되어 가지만 우크라이나인들의 희망과 염원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소비에트 통치시절 내내 현재까지 지속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독자적 민족 정체성과 정치적 자율성을 천명하고 나서는 선명한 담론이 지속성을 보이면서 소비에트 붕괴 후 이 선명한 담론을 역사·문학 연구에 바탕으로 계속 이어 간다.

하이브리드전 직후 우크라이나 세브첸코 문학 연구소는 『유로마이단』(Euro-Maidan)과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이념(Майдан і українська національна ідея)이라는 저서를 발간한다. 저자는 ‘우크라이나는 10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민족 정신과 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민족을 이루는 민중의 삶과 그들의 언어에 대한 애정에 바탕을 둔 민속학적, 언어학적 작업으로

71) 미흐노브스키는 키이우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으며, 학생 시절에는 타라스 형제단31(Bratstvo tarasivtsiv)의 창단 멤버였다. 1900년 폴타바와 하르키우에서 열린 타라스 세브첸코 기념일 행사에서 그는 우크라이나 독립의 필요성에 대해 연설했고, 그 연설문은 르비우에서 ‘독립 우크라이나(Samostiina Ukraïna)’라는 제목으로 인쇄되었으며, 초기 우크라이나 혁명당(Revoliutsiina ukraïns’ka partiia, or RUP)의 정치목표가 되었다. 홍석우, 「우크라이나 분리·독립주의 정치사상의 기원과 발전」, 『슬라브학보』 35권 4호, 2020, pp. 321-322.

나아갔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의 과거를 탐구하는 역사학적 작업으로 나아갔다.

2019년에는 우크라이나 국가의 역사 연속성과 정통성 그리고 민족 정체성을 다시 한 번 증명·확인하는 『목격자의 진술: 유로마이단(Euro-Maidan)에서 전쟁까지(Слова ми очевидців: література від Євромайдану до війни)』라는 책에서는 유로마이단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서정문학과 서사문학의 결과물이다. 저자는 문학작품을 다루면서 역사적으로 볼 때 주변 강대국들의 외압에 의해 와해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민족주의는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요구하는 운동'들을 생산해 냈고 현재 단계에서는 독립과 자유를 지키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1991년 이전 과거에는 금지되었던 연구주제들이 등장하게 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완충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크림반도 합병을 주도하고 현재도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려고 한다. 약소국의 고난과 불행의 역사를 시화집으로 형상화하는 결과물들이 출판하기 시작한다. 『우리가 사랑하는 크림(Крим, який ми любимо)』이라는 시화집은 2016년에 발간되었다. 이 시화집에서는 크림반도 점령 문제와 우크라이나인들의 인식, 러시아 체제의 희생자가 되어버린 상황은 인문학자들에게는 크나큰 근심거리로 떠오르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땅으로서의 크림반도와 타타르인, 우크라이나인의 아픔을 주제로 서술해 나가고 있으며, 타타르 대표 작가들의 글과 작품을 실리고 있다.

연구소가 발표된 글들을 통해 드러나는 경향은 크림반도 해방 문제, 특히 사회적, 정치적 등의 문제와 연관된 연구 성과들이 다수 눈에 띄기 시작한다. 연구 주제 중에서도 크림 반도의 타타르인의 문제, 이들의 문화와 정체성 등, 다양한 글들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디아스포라 문학에서 다루는 주제들도 소개된다.

두 번째로 내용적인 면에서 우크라이나 문학학계의 큰 움직임을 말한다면 우선 2000년대에 들어와 서구의 학문경향으로 전환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문학사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그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비에트 시대 분위기에서는 금지되고 왜곡되었던 문학사를 다시 소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소비에트 통치시절 당시 왜곡되었던 우크라이나의 독자적 민족 정체성과 정치적 자율성을 천명하는 선명한 담론이 문학계에서 비판의 대상이었지만 독립 이후에서야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2015년에 『나의 우크라이나여! (Україно моя!)』라는 시집을 통해 소비에트군으로 참전한 시인의 기록과 소비에트 붕괴 후 독립된 우크라이나에서 삶을 시작품으로 형상화하는 글이다. 이 책에서는 소비에트 전후 제국주의의 문제를 바라보려는 노력을 볼 수 있다. 특히 2차 대전 당시 소비에트의 승리가 러시아인들의 희생으로서만 가능하지는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실적 글쓰기에서 우크라이나인들도 많이 희생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공개를 하는 저서이다.

『민족 지킴이(На варті нації)』를 통해 우크라이나 문학사는 민족의 정신,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이념 등을 소개하고 있다. 책의 저자인 유리 코사치(Юрі Косач(1908-

1990))는 우크라이나의 시인이다. 문학평론가, 번역가로도 활동했다. 체재전환까지 반세기 넘게 문학은 정치 시스템에 갇혀 억압되었다. 코사치를 비롯한 많은 문인들이 우크라이나 문학사와 민족주의 이념에 관련 글들을 소비에트 통치시절 당시에는 공개되지 못했지만 코사치의 글들은 2016년에 공개되었다.

세 번째로 방법론적인 면에서 서구의 방법론을 바탕으로 한 연구 경향이 부활하기 시작했다. 인문학에서는 독자적 방법론 등을 지속적으로 적용하면서 우크라이나 민족사와 관련한 새로운 인식을 모색해보려는 노력의 일환을 잘 보여주기 시작했다. 19세기 초 낭만주의 영향, 2차 대전 당시에는 나치와 대항하기 위하여 오히려 민족적 이념을 강화하려는 의도 소비에트 통치시절 이전 미국과 서유럽 모더니즘적 미학을 지향했던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우크라이나 인문학자들과 문학 연구자들, 문인들이 전임자들의 전통을 계승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과 유럽으로 망명, 이주, 추방한 지식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소비에트 제약의 틀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방법론으로 인문학을 지속 이루어지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과거의 연구자들에 의해서는 거론되지 않았던 슬라브 민족의 언어, 문학, 예술 등의 문제 소비에트 통치시절 당시 기밀 자료들이 계속 공개되면서 우크라이나 인문학의 다른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도까지 하게 된다.

2014년에 러시아의 침공이 우크라이나 학계에는 친서방적 정향으로 가려는 경향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고 우크라이나 인문학자들은 이런 정신으로 친서방적 연구 경향을 더욱 더 잘 보여주기 시작한다. 2016년에 발간된 『탈식민주의. 세대. 문화(Постколоніалізм. Генерації. Культура)』를 통해 서구의 분석 방법으로 역사를 해석하고 역사적 문제를 반드시 다루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역사 속 탈식민주의에 관한 쟁점에 대한 견해를 확장시켜 감춰져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들에 대해 인문학계에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인문학 분야에서 2014년 이전 러시아 제국주의와 소비에트 통치하에 있었던 우크라이나에 대해 공개되지 못했던 사실들은 하이브리드전 이후 공개된다. 하이브리드전은 오히려 우크라이나 인문학 연구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자극제가 될 수 있었다. 물론 현 시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극은 일어나서는 안 될 역사적 사건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사건들은 우크라이나 인문학에서 새로운 역사인식의 틀과 지속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3. 결론

이 글은 우크라이나 인문학의 현 주소와 지속가능성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했지만 인문학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변화가 있었는지는 더욱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였다. 비록 2014년부터 하이브리드전과 2022년 러시아의 침공에 의해 우크라이나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인문학계의 민족적 자각은 더 이상 우크라이나 인문학을 역사적 객체로 남겨두지 않았다. 우크라이나의 인문학은 사라지지 않았으며,

이웃 나라와의 불평등한 관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 인문학 분야에서의 문학 분야가 더욱 더 구체적으로 모색되고 후속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구자정, 「16세기 말 17세기 초 자포로지에 꼬자크 집단을 통해 본 우크라이나 역사의 꼬자크적 기원과 루스(Rus') 정체성」, 『슬라브연구』 33권 4호, 2017.
- 한정숙, 「역사서술로 우크라이나 민족을 만들어내다: 흐루셴스키의 『우크라이나의 역사』와 우크라이나 정체성」, 『러시아연구』 24권 2호, 2014.
- 홍석우, 「우크라이나 분리·독립주의 정치사상의 기원과 발전」, 『슬라브학보』 35권 4호, 2020.
- Ясь О. В. «На чолі республіканської науки...»: Інститут історії України (1936-1986): Нариси з інституціональної та інтелектуальної історії. (До 80-річчя установи) / О. В. Ясь. - Вступ. слово, наук. ред. В. А. Смолія; НАН України; Ін-т історії України. - К.: Ін-т історії України, 2016. - 542 с.

발표 1. 터키 참전용사 구술생애담에 나타난 대한(對韓) 형제인식 연구

조홍윤 터키 이스탄불대학교

1. 서론

서로를 형제의 나라로 칭하는 터키와 한국, 그 관계의 저변에는 '한국전쟁'이라는 공통의 경험이 있다. 혹자는 상고시대 알타이 인근의 친족 관계를 언급하기도 하고, 중세의 고구려-동돌궐 연맹에서 그 기원을 찾기도 하지만, 실제로 현재 양국 간 실질적 우호 관계 형성의 직접 계기는 한국전쟁일 수밖에 없다. 당시 최대 파병국 중 하나였던 터키는⁷²⁾ 한국을 '칸 카르데심(Kan kardeşim)'으로 부른다. 직역하면 '피의 형제'인데, 이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피를 나눈 형제'의 개념이기보다 '전장에서 함께 피를 흘린 형제'를 의미하며, 친형제보다도 가까운 관계를 뜻한다. 그와 같은 대한(對韓) 인식이 내면화된 터키인들은 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한국인에게도 그들의 특별한 호감을 표현하기 위해 애를 쓴다.

이는 터키의 우호의식에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한국 경험과 인식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중장년층의 터키인들은 그들의 가족과 친지, 이웃의 참전용사로부터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났다. 참전용사를 친지로 둔 이들은 한국인을 만날 때마다 예외 없이 자신의 할아버지, 아버지,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친근감을 표한다. 가족사적으로 한국전쟁과 특별한 관계가 없는 보통의 터키인들 또한 스스로없이 한국인을 '칸 카르데심'으로 지칭한다. 북한의 핵위협에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때는 "다시 전쟁이 난다면 또 한 번 터키가 한국을 도울 것이다."라며 한국인들을 위로하였으며, 한반도의 화해 무드가 조성될 때는 자신들의 일인 양 기뻐하였다. 한국전쟁으로 맺어진 영원한 혈맹이라는 인식이 터키 일반의 한국인식으로 깊이 내면화된 것이다.

한국에서도 터키를 '형제의 나라'로 지칭한다. 그러나 이는 수사적 표현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인들에게 터키는 여러 참전국 중 하나일 뿐이며, 특별한 관심과 우호의 대상으로서 실체적인 의미는 지니지 않는다. 터키가 한국에 호감을 지닌 것은 좋은 일로 여기지만, 그 우호의식의 실체가 무엇인지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보통인 것이다. 이는 한국전쟁 이후 월드컵이라는 특별한 이슈가 있기 이전에도 대한 우호의식이 일반적인 경향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터키의 경우와 매우 대조적이다.⁷³⁾

72) 터키는 한국전쟁 당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파병 결정을 UN안보리에 통보하였으며, 1950년 8월 1차 파병 당시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5,090명의 병력을 파병하였다. Necmettin Özçelik, Mehmetcik Korede: Kore Savaşında Türk Ordusu, İstanbul: Yeditepe Yayınevi, 2017, pp.7-87.

73) 197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한국인의 터키 이주가 시작되었다. 그들 이민 1세대에 따르면 길에서 만난 터키인에게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순간 "칸 카르데심!"을 외치며 자신들을 끌어안는 터키인들로 인해 영문을 몰라 당황했다는 에피소드가 공통적이다. Necmettin Özçelik에 따르면 한국전쟁 50주년이 되던 2000년 이후로 터키 내 각종 언론 매체에 의하여 한국전쟁의 부정적 측면들이 부각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터키인의 우호의식은 변함없이 강하게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Necmettin Özçelik, op. cit., p.10).

이러한 인식적 불균형은 향후 양국의 우호 관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인들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터키인들 중 몇몇은 실제로는 한국인들이 터키에 큰 관심이 없음을 느끼고 배신감을 느꼈다고 토로하기도 한다. 서로를 특별하게 여긴다고 생각했던 대상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느끼게 되면, 그 대상은 사랑과 우정의 대상에서 증오의 대상으로 전환되기 쉽다. 애초에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만 못한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나 대한 우호의식의 중심이었던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은 이제 대부분 영면에 들고 있으며, 양국을 이어주던 참전용사들의 기억도 함께 묻혀가고 있다. 그들이 모두 이 세상을 떠나고, 참전용사들의 기억도 세대를 거쳐 희미해질 때쯤 한터 양국의 관계는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인가.

이러한 상황을 우려하며 본 연구자는 터키 한국전쟁 참전용사 구술생애담에 대한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우려하며 본 연구자는 터키 한국전쟁 참전용사 구술생애담에 대한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 목적은 첫째로, 보편적 보훈의 차원에서 평범한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경험과 애환을 그대로 기록하여 전하기 위함이고, 둘째로, 참전용사들의 경험을 토대로 터키 일반에 자리잡은 대한 우호의식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함이다.⁷⁴⁾

터키 내에는 현재 약 900명의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이 생존한 상황이며, 그 분포는 전국적이다. 이에 터키 전역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 연구의 필요성이 있으나, 그와 같은 조사 연구의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2018년 여름부터 연구자 개인 차원의 조사 연구를 시작하였다. 국가보훈처 및 외교부 등에 연구비 지원을 신청한 후 지지부진한 논의 속에 지원이 좌절되는 과정을 겪기도 하고 최근에는 COVID-19사태로 대면 인터뷰가 불가능해지는 등 여러 부침이 있어 아직 광범위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2022년 들어서는 감염병 문제가 완화되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지원을 통해 얼마간 재원을 확보한 상황에서 조사연구를 진척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고령인 참전용사들의 구연 능력에 한계가 있어 연구에 활용 가능한 양질의 구술자료 수집은 본고에 인용한 몇 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그러나 상황의 어려움만을 탓하며 주저앉기 보다는 본 연구를 통해 짧게나마 현재까지 내딛은 걸음을 돌아보며 의의를 찾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더욱 적극적인 재원 마련과 집중적인 조사 연구의 수행을 위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구술생애담 조사는 본 연구자의 터키어 능력에 일정한 한계가 있는 관계로 터키 현지의 교민 및 탁월한 한국어 능력을 지닌 터키인 연구팀원들과 함께 현장 대면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다. 구술조사의 진행 역할을 맡은 연구팀원이 구술의 흐름을 끊지 않고 적절한 흐름을 유도할 수 있도록 본 연구자가 설정해 놓은 구술기록지를 통해

74) 본 연구자가 수행하고 있는 ‘터키 한국전쟁 참전용사 구술생애담 조사 연구’의 의의와 구체적인 현장 조사의 방법 등에 대해서는 조홍윤, 「터키 한국전쟁 참전용사 구술생애담 조사 연구의 의의-보훈(報勳)을 넘어 소통(疏通)의 이야기로」, 『한국고전연구』 제44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9, 99~127쪽을, 수집된 구술자료에 나타난 한국인의 이미지에 대해서는 조홍윤, 「터키 한국전쟁 참전용사 구술생애담에 나타난 한국인, 그 약자의 형상」, 『한국학』 제43권 4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20, 285~309쪽을 참고 바란다.

인터뷰 항목을 숙지하고 구술조사 진행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사전 훈련이 이루어졌으며, 현장의 상황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구술자료 전사의 방법에 대해서도 충분한 훈련이 이루어졌다. 이로써 원활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짐은 물론 온전한 형태의 구술생애담 텍스트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재까지의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들을 중심으로, 터키 참전용사들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형제 인식의 실체가 어떠한 것인지 조명해보고자 한다. 이는 곧 한터 양국간 우호 관계의 실상을 밝히고 향후의 관계를 조망하기 위한 정서적 기반을 확인하는 일이 될 것이다.

2. 터키 한국전쟁 참전용사 구술자료에 나타난 한국 인식

구술생애담은 “한 인간이 일생동안 경험했던 사건을 현재의 관점에서 기억으로 소환하여 나름의 규칙을 토대로 구성한 서사체”⁷⁵⁾로서 체험에 대한 구연자의 현재적 인식을 총체적으로 담아내는 이야기 형식이다. 따라서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에 의해 구연되는 구술생애담에는 한국전쟁사의 거시적 연결고리가 지닌 빈틈을 매워낼 미시사적 진실들은 물론, 한국전쟁과 한국에 대한 구연자의 인식이 복합적으로 녹아들어 있다. 따라서, 앞서 말했듯, 터키 일반의 대한 우호의식은 참전용사들의 경험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구술생애담을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터키인들이 그 내면에 지닌 한국 인식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경험에 대한 구술은 사실의 기억들을 구연자 나름의 의미를 지닌 서사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경유한다.⁷⁶⁾ 그러한 과정에서 구술자는 자신의 현재적 인식을 기반으로 자신의 경험 중 의미 있는 것들을 선택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배제하게 되며, 경험의 시간이나 내용에 대해 무의식적인 조정이 이루어지기도 한다.⁷⁷⁾ 따라서 구술생애담 연구에 있어서는 이야기 속에서 특별하게 구연되는 인물이나 사건들을 통해 구연자 스스로가 자신의 경험을 사유하는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터키 참전용사 구술생애담에 나타난 한국은 어떠한 모습인가. 이에 대하여 본 장에서는 수집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도출된 일반적 특징에 따라 항목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2.1. 참전 이전 시기 : 미지의 대상인 한국

참전 이전의 참전용사들은 한국에 대해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애초에 한국을 친연성이 있는 국가로 여겼거나 특별한 호감이 있어서 참전하게 된 것은 아니며, 적어도 참전 이후에 한국에 대한 형제 인식이 형성되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75) 한정훈, 「구술생애담, 기억의 재현과 주체의 복원」, 『감성연구』 제6집,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3, 173쪽.

76) 같은 논문, 169-208쪽.

77) 구연자의 구술 자료를 ‘사실에 대한 증언’으로 여기는 구술사 연구의 경향과 비교하였을 때, 구술 자료를 일종의 이야기 문학으로 여기고 그 서사적 형상화의 맥락을 구명하는 것이야말로 구술생애담 연구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경험내용의 사실정보보다도 그것이 의미하는 내적 진실성, 그로부터 드러나는 인식의 지형을 중시하는 맥락이다.

저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들은 적 없었어요. 우리는 한국에서 전쟁이 시작한 1951년에야 처음 들었어요. 터키에서 한국으로 군인들을 보냈을 때요. 우리 뒤를 이어 2~3개 그룹이 더 갔어요. 그들은 헛고생을 했지만요.⁷⁸⁾

한국으로 군인들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어요. 자원할 사람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제일 먼저, 저는 앞으로 나섰어요. 나쁜 의도는 아니었어요. 저는 빨리 군 복무를 마치고 귀국하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제 목표는 그거였어요. (중략) 저는 19개월 동안 거기에 있었거든요. 5개월 일찍 군 복무를 마쳤고요. 제가 바라던 바였죠. 근데 되긴 됐는데 저는 (지금)은 전쟁에 가는 것보다 10년 동안 군대에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전쟁은 너무 쓰거든요. [청중(여동생) : 사망자 수가 매일 뉴스에 나오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한편으로는 기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뉴스를 보고 계셨어요. 편지는 1~2개월 후에 오고요. 우리도 전쟁에 가는 것 같았어요. 마음은 계속 아팠어요. 그때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요.] 저는 이름조차 못 들었어요. [청중(여동생) : 정치적인 이유로 나간 전쟁이니까요.]⁷⁹⁾

구술된 내용에 따르면 적어도 터키 군 내부에서는 한국전쟁 참전을 위한 홍보가 특별히 적극적이었던 것은 아닌 듯 보인다. 참전 여부는 병사들 개인의 선택에 따랐고, 강압적인 파병이 이루어진 정황은 찾기 어렵다. 그러한 상황에서 구술자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채로, 군복무를 빨리 마치기 위해 자원하여 참전하였다. 동석한 구술자의 여동생은 “정치적인 이유로 나간 전쟁”이었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전쟁에 참전하게 된 것이라 했다.

실제로 당시 터키의 참전 결정은 소련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전략적 차원에서 터키의 NATO가입을 위한 것이었다.⁸⁰⁾ 홍보 포스터에서도 드러나듯, 한국전쟁 파병을 위한 언론 홍보에 있어서도 당국의 입장은 “미국이 터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이었지, 형제의 나라를 운운



한국전쟁 참전 홍보 포스터

하거나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친연성을 명분으로 삼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사회 일반에 대한 참전 분위기의 조성 과정은 그러했고, 군 내부에서는 자세한 설명의 과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파병자원자를 모집했던 것으로 보인다.⁸¹⁾

78) Ahmet Karaçoban(1930), 양가라, 20221009.

79) Hasan Mergen(1931), 카드코이, 20221006.

80) Necmettin Özçelik, op. cit., p.17; Ali Denizli, 이선미 역, 『터키인이 본 6.25전쟁』,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2014, 33~34쪽.

81) 이와 관련해서는 조홍윤, 앞의 논문, 2019, 105쪽에서 언급한 바 있다.

2.2. 참전 당시 : 전형적인 약자로서의 한국

그처럼 미지의 대상일 뿐이었던 한국이 어떻게 ‘형제’라는 이름으로 참전용사들의 내면에 자리잡게 되었는가. 결국은 참전 이후의 한국 경험이 주요하게 작용하였을 것이라 짐작하게 된다. 이에 그 구체적인 맥락을 확인하고자 참전 당시의 경험에 대한 구술 내용을 살펴보면, 전형적인 약자로서 보호의 대상으로 의미화 된 한국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군우리의 전투가 끝나고 며칠 후에 남쪽으로 이동하는 길이었어요. 한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집들이 거의 무너져 있고 사람 모습이 좀처럼 보이지 않아서 ‘다 피난을 갔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한 집을 보았는데, 열린 대문 안으로 반쯤 무너진 집이 보이고 그 집의 작은 발코니에(마루를 말하는 듯하다.) 늙은 남자 한 명이 앉아있었어요. 저는 우연히 그 모습을 보고 무서운 느낌이 들었어요. 살기 위해 모두 떠나버린 곳에 혼자 힘없이 앉아있는 그 할아버지의 모습이 마치 죽은 사람 같았거든요.⁸²⁾

한국은 그때 전쟁 중에는 너무나 가난했어요. 엄마들은 아기를 업고 터키 군인들을 찾아와 아이들이 먹을 음식을 가져가곤 했어요. 저는 일부러 먹지 않고 남겨둔 모든 것들을 그녀들에게 주었어요.⁸³⁾

우리들이 지나가면 아이들이 와서 (손가락을 오므려 입가에 가져가며) “챍챍!”, 이렇게 해요. 음식을 ‘챍챍’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저도 음식을 주곤 했어요.⁸⁴⁾

[조사자: 한국에 계실 때 한국 아이를 구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청중(간병인): 하산 할아버지께서는 그 아이를 아일라(영화 Ayla의 주인공)라고 생각하십니다. 추측이에요.] 차로 전선에 가고 있을 때 발견했는데, 처음에는 눈에 있는 돼지인 줄 알았어요. 아이가 일어나고 나서야 아이인 것을 깨달았고, 아이를 데려왔어요. 아이는 다섯 살이나 여섯 살 정도로 보였어요. 너무 추운 날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근처에 있는 간이 병원 같은 곳에 데려갔어요. 그곳에 아이를 두고 전선으로 떠났지요. 그 위험한 곳에 아이를 데려가는 것은 불가능하니까요.⁸⁵⁾

위처럼 참전 당시에 대한 구술 중 한국인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할 때에는, ‘고아와 여성, 노인들을 만난 에피소드’, 즉 ‘약자들과의 조우’에 관한 사연이 가장 두드러진다. 물론 그들만이 구연자들과 조우한 한국인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다. 구연자에 따라서는 위문 공연에 초대되어 온 한국인 가수나 무용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기도

82) Mehmet Akif Ersoy(1929), *큐축체크메제*, 20190305.

83) Mahmut Aka(1931), *파티흐*, 20180720.

84) Dursun Zencirden(1932), *앙카라*, 20221009.

85) Hasan Mergen(1931), *카드코이*, 20221006.

하고, 연락병으로 부대에 드나들던 한국인 병사와 나눈 우정에 대해 구술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구연은 일반적인 경향성을 띠지 않으며 상당히 특수한 구연 사례에 해당한다. 아마도 한국에 도착한 후 곧바로 전선에 투입되고, 독립 부대로서 주로 독자적 작전을 수행하였던 상황, 전시의 군인으로서 일반 한국인들과의 교류가 제한될 수 밖에 없던 상황에 기인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하기에 구연자들은 확실한 교류선이 있었던 앙카라 학교의 전쟁고아들에 대하여 더 많은 기억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행군 중에 솔하게 조우하였던 한국인들을 통해 상당히 간접적이고 피상적인 한국인 형상을 형성하게 되었으리라 여겨진다. 따라서 그들은 거의 예외 없이 자신이 조우하였던 전쟁고아, 불안과 피로에 시달리는 피난민 행렬, 난리 통에도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여인들의 모습,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행색의 노인 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놓으며, 그들에게 느낀 연민에 대해 이야기한다.⁸⁶⁾ 이와 같은 경향이 터키 참전용사의 구술생애담에 공통된 것임을 고려하였을 때, '약자로서의 한국인 형상'이 그들의 집단 표상으로서 함의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앞선 연구를 통해 이미 자세히 논의한 바 그 내용을 간단하게 간추려 전한다.⁸⁷⁾

터키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에게 내면화된 한국인의 형상이 전형적인 약자의 모습으로 대상화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참전용사들은 구술을 통해 구원자적 주체로서의 자기상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한국인 형상은 다시 터키 일반의 한국 형상으로 확장된다. 전쟁 중 터키에서 발행된 신문이나 정부 주도로 발행된 기념우표에는 전쟁고아를 무등 태운 채 인자한 웃음을 짓고 있는 병사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고, 터키 대중 또한 그와 같은 이미지를 향유함으로써 구원자적 터키의 이미지를 내면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곧 터키인들이 특별히 한국을 향하여 '피의 형제'라 지칭하며 특별한 우호의식을 보여주게 된 계기 중 하나는 약자로서의 한국인 형상, 순수한 보호 대상으로서의 한국이 터키 일반의 내면에 자리 잡게 된 것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한 형상이 한국에 대한 거리낌 없는 호의를 불러일으키는 물론, 터키 참전용사들을, 나아가 터키라는 나라 자체를 당당한 구원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였던 것이다.

2.3. 참전 이후 : 보은자로서의 한국

참전 이후 고국으로 돌아온 대부분의 참전용사들은 지독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리지 않기 위해 애를 썼다.

[조사자: 귀국하고 나서 전쟁에 대한 소식이나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 돌아가서도 한국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귀국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한국 전쟁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럴 때마다 아직도 전쟁을 하

86) 조흥윤, 앞의 논문, 2019, 117쪽 참조.

87) 조흥윤, 앞의 논문, 2020, 285~309쪽 참조.

고 있는 것처럼 포탄 소리나 총소리가 떠오르고 몸이 떨렸어요. 6개월 정도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담뱃불을 침대에 끌 정도로 혼란스러웠어요. 아마 계속 한국에서의 전쟁을 생각 했다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 경험을 잊어버리기 위해 애를 썼어요.⁸⁸⁾

[청중(아들) : 아버지께선 제가 마흔 정도, 아니 마흔 다섯 살 될 때까지 한국에 관한 추억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지금 쉰다섯 살, 집에서 막내고요.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하이다르파샤GATA 병원에서 수술하게 되어 간 날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참전용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병원으로 갔어요. 어머니께서는 거기서 심장 수술을 받게 되었지요. 그때 아버지께서 "봐봐, 저 의자에 앉은 사람 있잖아, 한국에서 같이 있던 나의 친구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미 망한 사람 같이 보였어요, 지팡이도 쓰시고. 아버지께서 서류를 작성하러 가신 사이에, "아저씨 한국에서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제가 여쭙봤어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 분은 꽤 오랜 시간 동안 멈춰 있었어요. 그리고 우울하고 이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이미 그 페이지를 닫았다."⁸⁹⁾

그처럼 끔찍한 전쟁의 기억을 떠올리지 않기 위해 애썼던 참전용사들이 다시금 전쟁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힘을 주고 구술인터뷰에 응할 수 있게 한 것은,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감사를 전하는 한국인들 때문이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떤 사건에 대해 말하는 것은 직접 경험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보통은 어떤 일을 경험하고 잊어버리지만,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면(말하면) 매 순간 그 일을 다시 겪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찾아와서 "안녕하세요?"하는 것만으로 괜찮아집니다.⁹⁰⁾

여러분들이 하듯이 저를 찾아오고 인터뷰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저도 이 주제에 대해 먼저 말 걸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잊지 않고 찾아와 주고, 제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해줘서 용기를 냈어요.⁹¹⁾

스스로의 경험을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인간은 그러한 경험을 기억의 가장자리로 밀쳐 두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이 가치 있는 것으로 의미화 될 때에 그것은 의식의 전면으로 재배치되어 쉽게 떠올리고 말할 수 있는 기억으로 전환된다. 끊임 없이 찾아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념하고자 하는 한국인들의 손길이 그들의 기억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전쟁

88) Mahmut Aka(1931), 파티흐, 20180720.

89) Recep İsmet Akarsulu(1930), 예음, 20220513.

90) Osman Yaşar Eken(1930), 앙카라, 20221010.

91) Ahmet Karaçoban(1930), 앙카라, 20221009.

경험을 긍정할 수 있는 힘을 주었던 것이다.

실상 한국전쟁의 현장에서 터키군과 한국군은 공동 작전을 수행했던 적이 없다. 터키군의 작전 파트너는 대부분 타국에서 온 연합군이었고, 실상 같은 전장에서 피를 흘렸던 것은 한국군이 아니라 주로 미군이나 영국군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터키 참전용사들과 터키인들은 한국인들을 ‘피의 형제’라 부르는가. 또한 다른 나라를 돕기 위한 터키군의 파병은 한국 전쟁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 일례로 키프로스 전쟁(1974년)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당시 터키군의 개입으로 투르크 계열의 북키프로스 공화국이 성립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오직 터키만이 북키프로스를 합법적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키프로스 전쟁 참전용사들과 터키인들은 북키프로스를, 심지어 같은 투르크 민족 국가임에도 ‘피의 형제’로 지칭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피의 형제’라 말하는가. 바로 한국인들이 전하는 지속적인 감사와 보은이 그들의 전쟁 경험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조사자: 마지막으로 한국인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인들이 주시는 관심에 행복합니다. [조사자: 한국인들이 많이 찾아오나요?] [청중(딸) : 네, 대사님도 오셨어요.] [청중(부인) : 한국 사람들은 참전용사들을 정말로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해요. 오히려 터키 정부는 참전용사들을 위해서 아무 것도 해주지 않는데 한국만큼 감사를 잊지 않고, 무언가 보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⁹²⁾

[조사자: 한국을 언제부터 형제 나라로 여기기 시작하셨을까요?] 전쟁에 참전하고 온 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고 우리는 서로를 알게 됐어요. 한국 사람들은 늘 우리를 찾아와 인사하고 우리를 한국으로 초대해요. 그런데 우리 나라 사람들은 어디에 있나요? 키프로스 영사는 키프로스 전쟁 참전용사를 위해 화환 하나도 보낸 적이 없고 기념식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소중하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도 한국 사람들이 소중할 수밖에 없어요. (중략) 우리 나라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우리 정부도 “여러분은 아주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이것을 받아 주세요.”라고 말해야 해요. 저 스스로 “저는 전쟁에 참여했어요. 훈장을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은 훈장을 받았지만, (참전용사협회가) 키프로스 전쟁 참전용사들을 위해 40년 동안 노력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스스로 자기들 돈을 모아서 훈장을 샀어요. 아주 부끄러운 일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 옆에 있었어요.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살아있을 수 없었다.”고 하면서 감사인사를 해요.⁹³⁾

전쟁의 승리를 위한 군인들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전쟁을 겪은 참전용사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긍정하기 어렵고, 이에

92) Dursun Zenciriden(1932), 앙카라, 20221009.

93) Osman Yaşar Eken(1930), 앙카라, 20221010.

치유하기 어려운 트라우마에 시달리곤 한다. 그런 고통 속에 평생을 살아가는 참전용사들에게, 수시로 찾아와 감사를 전하는 한국인들의 존재는 오히려 구원자에 가깝다. 그들의 존재로 인해 참전용사들은 자신들의 끔찍한 경험을 정당한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숭고한 희생으로 다시 의미화할 수 있었으며, 이로써 그들의 상처난 영혼이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었던 것이다. 잊지 않고 감사를 표하는 것, 보은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사소한 보답이지만, 것처럼 면면히 이어져온 한국인들의 작은 정성들이, 마치 열은 물감을 수없이 덧칠한 것처럼 참전용사들과 그들을 둘러싼 터키인들의 내면에 형제로서의 한국 형상을 짙게 그려놓은 것이다.

3. 형제 인식의 실체, 그에 비추어 본 한터 우호의 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터키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에게 있어서 한국은 참전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미지의 대상일 뿐이었다.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그들이 마주하게 된 한국은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무력한 노인의 모습, 모진 삶을 이어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여인의 모습, 아무 죄없이 전쟁의 폭력에 노출된 연약한 어린 아이의 모습 등으로 표상되는 전형적인 약자였다. 그러한 한국인의 약자 형상은, 참전용사들 스스로가 구원자로서의 자기상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하는 인식적 기반이 되었으며, 그것이 터키 일반에 확산된 대한 우호 인식의 계기가 되었다.

만일 한국전쟁 이후로 터키와 한국의 관계가 지속되지 못했다면, 당시에 형성된 형제 인식이 현재와 같이 강화되고 유지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양국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으며, 그러한 관계 맺음에 있어서 한국이 취한 태도 또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게 되었다.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크게는 정부 차원에서, 작게는 기업이나 민간 단체, 개인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기념하고 작게나마 보답하고자 했던 지속적인 노력이, 끔찍하고 폭력적인 기억으로 부정되어 버릴 수 있었던 참전용사들의 전쟁 경험을 재소환하여 숭고한 가치를 지닌 성전(聖戰)으로 의미부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로써 터키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은 전장에서 보낸 젊은 시절, 가장 아름다워야 했으나 가장 비참했던 그 시절을 긍정할 수 있게 되었다.

참전용사들에게 있어서 전쟁이라는 강렬한 경험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볼륨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전쟁의 경험이 그저 끔찍한 기억으로만 남았다면, 그들은 그것을 의식하기를 거부한 채 무의식으로 밀어내려 노력했을 것이며 자연히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는 부분이 그저 공허로만 남게 되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전쟁 경험을 숭고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한국이 존재함으로써 그들의 인생 전체가 긍정적으로 의미화 될 수 있었고, 그렇게 그들 인생의 가장 큰 부분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한국의 존재 또한 자연히 인생의 동반자, 곧 형제와 같이 여겨질 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터키 한국전쟁 참전용사 구술생애담에 나타난 대한 형제 인식의 실체를 확인함으로써 향후의 양국 우호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우선은 양국을 이어준 터키 참전용사들의 기억을 최대한 온전히 수집하여 보존하고 양

국 대중 일반에 지속적으로 알림으로써 그 우호 인식의 기반을 잃어버리지 않고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대다수 참전용사들이 고령으로 영면에 들고 있는 현시점에서 잠시도 미루어 둘 수 없는 과제가 되리라 본다.

또한 분명한 도움을 받은 입장에서, 마땅히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근래 들어서 한국은 전쟁의 경험을 공유하지 못한 세대가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한국전쟁 당시의 고통에 대해서도 그러한 고통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었던 참전용사들의 희생에 대해서도 점차 무감각해지기도 하고, 더러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자국의 이익만을 위한 것'으로 깎아내리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경험이 더욱 활발하게 조사되고 알려짐으로써 당시에 있었던 그들의 희생이 더욱 분명히 알려져야 할 것이며, 자연히 그 희생에 보답하고자 하는 노력 또한 세대를 거쳐 계승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지금까지 터키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구술생애담을 대상으로 거기 나타난 대한 형제 인식의 실체와 그 의미를 구명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터키 참전용사들의 구술 내용을 살펴보고 그 기반이 된 한국 인식의 특징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논하였다. 그 결과 참전용사들에게 있어서 한국은, 애초 미지의 대상이었다가 그들 스스로를 구원자로서 의미부여하게 하는 보호의 대상으로 변모하였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끔찍한 전쟁 경험을 송고한 희생의 경험으로 승화시키는 보은자이자, 그들의 전체 인생을 의미 있는 것으로 의미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인생의 동반자, 곧 형제와 같은 존재로 인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경유한 형제 인식이 참전용사들과 그들의 지인을 중심으로 터키 일반에 확산 됨으로써 현재와 같은 터키의 대한 형제 인식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터키 참전용사의 구술생애담을 통해 대한 형제 인식의 실체를 확인함으로써 향후의 양국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나갈 길도 가늠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한시라도 빨리 생존한 참전용사들의 경험들을 기록하고 공유함으로써 양국의 우호 인식 기반을 항구적으로 유지·강화하고, 영원한 형제 국가로서 동반자적 관계를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자료 목록

- Ahmet Karaçoban(1930), Ankara, 20221009.
Ali Yamankara (1929), Şişily, 20220504.
Dursun Zencirden(1932), Ankara, 20221009.
Hasan Mergen(1931), Kad ı köy, 20221006.
Kemal Alkan(1931), Şişily, 20191108.
Mahmut Aka(1931), Fatih, 20180720.
Mehmet Akif Ersoy (1929), Küçükçekmece, 20190305.
Muzaffer Eren(1930), Şişily, 20220504.
Osman Yaşar Eken(1930), Ankara, 20221010.
Recep İsmet Akarsulu(1930), Eyüp, 20220513.
Salih Aka(1974), Fatih, 20180720.
Saçit Gürünlü(1926), Zeytinburunu, 20181207.

논저 목록

- 김예선, 「 ‘살아온 이야기’ 의 담화 전략 삶의 구조화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제19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9, 279~300쪽.
- 김정경, 「여성 생애담의 서사 구조와 의미화 방식 연구 - 『책 한권으로도 모자랄 여자이야기』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7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8, 89~116쪽.
- 김정경, 「자기 서사의 구술시학적 연구: 여성생애담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4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9, 177~207쪽.
- 나승만, 「민중 생애담 조사법, 『역사민속학』 제9권, 한국역사민속학회, 1999, 191~204쪽.
- 신동훈, 「한국전쟁 체험담을 통해 본 역사 속의 남성과 여성 - 우리 안의 분단을 넘어서기 위하여, 『국문학연구』 제26집, 국문학회, 2012, 277~312쪽.
- 조홍윤, 「자기발견과 극복의 신화 구조를 활용한 구술 생애담 서사 분석 시론, 『구비문학연구』 제48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18, 301~330쪽.
- 조홍윤, 「터키 한국전쟁 참전용사 구술생애담 조사 연구의 의의-보훈(報勳)을 넘어 소통(疏通)의 이야기로, 『한국고전연구』 제44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9, 99~127쪽.
- 조홍윤, 「터키 한국전쟁 참전용사 구술생애담에 나타난 한국인, 그 약자의 형상, 『한국학』 제43권 4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20, 285~309쪽.
- 한정훈, 「구술생애담, 기억의 재현과 주체의 복원, 『감성연구』 제6집,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3, 169~208쪽.
- 한정훈, 「인정의 서사와 주체의 재정립: 무명의 한 여성 판소리 창자의 구술생애담을 대상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67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5, 347~383쪽.

Ali Denizli, 이선미 역, 『터키인이 본 6.25전쟁』,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2014, 1~165쪽.
Donald E. Polkinghorne, 강현석 외 역, 『내러티브, 인문과학을 만나다』, 학지사, 2009, 1~406쪽.
Necmettin Özçelik, Mehmetcik Korede: Kore Savasinda Türk Ordusu, Istanbul : Yeditepe Yayınevi, 2017, pp.1-87.

Session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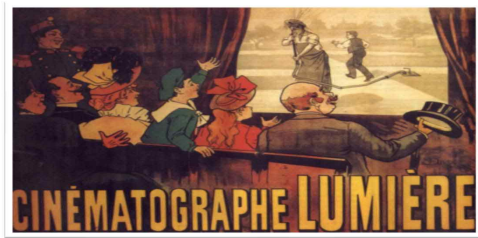
국내학자 발표

발표 1. 지역재생과 커뮤니티 시네마

김이석(동의대학교 영상정보대학 영화학과 교수)

발표 2. 이주무슬림의 한국문화적응을 위한 분열분석 실행연구

권요셉(인하대학교 BK21 글로벌다문화교육연구단 연구교수)



지역 재생과 커뮤니티 시네마

On Regional Rehabilitation and Community Cinema

김이석 동의대 영화학과

강원대학교

영화, 영화관

- 영화의 역사는 곧 영화관의 역사
- 프랑스어나 영어에서 시네마(cinéma, cinema)라는 단어는 '영화'와 '영화관'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음
- 영화관으로서 '시네마'는 산업적,문화적,예술적 시스템으로서 시네마가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목적지
- 영화관은 제작 과정을 거쳐 완성된 창작물이 소비되는 시장이자, 창작자와 수용자가 조우하는 구체적인 만남의 장소

강원대학교

영화, 영화관



- 토마스 에디슨이 루미에르 형제보다 앞서 카메라와 영사기를 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루미에르 형제의 영화가 상영된 날이 영화의 탄생일로 인정받는 이유는 영사방식의 차이였음
- 프랑스 혁명 이후, 공적 영역(public sphere)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루미에르 형제는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맞추어 영사 기술을 개량하였음

영화, 영화관

-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다는 것은 ‘관객의 몸이, 영화관이라는 주어진 공간, 고정된 공간과 관계를 맺는 일’이다. (카멜 르가야) 따라서 영화적 체험은 영화 뿐만 아니라 영화관이라는 공간에 대한 체험이기도 하다.
- ‘어떤 영화를 볼 것인가 못지 않게 어디에서 볼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임
- ‘미적매력성’ : 영화관의 물리적 환경이 관객에게 미치는 요인 중 하나(심재규 등)
- 예술영화관을 찾는 관객의 경우 ‘영화프로그램의 수준’ 보다 ‘소비공간자체’의 수준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기도 함(이상길 외) : 차별화된 문화 체험
- 우리에게 영화관은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 단지 물질적 구조가 아니라 체화된 정서와 사회적 의미에 관한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체화된 경험과 담론화된 의미 그리고 영화관에 간다는 사회적 행위를 통해 형성된 복잡한 상호관계를 포함한다. (Karen Crowe, 2018)

영화, 공동체 문화

- 영국 브래드포드
 - 2009년 첫 번째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로 지정
 - 영국 전체 인구 중 빈곤계층의 20%가 브래드포드에 거주
 - 인도 및 남아시아 이민자 다수
 - ‘다양한 영화 관련 사업을 통해 지역 발전 및 공동체 통합 문제 해결’
 - 브래드포드 국제영화제 등 영화제 개최
 - 영화 문해 프로그램 도입
 - 고등교육학위 수여
 - 영화제작기관 설립 등

커뮤니티 시네마

- 커뮤니티 시네마는 독일어 ‘코뮤날레 키노(Kommunale Kino)’를 영어로 옮긴 용어
 - 1971년 프랑크푸르트에서 상업영화관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코뮤날레 키노의 공공성을 인정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지역 공동체와 영화 문화의 관계성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용어”로 인정받아 통용되고 있음
 - 커뮤니티 시네마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갖춘 국가로는 영국, 독일, 일본 등이 있음
- 커뮤니티 시네마와 예술영화전용관의 차이는 지역사회와의 관계 형성
 - 커뮤니티 시네마는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예술·독립영화를 상영하고 지역 예술가들과 교류하며 지역 주민들을 위한 학습 공간의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문화공간”(김선아, 2015)

커뮤니티 시네마

- 커뮤니티 시네마는 단순히 영화를 상영하는 공간을 넘어 지역과 밀착된 문화공간이자 시민 혹은 관객이 영화문화의 주체가 되는 공간
- Cinema for All
 - 영국을 대표하는 커뮤니티 시네마 조직으로, 명칭에서 시민 및 지역 공동체와의 관계 형성의 중요성이 드러남
 - 영화를 공공재로 인식
 - 핵심 비전 : 전국의 커뮤니티 시네마 분야를 지원(support, 유지(sustain, 개발(develop하고, 전국의 커뮤니티와 관객에게 공공의 가치(public value)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커뮤니티가 고품질의 영화 체험에 접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Cinema for All 2021)

커뮤니티 시네마

- Cinema for All의 운영원칙
 - 커뮤니티 시네마는 관객을 위해 관객이 운영하며, 커뮤니티에서 보길 원하는 영화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커뮤니티에 부여한다.
 - 커뮤니티 시네마는 따뜻하고 친근한 분위기를 제공하여 모든 관객들이 환영 받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한다.
 - 커뮤니티 시네마는 커뮤니티의 사회적 심장으로 영화 토론 및 대화 기회를 제공하고 그렇지 않으면 고립 될 수 있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형성한다.
 - 커뮤니티 시네마는 관객들에게 다양하고 모험적인 프로그래밍을 제공하여 영화, 고전 및 최고의 신작을 전국의 관객에게 제공하고 단편 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및 아카이브 영상을 제공한다.
 - 커뮤니티 시네마는 다양한 극장이 있는 도시이든, 커뮤니티 시네마가 유일한 시골이든 모두 즐거운 공동의 분위기를 제공하고, 특별한 경험과 토론 및 사교 행사로서 영화 관람 경험을 개발해야 한다.

커뮤니티 시네마

- 커뮤니티 시네마에 대한 인식은 운영 주체와 공간의 문제로 구분할 수 있음
 - 일본 : 커뮤니티 시네마를 “지역에서 다양한 영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공헌하는 상영 조직 및 그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 독일 : 커뮤니티 시네마는 “이미 제도의 영역에 들어와 있으며, 멀티플렉스나 일반 상업 상영관과는 구분되는, 공공적 재원을 이용한 비영리적 상영관”으로 인식(정인선 2020)
 - 상영공간에 무게가 실릴 때, 커뮤니티 시네마는 지역 극장, 마을 극장, 주민 극장 등의 표현으로 번역 가능
 - 지방 소도시에 위치한 커뮤니티 시네마의 사례들은 지역 극장이나 마을 극장의 색채를 더욱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음
 - 한국의 커뮤니티 시네마는 상영주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커뮤니티 시네마

- 커뮤니티 시네마의 운영 형태(박동호, 2015)
 - 시민자발형 : 상영장 확보에서부터 상영 프로그램 입안 및 운영까지를 모두 지역 주민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
 - 영국 : '지역 커뮤니티에서, 지역 커뮤니티 사람들에 의해, 지역 커뮤니티를 위해' 조직된 영화 상영'
 - 영화제+행정형 : 영화제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시네마로, '커뮤니티 비프'나 '산복도로 옥상달빛극장' 등이 유사 사례
 - 중심지재생형 : 원도심 재생 사업과 연계한 커뮤니티 시네마로 프랑스 르 멜리에스 극장, 일본 후카야 시네마가 대표 사례
 - 행정주도형 : 국가 혹은 지자체 중심의 사업으로, 오래된 공공기관이나 건물들을 영화관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시행 중인 프랑스가 대표적 사례임

커뮤니티 시네마

- 상영공간에 따른 커뮤니티 시네마의 구분
 - 고정 공간이 있는 정착형 극장과 고정 공간이 없는 이동형 극장으로 구분 가능
 - 정착형 극장 : 오오극장, 모퉁이극장
 - 이동형 극장 : 지역의 공공건물이나 공공장소를 활용하여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상영을 하거나, 일정한 상영 장소가 없이, 영화 상영이 가능한 공간과 장소에서 영화 상영을 하는 형태
 - 책방, 카페, 생활문화센터, 갤러리 등을 활용

국내 커뮤니티 시네마 사례-BNK 아트시네마

- BNK 아트시네마
- 2020년 원도심 개관
 - 부산은행 건물 리모델링
 - BIFF 위탁
 - 모퉁이극장 운영
 - 커뮤니티 비프 중심공간



국내 커뮤니티 시네마 사례-BNK 아트시네마

- BNK 아트시네마
- 상영관 - 비상설 영화관
- 갤러리
- 청년 문화 공간
- 영화 책방



해외 커뮤니티 시네마 사례-르 멜리에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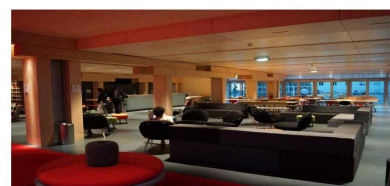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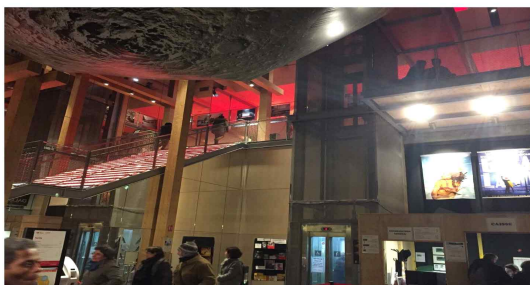
- 르 멜리에스 영화관
- 파리 외곽 몽트레이유에 위치
- 1971년 10월 14일 개관(UGC)
- 1986년 몽트레이유 시에서 매입
- 1996년 리노베이션
- 2015년 8월 19일 이전 신축
 - 프랑스 최대 예술영화관



14

해외 커뮤니티 시네마 사례-르 멜리에스

-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
 - 지역 문화의 중심 공간



15

해외 커뮤니티 시네마 사례-후카야 시네마

- 후카야 시네마
- 소도시 후카야 소재 영화관
- 2000년 빈 점포에 영화관 개관
- 2002년 은행건물 임차 재개관
- 2010년 원도심에 위치한 술도가를 영화관으로 개조



16

해외 커뮤니티 시네마 사례-후카야 시네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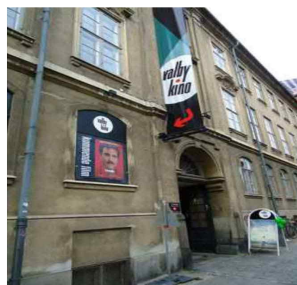
- 후카야 시네마
- '지역민 모두가 만들어가는 마을 영화관'
- 영화관을 활용한 도시 재생 사업의 성공 사례로 손꼽힘
- 상영회, 영화제, 연극공연, 콘서트 등 개최
- 촬영팀 유치 등으로 이어짐
-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



17

해외 커뮤니티 시네마 사례-후카야 시네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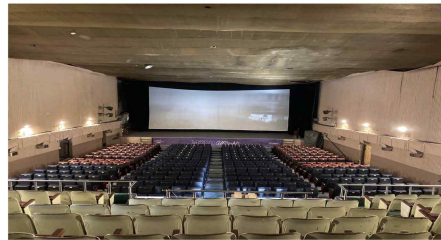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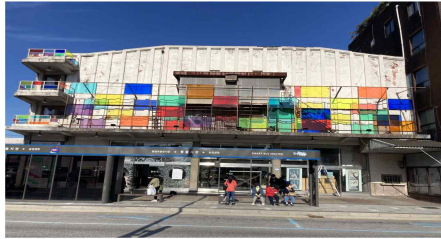
- 발뷔 키노
- 코펜하겐 발뷔 소재
- 지역민에 의해 운영
 - 발뷔 키노 재단
 - 100여 명의 자원봉사자



18

원주 아카데미 극장

- 1963년 개관 2006년 폐관
- 원주시가 매입 후 리모델링 추진 중
 -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 가능성



19

미래의 영화관

- 매체 환경의 변화로 영화관의 위상 변화 예상
- 개인화된 삶 Vs. 공동체적 가치관
- 미래의 영화관
 - 스펙터클의 체험 공간으로서 영화관 : IMAX 등
 - 공동체 공간으로서 영화관 : 커뮤니티 시네마
 - 문화 담론의 변화
 - 공적 공간의 필요성

참고문헌

김선아, 「한국 지역극장의 현황 및 지역 문화공간으로서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일본 커뮤니티 시네마 운동의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영화연구』 63호, 한국영화학회, 2015

김이석, 「지역 영화문화와 커뮤니티 시네마의 가능성- 부산의 사례를 중심으로」, 『디지털문화아카이브』 5권 1호, 2022

-----, 「극장을 중심으로 살펴 본 부산의 영화문화」, 『영상문화』, 13권, 2011

박동호, 「일본 커뮤니티 시네마를 활용한 도시재생 사례 연구」, 『예술경영연구』 49집, 2019.

심은진, 「영화, 영화관, 상상의 섬」, 『영화연구』 18호, 한국영화학회, 2002

심재규, 장원재, 황인창 외, 「영화관의 물리적 환경이 관객의 감정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조선대 지역발전연구』 vol 10, No 1, 2005.

윤지영, 금성근, 「부산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부산발전연구원, 2016.

원승환, 함주리, (2013), 『영화관 일동조합 사례 및 도입 방안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2013.

이상길, 홍남희, 정설민, 「예술영화관 이용자의 영화수용과 공간경험」, 『언론과 사회』, 2010년 겨울 18권 4호.

Karen Crowe, *Preserving cinemas, constructing community: intersections of policy, placemaking, memory and belonging in rural NSW community cinema restoration projects*, Thesis, University of Wollongong, 2018

이주무슬림의 한국문화 적응을 위한 분열분석 실행연구



권요셉 (인하대학교 BK글로벌다문화교육연구단 연구교수)

서론

- 01 이주 무슬림들의 한국 이주율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누적 인구는 늘어가는 추세이다(김 아영, 2022). 이는 유학생이나 단기 노동자보다 장기 사업자나 결혼이주 등의 정착을 위 한 이주민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주 무슬림들은 한국 사회로 융화되기보다 이주 무슬 림 공동체를 형성하여 개별적 사회를 만드는 성향이 강하다(조희선 외 2009; 김영남 20 20). 문화코드가 다를수록 개별 공동체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이주 무슬림의 경 우 문화적 수용성이 낮은 종교적 신념이 있어서 모스크를 중심으로 개별적인 공동체를 형 성하는 경우가 많다(김성운, 2021). 이주 무슬림들이 한국에 자연스럽게 융화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 02 본 연구자는 아랍지역학 석사를 하고 사우디, 이라크, 요르단 등의 아랍 지역에서 6년 동안 거주하였다. 무슬림들의 삶과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현재는 상담사로서 이주 무슬림 들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지원을 위해 상담 및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주 무슬림들을 상담 하며 이들의 문화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펠릭스 가타리의 분열분석을 토대로 이주 무슬림 문화적응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행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문가들의 평가를 토대로 이주 무슬림들의 문화적응 프로그램을 구성하 는 데 있다.

이론적 논의

- 01 이주 무슬림
한국은 이주민들을 한국 문화에 적응하도록 안내한다. 이주민들의 자문화 보존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정책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미비하다. 앞으로 자문화 보존 정책들이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아직은 이주민들은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한국에서 삶을 유지하는 길이 된다. 그러나 이주 무슬림들의 경우, 문화가 곧 종교이고 신념이기 때문에 한국문화에 적응하여 한국인과 같이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이주 무슬림 공동체를 구성하여 분리되어 살아가는 방식을 취한다.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주 무슬림들이 계통화 되어 나라 내의 다른 나라와 같은 공동체로 성장했 다. 한국 문화에의 적응을 넘어 융화가 있어야 이주 무슬림들이 계통화되지 않고 한국에 정착할 수 있 다. 새로운 구성원이 생기면 공동체도 변하는 것이 건강한 융화이다.
- 02 분열분석
분열분석은 펠릭스 가타리가 장오리와 함께 개발하고, 들뢰즈와 가타리의 이름으로 알려졌다. 분열 분석은 보르도병원에서 정신치료의 방법으로 개발되었으나 현재는 예술의 융합을 위해서도 활용된 다. 가타리는 인간의 정신뿐 아니라 사회와 문화도 선분성으로 코드화 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코드의 변화가 정신과 사회를 변화시킨다고 보았다. 본 연구자는 분열분석을 문화이동이나 문화적응을 위 해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이주 무슬림을 위한 분열분석 문화적응 프로그램을 구상하였다. 분열 분석은 주제성 생산을 위해 탈영토화하여 재영토화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이다. 각 영토는 지층화, 코드화 되어 있으며 탈영토화를 위해서는 영토에 수업이 형성된 코드의 선분들을 탈주하여 새 영토 에 맞게 재코드화한다. 재코드화 과정에는 수동적 무의식의 종합의 방법을 역으로 적용한 연결, 이 접, 통접이 있다.

분열분석 (선분, Line) 재코드화의 예시



연구방법

실행연구

실행연구는 현장의 문제를 발견하고 현장의 문제를 풀기 위해 모든 과정이 철저히 현장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이론적 혹은 학문적 기여만으로는 부족하여 현장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현장 실무자에 의해 진행되는 '실행=연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행연구는 연구의 주체-객체의 분리를 거부하고 연구자도 연구 참여자도 동일하게 능동적인 참여자의 입장을 취하며, 외부 평가에 의해 반성과 실행의 반복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한다.



실행전 프로그램

○○○				
1~4주	5~8주	9~12주	13~16주	17~20주
가족, 종교, 사회, 교육 분야의 고향에서의 코드 분석	가족, 종교, 사회, 교육 분야의 한국에서의 코드 분석	비교를 통한 코드의 차이 분석	두 코드의 종합 연접 이접 통접	새로운 코드 구성하기

* 이 템플릿에 사용된 이미지는 예시입니다.

실행전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 평가

전문가 1. 이슬람 전문가 대학교수

- 01 긍정적인 시도임
- 02 현재 제도 안에서는 한국에 적용하는 교육만 제공함
- 03 가족, 종교, 사회, 교육을 모두 분석하는 것은 무리임
- 04 단편적인 과정보다 내러티브를 활용해야 함
- 05 중간지점을 찾는 방식의 해결은 실제로는 어려울 수 있음.

전문가 2. 틀립즈가타리 전공자 대학강사

- 01 분열분석의 적절한 활용
- 02 이주무슬림뿐 아니라 다른 이주민들에게도 적용 가능해보임
- 03 가족 한 분야에만도 수백개의 코드가 있을 텐데 분석이 가능할지?
- 04 연구참여자에게 직접 문제를 물어보는 방식은 어떨지?
- 05 변화를 점검할 수 있을지?

FAST MARKETING

1차 실행 프로그램 - 전문가 의견 반영

반영 전

- 01 가족, 종교, 사회, 교육의 고향 코드 분석
- 02 가족, 종교, 사회, 교육의 한국 코드 분석
- 03 비교를 통한 두 코드의 차이 분석
- 04 두 코드의 종합(연접, 이접, 통접)
- 05 새로운 코드 구성

반영 후

- 01 한국적응에 어려운 점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 02 어려운 부분에 대한 현재 코드 구성하기
- 03 어려운 부분에 대한 고향 코드 구성하기
- 04 두 코드의 종합(연접, 이접, 통접)
- 05 새로운 코드 구성

2015 35TH FAST MARKETING CAMP

00

1차 프로그램 실행



연구참여자 A

안나의 소개로 한국인 무슬림 남성과 결혼. 결혼 6년 차. 유치원 다니는 아들이 있음. 한국에 온지는 6개월.

가장 어려운 점

복장에 대한 주변의 시선과 반응. 집에 있을 때 남자 손님이 갑자기 왔는데, 히잡을 벗고 있어서 당황한 게 한두번이 아님.

고향에서는?

- 여성용 택시를 이용.
- 남자들이 집에 오려면 가족 차원의 초대가 있음.
- 친구와 어울린다는 건 여자들을 의미함
- 종교 활동이 자유로움.

바꾸길 원하는 것

- 손님과 약속을 잡고 만나는 것. 남자와 만남이 어려움. 배달, 택배 등.
- 종교활동에 대한 배려. 매일 기도 등.
- 교통수단 이용. 대중교통 이용 시 남성들과 접촉

현재 어떻게 처리하는지?

최대한 나오지 않고, 만나지 않고, 집에서 지내거나 학교와 모스크에만 가고 무슬림 여자들만 만남. 무슬림이 아닌 여자인 경우 집으로 부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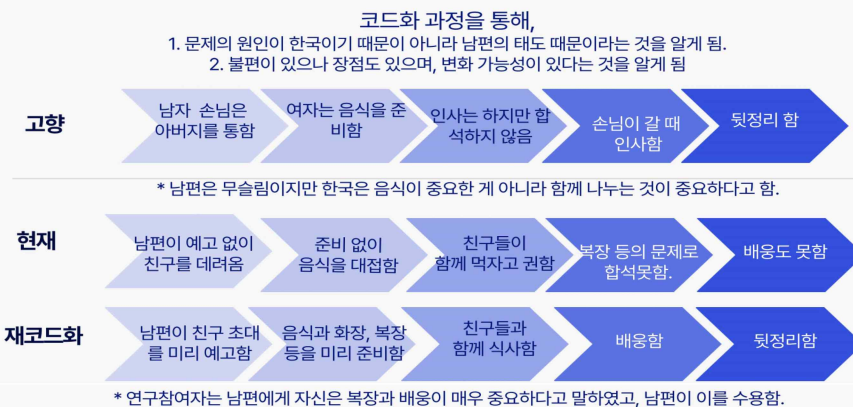
00

종합의 과정

01	02	03
연접	이접	통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남자와 결혼한 것이 좋음. 친절하고 가정적임. ● 한국어학교를 다니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인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좋음. ● 아이가 한국 교육 받는 것이 좋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편 친구들이 찾아오는 것이 불편함. 그리고 합석을 권하는 것이 불편함. ●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데리러 가야 함. 유치원 부모 참여 행사가 많음 ● 대중 교통 이용시 남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불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라는 새로운 직업을 알게 되고 공부하며 꿈을 키우게 됨. ● 여성 전용 헬스장 등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고 활력이 생김 ● 아이 유치원 친구 어머니들과 새로운 공동체가 생김. 아직 어색함. 기대됨.

2015 35TH FAST MARKETING CAMP 00

연구참여자 A의 대표적인 코드 변환



00

1차 실행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 평가

전문가 1. 이슬람 전문가 대학교수

- 이주 무슬림들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과정으로 보임.
- 개인적 어려움과 문화적 어려움을 구분하는 작업 필요

전문가 2. 틀뢰즈가타리 전공자 대학강사

- 코드화와 재코드화, 종합의 개념이 너무 단순화 된 느낌이 있음. 그러나 프로그램으로 하기 위해서 조작적으로 정 의했다는 측면에서 이해가 감.
- 연구참여자로부터 어려움뿐 아니라 스스로의 극복 및 대처 했던 방법도 들을 필요가 있음.

프로그램 수정 내용

개인적 어려움과 문화적 어려움을 구분



1~4회기에서 개인적 어려움과 문화적 어려움을 구분하도록 진행함.

코드화를 너무 단순화시켰음.



연구 결과로는 단순화해서 나오지만 인터뷰 과정에서는 복잡한 내러티브가 있었음, 코드화뿐 아니라 내러티브를 re-storytelling하는 과정을 추가시키기로 하였음

스스로 극복한 방법을 들을 필요가 있음

1~4회기에 스스로 극복했던 방안을 추가하였음

2차 프로그램 실행

연구자 B의 인터뷰



연구참여자 B
유학했던 기독교인 한국인 여성과 결혼. 현재 자녀는 없으며 한국에 온지 1년 됨. 한국에서 커피숍 운영

가장 어려운 점

- 집안의 가장은 자기인데, 한국 사람들이 아내를 가장으로 인식하는 것이 어려움. 실제 커피 수입등은 직접 하는 데, 대부분 사람들이 아내에게 물어봄.
- 아내의 일정을 모르는 것이 어려움
- 종교활동이 어려움(살라타임 등)

바꾸길 원하는 것

- 아내와의 일정 공유
- 종교활동에 대한 배려. 매일 기도(살라타임) 등.
- 사업을 전체적으로 직접 컨트롤하고 싶음.
- 아내의 일정을 알기 원하는 것은 남녀 평등을 몰라서가 아니라 아내를 아끼고 보호하기 위해서임.

고향에서는?

- 남자가 가장이고 책임을 짐.
- 사업은 남자의 역할임
- 여자의 일정을 모르는 것이 남편의 수치임
- 종교 활동이 자유로움.

나의 대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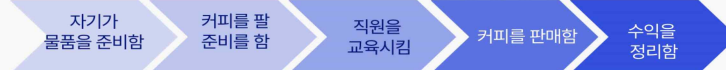
- 한국 문화에 적응하려고 노력함.
- 언어 공부를 하고 있음.
- 한국의 가치를 이해하려고 노력함.

연구참여자 B의 대표적인 코드 변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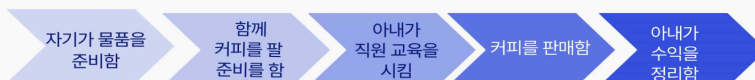
코드화 과정을 통해,

1. 문제의 원인이 문화때문이라기보다 자기의 언어문제 때문임을 알게 됨.
2. 아내와 업무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됨.

고향



현재



재코드화

* 연구참여자는 코드화에 관련한 과정을 하는 과정에서 아내와 이부분을 두고 진지하게 의논하였고, 아내는 자기가 컨트롤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연구참여자가 언어가 부족하니 불편할까봐 나선 것이라고 함. 연구참여자가 원하면 고향에서 하던 코드대로 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막상 연구참여자가 고향에서처럼 하려고 하니 언어부족으로 힘들었다고 함. 이 상황에 관하여서는 재코드화를 하지 않고 고향에서 하던 코드로 연구참여자가 주관하여 진행하기로 함.

최종 프로그램

○○○	1~4주	5~8주	9~12주	13~16주	17~20주
한국생활적응에 어려운 점과 현재 극복 및 적응 방법 나누기 - 개인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 구분하여	어려운 부분에 대한 현재 코드 구성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고향 코드 구성하기	두 코드의 종합 연결 이점 통점	새로운 코드 구성하기	

결론

- 분열분석을 이용하여 이주무슬림들의 한국 적응을 돕는 것은 상호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가정에 도움을 주고,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유용했다.
- 초기 연구 문제 및 목표를 설정할 때는 문화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성된 프로그램인데, 심리 및 정서 지원을 위해서도 좋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특히 연구참여자 B의 경우, 연구참여자 스스로 문화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했던 몇몇 문제들은 사실상 문화적응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위축감이나 정서적 어려움 때문이었음을 확인하였다.
- 분열분석을 이주무슬림의 한국문화적응을 위해서 개발을 시작했지만 이주민들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서도 좋은 과정이 될 것이다.
- 분열분석을 이주민 및 이주무슬림들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 프로그램을 집단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 것도 남겨진 과제이다.

THANK YOU!

